

Book Title: Following the Context of the Book of Genesis

성서당 창세기 맥 읽기

Author: Kyungrae Kim, Ph.D. (金京來博士)

Following the Context of the Book of Genesis

This writing is a combined text of Maranatha Bible 1, 2, 3, and 4 below. This is an easy and interesting explanation of the Book of Genesis context by context, targeting on non-believers or new believers. Any Christian can get help also through this book.

Sep. 1998. 「Maranatha Bible 1: My King My Creator」 ,
「나의 왕 나의 창조주: 창세기1장에서 9장까지의 맥 읽기」 Seoul (in Korean).

Mar. 2000. 「Maranatha Bible 2: Heavenly Pilgrim Walking on the Earth」 ,
「땅위를 떠도는 하늘 나그네: 창세기10장에서 20장까지의 맥 읽기」 Seoul (in Korean).

June 2004. 「Maranatha Bible 3: Life within God's Reach」 ,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창세기21장에서 35장까지의 맥 읽기」 Seoul (in Korean).

June 2004. 「Maranatha Bible 4: From Suffering to Glory」 ,
「고난에서 영광으로: 창세기36장에서 50장까지의 맥 읽기」 Seoul (in Korean).

어처구니없는 창조주 이야기 <창세기 1장>

제목이 좀 이상하다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성경의 맨 처음 장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가 크리스토티인인 나에게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나 이거지요? 내가 이렇게 표현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나 당신이나 우리는 다같이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가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것인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당신은 로봇이나 컴퓨터가 그것들을 만든 인간에 관하여, 또는 인간에 의하여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얘기하는 장면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당신은 이 일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만일 실제로 로봇이나 컴퓨터가 인간에 대하여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것들을 만든 인간이 그것들 안에 인간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주변 환경을 지으시면서 우리와 우주 가운데 입력해 놓으신 정보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 얘기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논한다든지 그분의 생성과정 운운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에게는 모두가 주제넘은 일들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안에 입력해 놓으신 정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굳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지음 받을 때부터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생각을 달리 한다고 할지라도, 부디 나의 말에 한 번쯤 귀를 기울여보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시작 <창세기 1:1>

인간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언제 어떻게 시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거의 모든 것은 그 유래와 생성과정을 얼마든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 자신과 우주만물의 기원에 대하여는 왜 그리도 많고 서로 다른 설명들이 널려있는지요? 소위 철학자나 과학자라고 하는 이들마다 다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안에 입력해 놓은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 궁리하여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이러한 혼돈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입력해 놓으신 정보를 열어볼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보통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입니다. 가까운 과거에 일어났거나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쉽게 꾸며서 얘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야기의 시간을 아주 먼 옛날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먼 옛날부터 살아온 사람이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라는 말은 이야기 시작에 있어서 아주 편리한 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맨 처음에’라는 낱말로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첫 머리의 ‘맨 처음에’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자면,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라는 표현과는 전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후자가 그저 막연한 과거를 가리키는데 반하여, 전자는 시간이 생기기 이전의 절대적 ‘처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묘사된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계와 인간 역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느 시점과 어느 지점’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계에 대하여 몹시 슬퍼합니다. 인생의 한계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는 유한한 인간 자신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한계 너머에 계신 영원하신 존재만이 우리의 한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첫머리에 영원하신 존재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한계 문제를 풀고 영생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얘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정리하고 채우시는 하나님 <창세기 1:2-19>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 세계 가운데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입력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보를 읽어가면서 때때로 지나친 호기심이 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기본적인 틀과 요소들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둘째 날에 만드신 하늘과는 다릅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들도 이 하늘과 더불어 창조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지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바로 땅에 관한 정보입니다. 땅을 중심으로 하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안에 피조물 중의 걸작품인 인간을 두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땅을 ‘원초적 지구’라고 불러봅시다. 이 원초적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숨씨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무슨 소요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질서와 조화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순서 있게 진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원초적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칠후 같은 어둠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계신지요? 물과 어둠만으로 덮인 원초적 지구라는 개념이 좀 황량하게 느껴지겠지요. 그러나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靈)이 유유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기대해 봅시다 하겠지요.

질서의 하나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원초적 지구에 모든 생명의 원천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이 빛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빛이 생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넷째 날에 지음 받은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발광체들, 다시 말해서 빛을 내는 물체들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빛의 창조는 시간의 시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빛이 창조되면서부터, 어둠과 빛이 이제 일정한 주기를 따라서 교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주기가 끝나자,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어둠과 빛 사이에 주기를 정하셔서 시간적인 질서를 유지하신 하나님은, 다음으로 원초적 지구 위를 덮은 물 사이에 널따란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널따란 공간 역시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것은 지구에 사는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창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초적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은 이 하늘 공간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장차 생명체의 거주지가 될 지구 공간도 점차 질서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어둠과 빛의 주기가 한 번 더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둘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하나님은 정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 다시 말해서 여전히 지구 위를 덮고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마른땅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육지와 바다를 가르고 나니, 지구는 훨씬 더 좋은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지구 공간을 채우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채울 대상은 바로 육지였습니다. 온갖 풀과 온갖 채소와 각종 나무로 육지를 장식하고 나니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후로 이들 식물의 세계가 씨앗을 통하여 스스로 그 존재 자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식물 나라를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창조하심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더하셨습니다. 이제 지구는 풍요의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넷째 날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발광체들을 만드시고 각기 정해진 위치에 두셨습니다. 지구를 위한 조명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낮을 위한 조명등 구실을 할 해와 밤을 위한 조명등 구실을 할 달과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각기 정해진 위치에서 조물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라서 질서 있게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발광체들은 앞으로 지구 위에 나타날 인간 세계를 위하여 달력 노릇도 하고, 아울러 각종 징조를 보여주는 구실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지구인가? <창세기 1:20-27>

자,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처럼 아름다운 집을 만드시고 꾸미시는 걸까요? 이처럼 철두철미하게 준비되고 만들어진, 아름다운 지구 안에 살면서 ‘이것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로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이것 저절로 된 것이로군’ 하고 한 마디 내뱉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에는 물고기를, 그리고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들 역시 식물 나라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분류하여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들과 새들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 물과 땅 위를 채워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피조물들 역시 한 번 창조된 이후로 각기 종류별로 생명을 오래도록 존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컴퓨터는 또 다른 컴퓨터를 낳지 못합니다. 자동차도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든 모든 기계는 자력을 통한 종(種)번식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지구를 물고기와 새들을 위하여 만드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본인이 살려고 지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이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집을 만드셨나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 위에 가축과,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등의 온갖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지구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한 바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는 앞서 있었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르냐고요? 한 마디로 말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만일 사람이 컴퓨터를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컴퓨터의 겉모양을 사람의 모습처럼 만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단순히 겉모양으로만 인간의 모습을 갖춘 컴퓨터는 별로 특별한 인조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스스로 배울 능력이 있고, 자의대로 말할 수 있으며, 나름대로의 감정을 가진 컴퓨터가 생겨난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모든 인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요, 보다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 안에 사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靈)이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무슨 눈에 보이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어수룩한 발상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은 가시적인 것이 아닌 다른 현상을 통하여 찾아야 합니다. 인간 안에 반영된 하나님의 형상은 어찌 보면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에게는 풍부한 언어능력, 지능, 의지, 감정 등의 속성들 외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속성을 영성(靈性)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동물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의사전달 능력, 지능, 의지, 감정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영성만은 동물의 세계에는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인간의 영성에 관하여는 다음에 보다 상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마치고자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영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만 반영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지구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충분히 확보한 인간이 창조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도 최대의 걸작인 인간을 위하여 지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지기 인간 <창세기 1:28-31>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 한 쌍으로 만드셨습니다. 식물 나라, 동물 나라 할 것 없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고, 스스로 지속적으로 존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생장 및 번식의 법칙을 그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역시 지속적인 생존을 위한 법칙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 관계를 통하여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러 종류가 아니라, 처음부터 오직 한 종(種)으로만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한 쌍의 인간을 통하여 순수한 영성을 지닌 인종을 땅 위에 존속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일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는 축복 외에,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공중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피조물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 안에 간직한 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중대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 위의 씨 맺는 채소와 과실들을 양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공중의 못 생물들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이로 허용하셨습니다. 인간이 땅을 제대로 관리하는 한 땅은 인간과 못 생물에게 충분한 양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굳이 다른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녹색 나라에서만 양식을 제공받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지구의 운명은 하나님이 창지기로 세우신 인간의 손에 맡겨진 셈입니다.

요즘 공상영화 중에는 인간이 만든 인조인간, 곧 일종의 기계가 인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기상천외의 내용을 소재로 한 것도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려 하는 것은, 기계가 인간을 정복하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반역입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이 넓고 신비한 우주 공간 안에서 그분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저 조그만 풀 한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씨를 보시나요? 당신 자신과 모든 동료 인간들의 살아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십니까? 만일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 <창세기 2:1-3>

엿새 동안의 창조 일이 끝나고 일곱째 날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쉬셨다고 말합니다.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런 생각 때문이지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엿새 동안 창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좀 쉬어야 할 정도로 피로를 느끼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휴식이라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일곱째 날, 곧 우리가 흔히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날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요, 우리 인간의 휴식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심도 모두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편의상 계속 사용하긴 하겠지만, 안식의 의미를 하나님의 경우 약간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우 그것은 단순히 ‘일을 마치고 일에서 손을 떼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곱째 날, 곧 안식일은 사람의 날이요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일을 멈추시고, 오히려 모든 피조물중의 머리인 사람이 충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를 기다려 주십니다.

인간은 여섯째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날 중 맨 마지막 날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첫 사람 아담은 창조되자마자 바로, 다시 말해서 안식일인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부터 일을 하도록 정해진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쉬는 날이 언제냐에 따라서 크게 다른 것입니다. 먼저 쉰 다음에야 일을 시작하는 우리 인간은 일을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손을 놓으신 조물주 하나님과는 크게 구별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인 이상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인간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피조물인 주께 감히 창조주 하나님처럼 살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선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일이 끝나고 형편이 편지면 쉬자는 식의 삶 말입니다. 먼저 쉰 다음에 일한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지도 않을 뿐더러 좀 미안하고 어색한 감정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는 본래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먼저 쉬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찾은 자 만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실체 <창세기 2:4-7>

우리는 여기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창조의 근본 바탕이기도 한 ‘하나님의 형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인간 생명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자, 인간 창조의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요소로서, 사실 인간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는 일종의 그릇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릇은 언젠가는 깨집니다. 이제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생명체’가 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생명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호흡’이 필요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조물주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호흡’이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속성, 곧 영성(靈性)을 가지고 설명하였습니다. 인간의 올바른 영성,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 자체입니다.

당신은 인간 생명의 실체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당신의 육체가 건강하게 서 있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건강한 생명을 위하여 육체를 튼튼하고 보기 좋게 가꾸는 일에 힘쓰십니까? 나쁠 거야 없겠지요. 하지만 당신의 육체는 진정한 생명을 담아주는 일시적인 그릇일 뿐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 생명의 실체는 인간의 육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을 때만 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당신은 육체 안에 사는 동안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도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을 갖고 닦으면서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생명의 실체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육체가 시들어 그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요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그릇을 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낙원과 관리자 아담 <창세기 2:8-17>

인간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곳은 동방의 에덴이라고 불리는 곳에 준비된 아름다운 낙원이었습니다. 비록 ‘낙원’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것은 조그만 규모의 거주지가 아니라 상당히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전체가 아름답지만, 에덴의 낙원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설계 아래 건설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동식물과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생수를 공급해줄 강을 준비하셨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이 강은 에덴의 낙원에 충분한 생수를 공급해 주면서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거기서부터 이 강은 네 줄기로 나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네 줄기 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도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묘사하고 있는 상황이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인하여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있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그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에덴 낙원은 풍요를 약속 받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낙원에 각종 나무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나무들은 관상용으로도 좋고, 그 열매를 따서 먹기에도 좋은 아름다운 유실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무들 중에는 아주 특이한 나무 두 그루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불리는데 낙원의 중앙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비교적 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나는 이 두 나무에 대하여는 뒤에서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낙원에 첫 사람 아담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에덴 낙원을 관리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서 이제 당당히 에덴 낙원의 관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관리인은 주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담의 책임 의식을 확인하는 동시에 아담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하여야 하는 피조물임을 상기시키고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의 모든 나무로부터 네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는 이 금단(禁斷)의 나무에 대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 외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나무가 에덴 낙원에 있었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피조물인 아담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만 알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결코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기 이전에 자신의 행실과 만물의 관리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울리는 배필을 얻은 아담 <창세기 2:18-25>

에덴 낙원의 아담, 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낙원의 관리를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그에게 걸맞은 배필을 줄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의 마음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지으신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재량껏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동물들 각각에게 알맞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하여 그것들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십분 활용하여 자연 과학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동물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는 동안 혹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더욱 유심히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 무수한 동물들 중 어느 하나도 자신에게 걸맞은 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허탈감에 빠졌을 겁니다.

이제 아담의 허탈감을 채우실 분은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완전히 대등한 자격을 갖춘 존재로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일테면 아담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전신마취를 시킨 셈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의 옆구리를 열고 갈빗대 하나를 꺼내십니다. 그 갈빗대가 있던 자리에는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갈빗대로 아담의 상대역을 할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장엄한 수술 과정,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창조 과정 가운데 가장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아담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성까지도 여자에게로 복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아담과 완전히 대등한 자격을 갖춘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완벽한 복제 작업이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자기의 권한에 두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이와 동일한 작업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담을 잠에서 깨우시고 그에게로 이제 막 창조하신 여자를 데려오십니다. 아담이 자기와 그리도 비슷한 이 새로운 생명체를 보는 순간, 아담의 감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이제까지 무수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행여나 자신의 배필을 찾을까 기대했다가 실망한 아담은 마침내 자기에게 걸맞은 배필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감격하여 탄성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아담은 다시 본능적으로 작명가가 됩니다.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당장에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אִישׁ)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샤’(אִשָּׁה)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쉬’의 여성형입니다. 남자의 짝이 되는 여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에 의하여 이처럼 남자와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이로써 인류를 위한 하나의 대원칙이 세워지는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하나님의 배려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결코 경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한 육체를 이루는 연합입니다.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있어서 남녀의 연합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더욱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합이 순수하고 질서 있게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남녀의 연합 관계를 경솔하게 여기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구분별하거나 비정상적인 성욕(性慾)에 내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에덴 낙원의 아담과 그 아내, 이들 두 사람은 비록 별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연합 관계를 이루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끄럼 없이 행할 때, 쌍방 간에도 아무런 부끄럼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와 더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의 행복을 누리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두 사람 각자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연합 생활을 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아직 미혼이라면 이 일을 위하여 미리부터 창조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것을 권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창세기 3:1-7>

에덴 낙원의 아담 부부는 하나님이 제공해주신 최적의 환경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책에서 사탄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아마도 당신은 갑자기 사탄이 어디서 등장한 것이냐고 묻고 싶겠지요? 나 역시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 가운데 자신의 지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입력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사탄의 유래나 출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를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존재를 가리켜 천사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어떻게 그런 타락이 가능한지도 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에덴 낙원에서 사탄이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택한 것은 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탄이 어떤 식으로 뱀을 이용하였으며, 또 어떻게 그 뱀이 하바와 대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나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러한 가능성만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탄은 뱀을 이용하여, 또는 뱀으로 화신(化身)하여 에덴 낙원의 여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뱀은 하바에게 나타나 교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더러 낙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했니?” 질문으로 보건대, 사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시하신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려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처럼 교활하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신은 사탄에 대하여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모든 거짓의 근원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멀리 하십시오.

뱀의 교활한 질문을 받고 여자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빼놓고 다 먹을 수 있어. 그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만일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하셨거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금지령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거짓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집요하게 잡아당깁니다. 뱀은 다시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그것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야”라고 하였습니다.

뱀은 이처럼 달콤한 말로써 여자의 알고자 하는 욕망과 높아지려는 욕망을 자극하였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사탄에게 치명적인 공격 목표를 제공해줍니다. 남을 짓밟기까지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성적인 충동이나 쾌락을 따르려는 욕망, 심지어는 필요 이상으로 알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사탄에게 쉽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줍니다.

뱀의 달콤한 유혹의 말로 인하여 여자의 시각이 변하였습니다. 변한 것은 에덴 낙원 안에 처음부터 서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여자의 시각이었습니다. 여자가 눈을 들어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눈길을 끄는 무언가가 있고, 그 열매를 하나 따먹기만 하면 총명해질 것 같이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자는 자신의 시각이 요구하는 바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뻗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자는 동반자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아담마저도 그리 쉽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받아먹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잠시 주관과 객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리켜 객관이라고 부르고, 우리 인간의 시각을 가리켜 주관이라고 합니다. 약간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객관이고, 모든 인간적 가치관이나 견해는 주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내가 사전에도 없는 말로 억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 너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객관적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탄은 이 객관적인 말씀을 의심하도록 달콤한 말로 여자를 유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탄은 여자의 욕망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시각이 변하였는데, 그 변한 시각이 바로 ‘주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관이 아닌 객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객관은 다른 말로 믿음의 시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먼저 여자와 아담, 이들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까지 벌거벗은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이제까지 벌거벗은 데 대하여 전혀 부끄러움을 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깨닫고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임시로 가리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인간 <창세기 3:8-13>

아담과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분을 피하여 숨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크게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도 사랑스럽고 인자하게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비뚤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앞에서 인간의 육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을 때만 인간 생명의 실체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굳이 육체가 멸절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고 끊어진 인간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거스른 인간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못된 습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아담은 먼저는 아내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다음에는 그 아내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자를 받고서는 “이번에야말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구나!” 하며 감격과 감사의 탄성을 터뜨렸던 아담이 이제 와서는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내 친구 당신은 알고 있는지요? 원망과 불평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한때 감사했던 이, 고마움의 대상이었던 이를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사실상 대부분은 나의 시각이 변한 것입니다) 불평 원망하는 것은 자신의 조속한 파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친구여! 간청하는데, 원망과 불평만은 멀리 합시다. 동료 인간에 대하여도 그러하거니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더더욱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여자 역시 아담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여자는 말하기를, “뱀이 나를 꾀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 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는 인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의 열매 <창세기 3:14-19>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스르는 일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반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차례대로 그들이 당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법정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분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창세기 3:14-15에는 여자를 피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한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15절의 말씀은 보통 ‘원시(原始)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심판의 말씀이 아니고, 복된 소식이나고요? 뱀에 대한 저주 가운데, 장차 한 특별한 존재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부터 들어보기로 합시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다. 그는 네 머리를 다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다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특별히, 처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는 메시아, 곧 하나님이 장차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 세상의 통치권을 장악할 터인데, 그의 통치는 사탄 곧 ‘옛 뱀’의 세력을 분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처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세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와 사탄의 싸움에 있어서 메시아 역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아마도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들을 출산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벌 외에도 하나님은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며 살 것이요,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은 남녀간의 불균형과 부조화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대로 대등한 관계와 상호조화를 이루려면 죄를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처럼 형(刑)을 선고하십니다.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다. 너는 평생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빵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수고가 끝나는 날은 바로 네가 흙으로 돌아가는 날임을 알라. 너는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첫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범죄한 이후 우리 인생은 일평생 땀과 수고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주실 이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오직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밑에 당신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의 구원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배려 <창세기 3:20-24>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자기와 어울리는 상대를 발견한 아담이 감격하여 “남자(이쉬)에게서 나왔으니 여자(이샤)라고 해야겠군!” 하며 자기 짝의 이름을 지어준 일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 가운데(그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의 형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산 자들의 어미가 될 아내의 이름을 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일은 참 생명을 향한 인간의 절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바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임시 가리개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갈 리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담과 하바를 위하여 비교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영원한 구원의 옷을 입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하여 ‘선과 악을 안다’는 표현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선과 악을 구별한다’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표현이나 또는 그와 비슷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먼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좋은 통치자는 이 속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훌륭한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을 때 사람은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거나 나쁘거나’ 하는 판단의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3)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의 속성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은 갓난아이 시절을 벗어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선과 악을 알다’라는 표현의 의미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아담과 하바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은 선악을 구분하는 일을 자신 혼자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 그는 마치 갓난아이와 같아서 벌거벗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악을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경우 인간에게 기대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100%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인간에게 지시하십니다. 결국 인간이 사는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은 위험한 행동이요, 곧 죽음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예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마태복음 18:3-4)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바는 이제 뱀의 말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적어도 눈이 밝아졌고, 또 선과 악을 아는(구별하는) 일에는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선과 악을 아는(구별하는) 일에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자신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 인간에게 더 이상 생명나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아는 능력과 생명과는 상호 연관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생명나무로부터 격리시킨 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벌(罰)도 되려니와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죄에 빠진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온갖 죄악과 질병과 고통과 불행으로 점철된 불사(不死) 그 자체가 끔찍한 형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낙원에서 쫓아내어 그의 근본 되는 흙을 경작하게 하시고, 크롭들과 번쩍이는 불꽃 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여기서 크롭들과 번쩍이는 불꽃 칼이란 일종의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매사에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고자 하는 자, 자기가 세운 특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이런 이들은 결코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스스로를 판단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학문적 소양의 결과인 지식이나 인생의 경험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철이 들고 성인이 되면서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악은 분별할 줄 알되, 악을 버리고 선만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성인이 그렇지 못한 어린이보다 더 선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구원 또는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금하십니다. 인간의 구원과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죄 <창세기 4:1-7>

첫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바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들 사이에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났다는 감격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면서, 아이의 이름을 ‘엔음’이라는 뜻의 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의 감격은 이미 식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헤벨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고통 중에 아이를 낳고 또 땀을 흘려야만 빵을 먹을 수 있는 고달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헤벨은 자라서 양치는 자가 되었고, 카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농사꾼인 카인은 농사지어 거둔 것으로, 그리고 양치기인 헤벨은 양떼 중 처음으로 태어난 만배 중에서 기름기 도는 것으로 골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헤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제물보다는 사람입니다. 제물의 내용이나 제물을 바치는 자세에 앞서, 카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추측컨대 카인은 죄의 접근을 막지도 피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 듯 합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후에 카인이 취한 태도는 아담과 하바가 불순종한 이후로 과연 죄가 인간 중에 왕노릇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인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헤벨과 그의 제물만을 기쁘게 받으신 데 대하여 불타는 증오심과 앙심을 품습니다. 카인은 먼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고, 그리고는 동생 헤벨에 대하여도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나 생각이나 언어에 대하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남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일에 대하여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이득이 중요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카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이미 떠났습니다. 이제 카인이 택할 길은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카인은 낮빛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무척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만있을 리는 없지요. 하나님은 “왜 너는 화를 내며, 왜 얼굴빛이 변하였느냐?”면서 카인을 추궁하십니다. 그러면서 카인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네가 잘한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만일 잘못한다면, 죄가 문 앞에 깃든다. 죄가 너를 간절히 원하는데,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카인과 죄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범죄한 모든 인간과 죄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죄의 접근은 마치 남자를 향한 여자의 애욕(愛慾)과도 같아서 결코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얼굴을 들고자’ 하면,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반드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담과 하바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죄는 그들의 후손 위에서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인간을 향한 죄의 접근과 유혹은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고 치밀합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될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의 접근과 유혹을 물리치고 흠 없이 사는 이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최초의 살인 <창세기 4:8-15>

카인과 헤벨은 그들 형제 사이의 무슨 일 때문에 상호 관계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과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과 하바가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로 인간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의 모든 행위와 언어와 심지어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 전반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결국 인간은 두 갈래의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카인과 헤벨, 이들 형제 각 사람과 그들의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그들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카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 헤벨을 증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이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 발생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불복(不服)과 동료 인간에 대한 미움이 살인을 초래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최초의 살인 사건에 관하여 “카인이 그의 아우 헤벨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헤벨을 덮쳐 그를 죽였다”(창세기 4:8)라고 아주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빠진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카인이 그의 아우 헤벨에게 말하였다”라는 문구로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카인이 헤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했을 법하지만,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해를 돕고자, 과거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내가 소개하려는 해석은 일명 ‘가짜 요나탄 타르쿰’이라고도 불리는 ‘예루살렘 타르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르쿰이란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과거 유대인들이 아람어라고 불리는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타르쿰에는 해석적인 요소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어서 때때로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타르쿰은 창세기 4: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카인이 자기 동생 헤벨에게 말하였다: “오라. 우리 함께 들로 나가자.” 그들 둘이 들로 나갔을 때에 카인이 대답하여 헤벨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은 자비로 창조되었는데, 선행의 열매로 다스려지지 않고, 심판함에 있어서 치우침이 있구나. 그래서 네 제물은 열납되고 내 제물은 열납되지 않았다.” 헤벨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세상은 자비로 창조되었고, 선행의 열매로 다스려진다. 그리고 심판함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다. 내 행실의 열매가 네 것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내 제물이 네 것을 제치고 열납된 것이다.” 카인이 대답하여 헤벨에게 말하였다: “심판도 심판자도 다른 세계도 없다. 의인에게 좋은 상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인에게 벌이 있는 것도 아니다.” 헤벨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심판도 심판자도 다른 세계도 있으며, 의인에게 좋은 상급이 있고, 악인에게 벌이 있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은 빈 들판에서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마침내 카인이 자기 동생 헤벨을 덮쳤다. 그는 들로 동생의 이마를 쳐서 그를 죽여버렸다.

여기 우리말로 번역하여 인용한 타르쿰 내용은 결코 창세기 4:8의 원문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아마도 과거 유대인 사이에 유행하였을 해석적 요소를 반영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해석을 통하여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카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공정치 못하다고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심판도 심판자도 사후 세계도 없다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통치 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자신의 비참한 삶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은 아예 자신의 눈을 가리고는 창조주 하나님도 그분의 심판도 심판 이후의 세계도 모두 잊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더욱 더 깊숙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카인은 헤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카인의 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헤벨을 죽인 카인을 추궁하는 어조로 “네 아우 헤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카인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라고 대꾸합니다. 이 얼마나 뻔뻔스런 대답입니까? 카인은 죄책감에 빠지기는커녕 도리어 죄를 은폐하고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깊고 은밀한 것까지라도 다 아십니다. 카인이 헤벨을 죽인 사실 역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카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카인이 거주하는 땅은 경작해도 효력이 없는 황무지로 변하였고, 카인은 땅에서 유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인하여 카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카인은 자기가 받는 벌이 너무 무겁다면 하나님께 선처를 호소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적어도 카인의 목숨만은 부지시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받을 형벌과 그가 누릴 수 있는 목숨은 전적으로 심판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상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주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카인의 후예 <창세기 4:16-24>

헤벨을 죽인 카인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편에 위치한, ‘노드’라고 불리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비록 범죄 하였을지라도 인류의 숫자상의 번식과 문물의 발달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카인과 그의 후손은 특별히 도시화, 산업화, 문명화에 힘썼습니다.

카인은 성을 쌓고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하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인류 최초의 도시가 건설된 것입니다. 카인으로부터 6대째에 이르러 태어난 레멕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둘씩이나 얻습니다. 아마 인류 최초의 일부다처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 두 아내의 이름과 그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 그 아들들의 직업을 일일이 소개한 것으로 보아, 레멕 집안은 옛날에 유명했던 집안으로 보입니다.

레멕의 아들들은 각기 자기들의 전문 직종에 있어서 원조(元祖)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야발이라고 하는 아들은 천막 생활을 하면서 목양업을 하는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각종 악기를 다루는 일에 능통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음악의 아버지가 된 셈입니다. 투발카인은 구리와 쇠를 이용하여 각종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카인의 후예들은 인류 문명과 예술의 발달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고 해서 인간의 도덕 수준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인의 후예들이 이룩한 도시화, 산업화, 예술의 발전에 따라 도덕적 수준이 개선되기는커녕, 도리어 점차로 하락하였던 것 같습니다. 레멕은 그의 조상 카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일로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의 살인 행위를 정당화시키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아담과 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인류, 특별히 카인의 후예는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을 행하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도리어 점차 악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인간이 악을 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악을 정당화하거나 미화시키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문명화된 세계는 ‘자유’, ‘예술’ 등의 미명 아래 온갖 죄악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당신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를 사모하는 이들이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 구원을 청하는 것입니다.

야웨의 이름을 부른다 <창세기 4:25-26>

헤벨이 죽은 후에 아담과 하바 사이에는 ‘세트’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바는 헤벨 대신 다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처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세트도 자라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에서 ‘에노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누구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에노쉬가 태어난 무렵 ‘사람들이 비로소 야웨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웨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 뜻을 쉽게 밝힐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야웨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거나, 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웨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스바냐 3:9에서는 “그 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케 하여 그들로 다 나 야웨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야웨’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구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야웨 하나님으로 소개하였습니다(출애굽기 3:13-14). 야웨는 신약 성경에서 단순히 ‘주(主)’라고 일컬어지면서, 예수님의 칭호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야웨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을 호칭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는 외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였습니다(마태복음 21:9).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시편 118:26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거기에는 “야웨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 곧 ‘야웨’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야웨는 간접적으로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한 바, ‘야웨’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때문에,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누구든지 야웨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요엘 2:32)라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문구로 인용하고 있습니다(사도행전 2:21; 로마서 10:13). 야웨의 이름을 부른다 함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파블로(바울)는 요엘 2:32를 인용하기에 앞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줍니다: “당신이 만일 당신 입으로 예수를 주(主)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당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로마서 10:9-10).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여야만 살 수 있는 특이한 생명체입니다. 야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그분을 주(主)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 아래 순종하며 사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창세기 5:1-32>

창세기 5장에는 세트를 통한 아담 자손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세트는 헤벨이 죽은 후 아담과 하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겠지요. 옛날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아마도 생존을 위한 지구 환경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일정한 수명 후에는 모두 죽었습니다. 죽음이 인간 위에 왕노릇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을 위하여 나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기 편하게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새로운 연대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담이 창조되던 해를 원년(0년)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연대를 가리켜 라틴어로 ‘아노 문디’(Anno Mundi: 약자로 AM이라고 표기)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세상의 해(연도)’라는 뜻이지만, 편의상 우리말로 ‘창조년’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 목록은 아담과 그의 자손들의 연대기를 창조년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열은 각 사람이 생존한 기간을, 괄호 속의 두 번째 열은 죽은 때의 나이를, 그리고 마지막 열은 족장 노릇을 한 기간을 보여줍니다.

아담	0-930	(930)	0-930
세트	130-1042	(912)	930-1042
에노쉬	235-1140	(905)	1042-1140
케난	325-1235	(910)	1140-1235

마할랄렐 395-1290 (895) 1235-1290
 예레드 460-1422 (962) 1290-1422
 하녹 622-987 (365)
 므투셀라 687-1656 (969) 1422-1656
 레멕 874-1651 (777)
 노아 1056-2006 (950) 1656-2006
 (홍수) **AM 1656년** (노아 600세)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여러 집안으로 퍼져 가는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가계(家系)만 추적해갑니다. 이런 사실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 나아간 경건한 집안을 중심으로 하여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세트보다 먼저 태어난 카인의 개략적인 족보는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5장의 족보에서는 세트를 통한 경건한 후손의 집안을 의인 노아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록을 통하여 나는 먼저 세트를 통한 아담 자손의 족장 개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족보들을 통하여 볼 때, 반드시 큰아들이 집안의 명목상의 대를 잇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에 나오는 이름들도 반드시 맏아들만 열거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아담 집안의 정통성을 잇는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위의 목록에서 우리는 당대에 가장 어른인 사람이 세트를 통한 아담 가문에서 우두머리, 곧 족장 노릇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세 번째 열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족장 노릇을 한 사람은 모두 여덟 사람에 이릅니다. 하녹과 레멕 두 사람은 족장 노릇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녹은 비교적 젊은 나이(365세)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으며, 레멕은 그의 부친의 긴 수명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당신은 왜 신약 성경의 베드로후서 2:5에서 노아를 ‘여덟 번째 의(義)의 전파자’라고 불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족장 노릇을 하지 못한 두 사람에 관하여 얘기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하녹은 남들처럼 이 땅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녹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녹이 이 땅에서 365년의 생애를 채우던 해에 그를 아예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하녹만이 “죽었다”는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아우 헤벨을 죽인 카인에게도 하녹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카인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하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창세기 4:17). 아마도 카인과 하녹 부자는 이 세상에서 성을 쌓고 영원히 살 생각을 하였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세트의 6대손 하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하녹은 6대조 할아버지인 세트가 죽기(AM 1042년) 55년 전인 AM 987년에 이미 지상을 뜬으로써, 사람이 죽음에 종노릇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하녹 말고 족장 노릇을 하지 못한 사람은 세트의 8대손 레멕입니다. 레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노아란 ‘쉬, 안식’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 인간은 수고하며 일하여야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창세기 3:17). 그 이후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15(“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다. 그는 네 머리를 다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다치게 할 것이다.”)에서 약속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이 장차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게 있었습니다. 레멕은 혹시 자기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고 수고하는 인생을 위로할 자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카인 자손 중에도 레멕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카인의 6대손 레멕이 두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들은 각기 자기들의 전문 직종에 있어서 원조(元祖)격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카인의 후손인 이들 레멕의 아들들은 인류 문명과 예술의 발달에 기여를 한 것입니다. 한편 카인의 6대손인 레멕 자신은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의 살인 행위를 정당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창세기 4:19-24).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트의 8대손 레멕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에 관심을 가졌고, 그가 비록 이 땅 위에서 족장 노릇도 해보지 못하고 부친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 노아는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지어 자기 가족과 각종 동물들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홍수가 일어난 해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AM 1656년입니다(창세기 7:6). 위의 목록을 통해볼 때, 노아의 조상들은 홍수 나던 해 이전에 이미 다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던 해인 AM 1656년에 죽은 것으로 기록된 므투셀라는 아마도 홍수 직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노아의 조상들이 홍수 심판에 의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남으로써 홍수 심판을 면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반역 <창세기 6:1-4>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었습니다(창세기 1:28). 그러나 사람의 번성과 더불어 땅 위에 죄악이 퍼지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창조 이후 맨 처음의 죄악이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통하여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창세기 3장), 땅 위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저질러진 최초의 대대적인 죄악 역시 하늘과 땅의 연합,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과 땅 위의 인간 사이의 결합을 통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까지 성경학자들간에 일치점을 찾지 못한 구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시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혹시 훗날 이 설명 과정에서 나의 실수가 밝혀지더라도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창세기 6:1-4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본문을 여기에 제시하는 것이 좋겠지요. 아래의 우리말 본문은 나 자신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불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도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고른 모든 이들 중에서 아내를 삼았다. 야웨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육체가기 때문에 나의 영(靈)이 사람 안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 무렵 땅에는 거인(巨人)들이 있었다. 또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와서 자식들이 태어날 때에는 그러하였다. 그들은 고대에 용사요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창세기 6:1-4).

이 본문에서 ‘사람의 딸들’이란 인간 사회에서 태어나는 ‘딸들’, 곧 여자 인간을 가리킴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들 ‘사람의 딸들’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은 여기 말고 욥기에 또 다시 등장합니다(욥기 1:6; 2:1; 38:7). 욥기에서 우리는 문맥을 통하여 이 표현이 뜻하는 바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아닌 ‘하늘의 영적인 존재’, 소위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서 ‘신(神)들의 아들’(다니엘 3:25)과 ‘신(神)들의 아들들’(시편 29:1; 89:6)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들 역시 영적인 존재, 곧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누구든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만일 인간 사회 안에서 늘 있는 선남선녀의 혼인에 관한 언급이라면, 이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언가 언짢은 반응을 보이시고, 또 이러한 혼인 관계로 유별난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6:1-4의 본문에서 이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 세상의 남자를 가리키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자연히 누군가 ‘인간 사회’ 밖의 존재이어야만 하겠고, 아울러 욥기와 기타 유사 문구의 도움을 얻어 얼마든지 ‘천사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영적 존재인 천사가 여자 인간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두 천사를 ‘겉탈하려고’ 했다는 기록을 통하여(창세기 19:5; 베드로후서 2:6-8) 이런 가능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 따름입니다.

천사와 인간의 성적(性的) 결합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로 간주되어,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4에 의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후다서 6절에도 기록하기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6:1-4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다름 아닌 바로 이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사와 인간의 성적인 결합이라는 이무서운 죄악은 비록 악한 천사들로부터 시작되긴 하였으나, 인간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 죄의 결과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인간 역시 그 죄값을 모면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딸들이 악한 천사들의 무질서한 행위에 이용된 데 대하여 분노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제동을 거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靈)은 육체인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生氣)’(창세기 2:7 참조)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낳은 자식들은 평범한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요, 용사요, 옛날에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결합이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 하는 물음에 답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지만, 아마도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6:1-4에 기록된 사건과 홍수 심판의 연관성입니다. 창세기 6:5(“야웨께서 땅에 사람의 죄악이 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홍수 심판이 있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서 언급되었습니다. 창세기 6:1-4에 나오는 바, 타락한 천사의 행위에 대한 기록은 그 위치로 보아, 역시 홍수 심판의 원인 중 하나로서 묘사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은 베드로후서 2:4-5; 베드로전서 3:19-20과 같은 신약 성경 구절들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땅 위의 죄악과 의인 노아 <창세기 6:5-7:5>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지구! 그러나 이제 그 땅 위에 사는 인간 가운데 죄악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는 생각조차도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하여 결국 인간을 포함하여 땅 위의 모든 존재를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 딱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노아는 세트의 8대손 레벡에게 태어난 아들로써, 레벡은 혹시 자기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고 수고하는 인생을 위로할 자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는 당대(當代)에 의로운 사람ियो 흠이 없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창세기 6:9)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혼하여 셈, 함, 예벤이라는 세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는데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시 죄악과 온갖 더러운 일로 가득한 땅 위에서 유일하게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인간을 포함하여 땅 위의 모든 존재를 멸하기로 작정하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노아더러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커다란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잠시 성경에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부르는 직책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우리 피조계에 대하여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 또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시간(=역사) 안에서 현실화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아모스 3:7). 이처럼 하나님의 뜻 또는 비밀을 듣고 대변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요, 이런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이라는 비밀을 들었으며,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경고하여야 했습니다(베드로후서 2:5).

장차 임할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노아가 준비하여야 할 것은 길이가 300 큐빗, 폭이 50 큐빗, 높이가 30 큐빗이나 되는 커다란 방주였습니다. ‘큐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보통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가리키므로, 1 큐빗을 대략 50cm로 계산하면 됩니다. 방주의 내부는 3층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각기 필요한 수만명의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끌어들여 홍수 심판 후에도 이 세상에 사람과 동물의 씨를 남기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의인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온갖 고충에 대하여 불평 한 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불신과 조소와 박해를 견디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하였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믿음과 순종은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고 미친 짓으로 보일 정도로 순수하고도 무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세상의 조류를 따라 죄악과 죽음의 대행진 속에 파묻히겠습니까? 아니면 의인 노아처럼 비록 외롭긴 하지만 이 세상을 거슬러 가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의인 노아의 길을 택할 때에 당신은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땅 위의 물, 물위의 사람 <창세기 7:6-8:22>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앞서 설명한 ‘창조년’(AM)이란 개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겠지요. 홍수가 나던 해는 바로 AM 1656년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방주를 완성한 노아는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이 날은 홍수가 나기 7일 전, 곧 AM 1656년 제2월 10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정확하게 계산되었고, 하나님은 치밀하게 땅에 대한 심판과 노아 가족에 대한 구원의 과정을 진행시키십니다. 마침내 AM 1656년 제2월 17일에 이르러 하나님은 땅에 큰비를 쏟아 붓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자그마치 40일 동안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땅 위에 비를 퍼부어 댔습니다. 땅 위에 물이 불어나자 노아의 방주는 땅에서 떨어져 물위에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물은 점점 불어서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들을 덮고도 그 높이가 15 큐빗이나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땅 위의 사람을 비롯하여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육지 동물들은 완전히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뿐이었습니다.

물은 땅 위에서 150일 동안이나 기승을 부렸습니다. 땅 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150일이 지난 제7월

17일에야 비로소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나마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물이 좀 줄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10월 1일에 이르러는 여기저기서 산봉우리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평지가 마른 여부를 알고자 하여,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이 까마귀는 노아에게 소식을 전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땅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노아는 또 비둘기를 밖으로 내놓습니다. 이 비둘기는 땅 위에 아직 물이 차 있어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는 다시 방주의 노아에게로 돌아옵니다. 노아는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놓습니다. 이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부리에는 새로 난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 잎이 돋았으니, 땅 위에 물이 어느 정도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노아는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 밖으로 내놓습니다. 세 번째로 방주 밖으로 나간 이 비둘기는 다시는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비둘기는 평지에도 물이 말랐다는 사실을 노아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준 셈입니다.

마침내 노아는 방주 안에서 601세가 되는 새 해를 맞이했습니다. AM 1657년 제1월 1일,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지면을 관찰하였습니다. 땅 위에는 이미 물이 걷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AM 1657년 제2월 27일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방주를 나와 땅 위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햇수로 2년(AM 1656-1657년)에 걸친 홍수 대심판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질서와 조화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지구가 추하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시고는 물을 통하여 대대적인 청소 작업을 벌이셨습니다. 물은 땅 위를 덮었고, 그 결과 땅 위의 모든 존재는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물위에 유유히 떠다니던 노아의 방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 땅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방주를 제공해주시킵니다. 나는 당신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크리스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크리스트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이때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보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뜻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결의하시기를, “비록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하긴 하지만,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앞으로 지구가 존속하는 한, 씨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에는 노아 홍수 때 있었던 대대적인 환경 변화나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다시는 없겠고, 창조 때 세운 지구 환경의 질서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정해진 때까지 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물이 아닌 불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베드로후서 3:6-13).

우주 질서의 재정립 <창세기 9:1-7>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지구는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동안 생육하고 번성했던 인류와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의 세계는 완전히 멸절되었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동물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그 첫 주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는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계 위에 인간을 으뜸으로 세우심으로서, 인간의 지위를 다시금 확고히 해주십니다.

홍수 후에 인간의 양식에 있어서 변화가 생깁니다. 창조 때 인간에게 땅 위의 씨 맺는 채소와 과실들을 양식으로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홍수 후에 육식까지도 허용하십니다. 혹시 홍수 이후 지구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 때문에 채식만으로는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여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보지만, 정확한 이유를 규명하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육식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할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고기를 먹되 그 동물의 목숨과 동일시되는 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무고히 흘리지 말라는 명령을 매우 엄중하게 내리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고히 인간의 피를 흘리는 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피 흘린 자에게서 피 흘린 죄를 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 인간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중합니다. 당신은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철저히 인정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 존엄성을 파괴하는 자는 그 누구든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현대는 진화론과 유물론의 영향으로 인간의 가치가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목숨이

하루살이처럼 비참하게 끊겨지는 것을 우리는 마스크를 통하여 무수히 듣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료 인간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결국 자기의 목숨도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날이 올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대중 속에 파묻힌 이름 없고 특징 없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허탈감에 빠지곤 합니다. 인간 존엄성을 상실한 인류는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 질서를 인정하고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조화를 좋아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인류의 거주 환경을 텅 빈 부조화 속에 내버려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기 전에 첫째 날 빛을 지으셨고, 다섯째 날 각종 물고기와 각종 새들을 지으시기 전에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바다와 물을 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피조물인 인간을 위한 거주지를 지으시고 그 주거 환경을 질서 있게 정리하시는 바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 기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웅변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비록 창조 이후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아무리 추악한 인간이라도 그는 여전히 어느 동식물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겠습니까. ‘개만도 못한 인간’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타락하여 추악하게 된 인간의 모습을 멸시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반드시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비록 그가 타락하였을지라도,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 가능성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그 고귀한 가능성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되어야만 하고 사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료 인간을 무시하지 맙시다. 아무리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는 이 위대한 가능성을 생각하여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무리 흉악하고 추한 죄인이라도 그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기에 한 그루의 나무나 한 마리의 충성스런 개보다는 훨씬 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무지개 언약 <창세기 9:8-17>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구의 청지기로 삼으신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에게 즐겨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들은 순전히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의 상대역이 되는 인간은 대개는 단순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그 약속에 따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마치고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비롯하여 이들 살아남은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 및 모든 동물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시는 땅과 땅위의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거로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고 세상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이런 일을 요구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은 순전히 하나님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한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도 요한은 한 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요한일서 4:8).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랑이라는 동기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수많은 약속을 내시고 그것들을 실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겨 읽으십니까? 산에서 금맥을 찾아 금을 캐내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당신을 위한 당신을 향한 창조주의 무수한 약속들이 널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약속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허한 약속들을 남발한다거나 또는 그것들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선거철마다 많은 정치인들의 공약 남발 때문에 식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당장 뽑히고 보자는 마음에서 이 세상의 많은 정치인들은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 나의 창조주’에게서 결코 이런 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자, 거짓과 무능력으로 인한 약속 불이행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약속의 하나님’을 섬김이 어떠할까요. 물로부터의 심판을 면하게 하겠다는 ‘무지개 언약’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 후손의 엇갈리는 운명 <창세기 9:18-29>

홍수 심판 이후에도 죄는 인간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공격으로서, 성경은 노아의 작은 실수를 통하여 노아 집안에 스며든 죄와 그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위로부터 예펠, 함, 셈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태어났습니다(창세기 5:32). 노아의 아들들과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들을 면밀히 고찰한 후 가장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예펠은 노아 500세 되던 해에, 함은 노아 502세 되던 해에, 그리고 셈은 노아 504세 되던 해에 태어났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창세기 10:21; 11:10 참조). 그러므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노아의 아들들의 나이는 대략 100세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9:20-27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천막 안에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그 아들이 취한 행동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 중 둘째인 함이 아버지의 아랫도리를 보고는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셈과 예펠은 둘이서 함께 자기들 어깨에 옷을 걸쳐 메고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천막으로 들어가서는 가지고 온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후에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자기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는 다음과 같이 저주와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형제들에게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다. 셈의 하나님 야웨여 찬양받으소서! 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펠을 크게 일으키시기를! 그는 셈의 천막에 거하고, 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우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일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홍수 후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포도 제품중의 하나인 포도주는 그들이 수고한 대가로 늘 식탁이나 잔치상에 올려 사용하는 음료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정신 없이 벌거벗고 누울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은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실수가 계기가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이 죄값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은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록 중에서 분명치 아니한 점은 도대체 함의 아들 케나안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많은 독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저주를 받은 것은 함이 아니요 그의 아들인 케나안입니다. 케나안에 대한 저주는 훗날 예호수아(여호수아)의 케나안 정복으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창세기 15:16, 19-21 등 참조). 이 저주를 향간에 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혹은 전체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본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케나안도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본문에 함의 아들 케나안이 몇 차례 부각되는 점으로 미루어, 이 불행한 사건은 홍수가 끝나고 여러 해가 지난 후 발생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노아는 홍수 이후 350년을 더 살았으니,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은 있었을 것입니다.

의인 노아의 집안에 일어난 이 불행한 사건을 살펴보면, 나는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멀리하라”(데살로니가전서 5:22)는 사도 파블로(바울)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시오”(마태복음 6:13)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가운데 활동하도록 기회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죄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삶 안에 감히 틈타지 못합니다.

민족들의 유래와 제국주의의 시작 <창세기 10:1-32>

노아 시대의 홍수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멈추는 듯하였으며, 인류는 그 존재 자체를 상실할 뻔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갈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은 노아 부부와 이들의 세 아들 부부였습니다. 홍수 때에 이들 세 아들은 모두 100세 가량의 성숙한 나이였지만, 하나님은 대심판을 고려하여 홍수가 지나가기까지 이들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인 예펠과 함과 셈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각기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비롯된 당시 세계 여러 민족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름들은 오늘날의 명칭과 비교하여 확인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이런 정보에 대한 갈증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나는 당시 민족들의 이름을 확인하는 작업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다만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상의 온 인류 모든 족속이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예펠에게서 유래한 민족들은 비교적 짧게 서술되어 있습니다(10:2-5). 이유인즉, 훗날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인류 역사(이를 ‘구속사[救贖史]’라고 함)에 있어서 주축을 이루는 셈의 후예와의 관계에 있어서 함의 후예보다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펠은 이미 아버지 노아로부터 “하나님이 예펠을 크게 일으키시기를! 그는 셈의 천막에 거하고”(9:27)라고 축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펠의 후손들이 거주한 지역은 ‘바닷가 나라들’이라고 하였는데(10:5),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지중해 건너 편 소아시아에서 스페인에 이르기까지의 섬들과 해변땅, 곧 오늘의 유럽 대륙을 가리킵니다.

함의 후예(창 10:6-20)는 후에 선택받게 될 민족(셈의 후예)과 깊숙히 연관될 것입니다. 앗시리아, 이집트, 폴리슈팀, 케나안 등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과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함의 후예 중 특별히 쿠쉬의 아들 니므롯에 대한 소개가 돋보입니다(10:8-12). 니므롯은 앗시리아와 바벨 제국과 같은 제국주의의 창설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비교적 간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창세기 10장에서 많은 사람이 이름으로만 언급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니므롯은 상당한 비중으로 설명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므롯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영웅’이었습니다. 당신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성적(性的)인 결합을 하여 ‘옛날에 유명한 용사들’이 태어났던 일을 기억할 겁니다(6:1-4). 니므롯은 그들 못지 않은 용사였고 고대에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속담에도 오르내릴 정도로 짐승뿐 아니라 사람을 휘어잡는 일에도 뛰어난 사냥꾼이었는데, 불행한 사실은 그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니므롯은 그 이름부터도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였고, 본인 또한 그런 이름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일을 즐기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니므롯은 시날 땅과 앗시리아 지역에 커다란 도시들을 건설하였고 그 도시들을 묶어서 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그가 건설한 도시들 중 니느베나 바벨은 당신에게도 낯익은 이름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라고도 불리는 바벨은 친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거스르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소개할 바벨탑 사건(11:1-9)도 틀림없이 니므롯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지상에는 대제국을 건설하여 온 천하를 통치하려는 제국주의적 망상에 빠진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반 백성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웅의 통치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바랍니까? 인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이상적인 통치는 없습니다.

성경 기자는 함의 자손중 케나안 족속에 대하여도 적지 않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10:15-20). 케나안은 함의 아들들 중 하나로서 할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 있었을 때의 일을 계기로 저주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케나안에게서 여러 족속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그들을 모두 통틀어 ‘케나안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 케나안 족속이 살았던 땅을 가리켜 ‘케나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에 케나안 족속은 노아의 예언대로 대부분이 멸절되는 운명을 맞게 되며 그 살던 땅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케나안뿐만 아니라 지상 모든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셈에게도 역시 여러 민족이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셈의 증손자 되는 에벨은 중요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앞으로 성경에 자주 언급될 ‘히브리인’(יִשְׂרָאֵל)이라는 명칭은 사실상 ‘에벨’(עֵבֶל)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성경은 에벨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의 아들이 출생할 무렵에 세상이 나뉘었다는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10:25). 에벨은 이때 태어난 아들들 ‘나눔’이라는 뜻의 ‘펠렉’이라고 부릅니다.

에벨은 앞서 언급한 니므롯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세기 11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은 바벨탑 건설의 주역으로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사람과 조직의 힘을 의지하는 단체, 곧 제국을 형성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에벨은 바로 그 무렵 아들을 낳고 바벨탑 건설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비참한 결과에 따라 아들의 이름을 부른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니므롯의 바벨탑 건설에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벨의 자손, 곧 히브리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그 집안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에벨의 집안은 결코 하나님을 거스르는 땅위의 나라들과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과 분리됨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 나라에서 구별됩니다. 에벨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세상이 나뉠 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펠렉이라고 부른 것은 한편으로는 당시 세상의 죄악에 대한 증거요, 다른 한편으로는 죄악 세상에서 스스로 구별되어 살려는 일종의 신앙고백적 이름짓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창세기 10장의 명단에 70 또는 72 민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이 숫자에 무슨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당시 땅위의 모든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장차 하나님이 택하실 한 가계(家系)를 통하여 땅위 모든 족속에게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부모(노아 부부)에게서 출생한 에펠, 함, 셈 삼형제의 후손은 족속과 사용하는 언어와 사는 지역과 인위적으로 조직한 나라를 따라 땅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10:5,20,30). 하나님은 본래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이 지으신 지구를 구석구석까지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마음껏 누리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홍수 심판 이후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홍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급적 하나의 제국을 이루어 함께 모여 살고자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간은 종족과 언어와 나라를 따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제목을 가지고 고대 인류가 이처럼 흩어지게 된 가장 직접적인 경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언어의 혼동과 인류의 분산 <창세기 11:1-9>

창세기 10장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난 결과를 기술한 것입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창세기 11장에서는 먼저 고대 인류의 인본주의적 반역과 그 결과를 집중적으로 기록한 후(11:1-9), 노아의 세 아들중 셈의 집안만을 다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11:10-32). 다시 말해서 창세기 11장은 시간적으로는 10장과 겹치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내용만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1:1-9에 기록된 내용은 창세기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민족의 분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중의 하나로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 집단이 오래도록 동일한 지역에 살면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언어는 자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는 우리 한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습니다만, 한반도에서 사용되어온 우리말은 계속 변화과정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천여년전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과 대화할 때 서로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고대 한국어를 전공한 학자들의 도움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 전문가들조차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자연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언어의 변화와 관련하여 고대에 있었던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고대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데서 출발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대 인류는 모두 한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음성학적으로 보나 어휘로 보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공통된 언어였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서서히 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널따란 시날 평지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무서운 기억을 지워버릴 수 없었던 그들은 시날 평야에 커다란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하늘을 찌를 듯한 높다란 탑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세상에 자기들 이름도 내고 아울러 온 천하에 흩어지는 것도 피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들 고대 인류는 하나의 결집된 조직체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들의 의도와 노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계획과 사업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 다시 말해서 인간 조직체의 힘을 이용하여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유명해지는 지상왕국을 원하였습니다. 그들의 연합은 이전에 홍수를 통하여 죄악 세상을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인간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요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인류의 이러한 반역적 도모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인데다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어 뭉쳐 있으니, 앞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막기가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도모를 저지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 연합 운동에 참가하였던 고대 인류 중 많은 이들이 언어의 불통 때문에 각기 동일한 언어 집단을 찾아서 흩어졌고, 그들은 성 쌓는 일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이 성의 이름은 ‘혼동’이라는 뜻과 관련된 ‘바벨’이라고 불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들 고대 인류가 도모한 사건이 앞서 창세기 10장에서 언급한 니므롯의 제국주의적 발상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니므롯의 제국은 시날 땅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시날 땅에 건설한 도시 중 하나가 바로 ‘바벨’입니다(10:10).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사람을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은 제국주의적 망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날 땅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땅까지 나아가서 또 다른 도시들을 건설한 것은(10:11-12) 우리의 이러한 판단이 옳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바벨탑 건설로 인하여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류가 언어 집단에 따라 나뉜 것은 셈의 후예요 히브리인의 조상인 에벵에게서 펠렉이 태어날 무렵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펠렉이 태어나던 해는 아담이 창조된 해를 원년(0년)으로 하여 바로 AM(창조년) 제 1759년이었습니다. 이 해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 역법으로 환산하면 BC(주전) 2242년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4200여년 전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인류 최초의 제국주의적 망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인류의 모든 연합운동은 결국 과거의 바벨탑 사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조직이나 힘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은 헛된 일이요 거짓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용서와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하나됨 만이 유일하게 진실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적 사상은 아무리 정의, 평화, 자유를 외친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고대 인류가 시날 평지의 ‘바벨’ 건설에서 보여준 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본주의적 사상과 조직적 교만은 결국 언어의 분산이라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창조 이후로 모든 사람이 사용하여 온 인류 최초의 언어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전 637년경 예후다 나라에서 예언활동을 한 쓰판야(스바냐)는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방의 입술을 깨끗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 야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할 것’(3:9)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주후 30년 예수께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였고, 무언가 불꽃과 같은 것이 갈라져서 모인 사람 하나 하나 위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모두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삼대 명절중 하나인 오순절인지라 온 천하에서 모여온 유대인들도 거기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언어로 듣고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사도행전 2:1-11).

대략 120명이나 되는(사도행전 1:15) 이들 제자들의 모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하였으며(사도행전 1:4,14), 하나님을 높였습니다(사도행전 2:11). 이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연합이야말로 하나님이 의도한 진정한 연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민족과 언어와 문화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는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에서 나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것입니다: “당신은 책을 받아 그 인들을 여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죽임 당하시어 당신의 피로써 하나님께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중에서 사오셨기 때문입니다”(계시록 5:9).

셈의 후손과 인간의 수명 <창세기 11:10-32>

우리는 앞에서 이미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연대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좀 귀찮게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하여 연대기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다 주의 깊게 연구하여 보면 많은 정보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족보 역시 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 중 특별히 셈의 가계(家系)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10장에서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가지고 셈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아브람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이 사망하던 해까지의 연대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아담이 창조된 해를 원년으로 하여 계산하는 ‘아노 문디’(Anno Mundi), 즉 ‘창조년’을 사용할 것입니다. ‘홍수 후 2년, 곧 셈이 100세가 되어 아르팍삿을 낳던 해’(창 11:10)는 AM 1660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셈이 태어난 해는 AM 1560년이 됩니다. 이제 셈이 태어나던 1560년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까지의 연대표를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은 각 사람이 생존한 연대를, 괄호 속의 두 번째 열은 죽은 때의 나이를, 그리고 마지막 열은 나이로 볼 때 같은 집안 가운데 족장 노릇을 하였을 법한 기간을 보여 줍니다. 이론적으로 보아 셈은 아버지 노아가 죽은 해인 AM 2006년부터 족장 노릇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셈 AM 1560-2160 (600세) 2006-2160

아르팍삿 1660-2098 (438)

셀라 1695-2128 (433)

에벨 1725-2189 (464) 2160-2189

펠렉 1759-1998 (239)

르우 1789-2028 (239)

스룩 1821-2051 (230)

나홀 1851-1999 (148)

테라 1880-2085 (205)

아브라함 1950-2125 (175)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아브람)의 조상들 중 셈, 셀라, 에벨 세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각기 35년, 3년, 64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셈 이후 나머지 조상들도 적어도 48년 이상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다가 죽습니다. 에벨 다음부터 그 자손들의 수명은 급작스럽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로 에벨은 자기의 후손들과 더불어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에벨이 자기 후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수하였기 때문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창 10:21)라고 특별히 에벨을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것처럼 히브리인(יִבְרִי)이라는 명칭 역시 에벨(עֶבֶל)에서 온 것입니다.

셈과 에벨의 후손 중에서도 다시 주목을 받는 집안은 칼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았던 테라의

집안이었습니다. 창 11:26에 의하면 테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이 구절은 테라가 70세가 되기까지는 이미 이들 세 아들이 모두 태어났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테라가 70세 되던 해에 세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거나, 또는 서로 다른 세 명의 부인을 통하여 세 아들을 거의 동시에 얻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일단 이러한 가능성들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나홀이 하란의 딸인 밀카를 아내로 취한 점을 보아(11:29) 하란이 나홀보다 먼저 태어났음이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의 장유 관계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전 이미 장성한 조카 롯(하란의 아들)과 더불어 케나안 땅으로 떠난 점을 통해 볼 때 아브라함 역시 하란의 동생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결국은 하란이 셋 중에 맏아들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하란은 부친 테라보다 먼저 본토 칼대아 우르 땅에서 죽습니다(11:28).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염두에 둘 때, 11:26을 통하여 테라가 70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결론일 것입니다.

테라는 아브라함 내외와 손자 롯을 데리고 칼대아 우르에서 떠나 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11:31). 그리하여 도착한 곳이 바로 케나안 땅의 북쪽 경계에 위치한 하란 땅이었습니다. 테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일흔 다섯의 나이에 하란 땅을 떠나 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12:4). 그러면 적어도 그의 부친 테라가 145세 되던 해에 하란 땅을 떠난 것이 됩니다. 테라는 205세에 하란 땅에서 죽었으므로(11:32), 그는 아브라함이 케나안 땅으로 떠난 후 대략 60년 동안 하란 땅에 남아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기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성경의 기자들은 부친 테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같이 테라가 죽은 일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야 아브라함의 케나안 입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11:32-12:4; 사도행전 7:1-4).

약속의 땅을 향하여 <창세기 12:1-9>

“너는 네 고향 땅,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고, 너를 축복하여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사천년전 야웨 하나님은 썸의 집안 가운데서도 테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불러 위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달콤하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 뿌리를 끊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르심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요,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바로 사람 자신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와 쿠웨이트 국경 부근에 위치했던 칼대아 땅 우르라는 커다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천년이라는 시간적 격차가 있긴 하지만 우르는, 고대 수메르 문명의 한 중심지로서, 오늘날의 도시 못지 않게 크게 번영하였습니다. 각종 상업 활동도 빈번하였거니와 문화 정치 활동도 활발하였습니다. 또 도시마다 따르는 도덕적 부패 문제도 심각하였습니다. 이 도시에 가득하였던 각종 우상 신은 시민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주기엔커녕 오히려 죄악의 심층화를 부채질해 줄뿐이었습니다.

청년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야웨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어떤 동기로 야웨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와(예호슈아 24:2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테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부친 테라는 노년에 결국 아들의 입장을 따라 야웨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테라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난 사실이(11:31) 이것을 입증해 주지 않을까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테라는 케나안 땅에는 발을 들여 넣지 못하고 결국 중도에 하란에서 그의 일생을 마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을 떠나 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무런 불평 없이 길을 떠납니다. 당시 그의 여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도 자동차도 없는 시대, 걷는 것이 아니면 겨우 낙타, 당나귀, 말 따위의 탈 짐승에 의존해야 했던 장거리 여행, 게다가 모든 소유물을 끌고 다녀야 하는 그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기나긴 여정이 도시인으로서의 생활 양식을 버리고 보다 원시적인 유목민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었을지라도 그는 한 마디 불만의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야웨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가라고 한 땅은 케나안 땅이었습니다. 당시 케나안 땅에는 비록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와 같은 큰 도시는 없었으나, 그런 대로 큼직한 성읍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생업은 농업을 주로 하되, 목축업과 약간의 상업 활동이 가미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는 우르 땅이나 케나안 땅이나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더러 칼대아 우르 땅을 떠나 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을까요? 결코 답하기 쉬운 물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발적으로 그와 맺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케나안 땅을 이상향으로 생각해본 일도 없거니와, 이유를 막론하고 그곳으로 이주해 올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케나안 땅은 칼대아 우르의 청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셨습니다. 그가 앞으로 전개하실 중대한 역사의 중심지로 케나안 땅을 내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사천년에 걸쳐 이 땅에서 또는 이 땅을 중심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브라함이 상상이라도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히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야고보서 2:23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역대하 20:7; 이사야 41:8),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창세기 20: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이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라는 칭호로 불리기에 적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의 지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가 수 만리 이상이나 떨어진 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떠나면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하기에 충분하였다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토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케나안 땅은 지형학적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고, 동시에 과거 근동 역사에 있어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와 남쪽의 이집트 양대 강대국이 늘 충돌하던 지점이기도 하였습니다. 기후 및 지형적인 면에서 볼 때, 인위적인 노력으로 나일강 물을 관개하여 농사짓던 평지의 이집트와는 달리 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의 복합체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역입니다. 좀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 목줄을 쥐고 있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고자 일부러 이런 장소를 택하였을 법하지요.

사천년 전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다시 그의 후손을 이곳으로 이끌어 들이고 계십니다. 유대인, 곧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듣지 못하였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친히 이 대이동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한 것이라면, 크리스토포인으로서 한번쯤 유대인의 귀환을 주시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 일이 우리 인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사천년이 지난 오늘날 그의 후손들이 옛적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주무대입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이 땅에 불러들여 인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장을 전개하셨던 동일하신 연출자 하나님께서는, 사천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그의 후손을 이 땅으로 불러들여 구속사의 새로운 장을 펼치고자 하십니다. 지난 2000년간 구속사의 무대는 여러 번 자리를 달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약속의 땅은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엽 이후로 중동은 세계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풍부한 석유 자원, 기독교화된 서구에 대한 체면을 유지하기에 안간힘을 쓰는 이슬람의 아랍권, 그리고 그 안에 눈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등이 중동의 긴장을 높고조시켜 온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물어야 할 일이 있다면, 온 세상의 관심이 집중된 이 지역에서 장차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위기 <창세기 12:10-20>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케나안 땅의 이곳 저곳을 다니며 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외로운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나마 하란 땅에서 얼마동안 머무는 동안 남녀 종들을 비롯하여 재산을 불리긴 하였지만 아직은 조그만 부족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작은 무리는 이방 가운데서 온갖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나안 땅까지 함께 따라온 조카 롯의 일행을 합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조그만 도시국가조차 이룰 수 없는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외롭고 가련한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자기 가족이나 종들은 그만 두고라도 제 목숨 하나 제대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빠질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케나안 땅에 있었던 기근은 아브라함을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 사활을 가르는 위기로까지 내몰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잠시나마 약속의 땅을 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일강으로 인하여 축복 받은 땅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당한 위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이미 커다란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이끄는 무리와 같은 소부족은 얼마든지 쉽게 약탈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또 한가지 걱정되는 일은 그의 아내 사래의 미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빼어난 미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자신들 사이를 오누이 관계로 애기하자고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와 더불어 입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 일행이 이집트에 이르러 머무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신하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는, 파라오 앞에 그녀에 대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못할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더욱이 이리저리 떠도는 한 유목민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야 아주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파라오의 지시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이집트 궁정으로 인도되어 들어왔고, 그 덕택으로 아브라함은 온갖 재물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 사래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파라오로부터 일종의 지참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만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영원히 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사래의 일로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이로써 파라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급기야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정직하지 못함을 꾸짖는 동시에 사래를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하나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사내였습니다. 아무리 당시의 상황이 불가항력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소위 말하는 ‘기사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유약한 사람과 그의 가정을 누가 지켜줬습니까? 바로 그가 굳게 믿고 순종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는 아브라함보다 월등하게 강한 힘을 소유한 권력자였지만, 절대자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연약한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훗날 다비드는(역대상 16:7) 조상 아브라함의 이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시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숫자가 적어 작은 무리로서 그 땅에 나그네로 거할 때에, 이 족속 저 족속, 이 나라 저 민족 가운데로 떠돌아 다녔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을 해치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왕들을 꾸짖기를, ‘나의 메시아(=기름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고 나의 예언자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시편 105:12-15 = 역대상 16:19-22).

나는 당신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무수한 ‘작은 영웅들’은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당신 자신의 지혜나 재물이나 힘도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의 보호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 <창세기 13:1-18>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이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집트를 떠날 때에는 이미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케나안 땅의 남단에 위치한 네겟 지방을 거쳐서 계속 북상하여 전에 천막을 쳤던 베트엘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시 야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예배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기회가 닿는 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성경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케나안 땅에서만 예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슈켄(12:6-7), 베트엘과 아이 사이(12:8; 13:3-4), 헤브론(13:18), 브엘세바(21:33)는 모두 케나안 땅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즈학(브엘세바/26:23-25)과 손자 야아콥(베트엘/28:17-19; 35:1-7, 슈켄/33:18-20, 브엘세바/46:1)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정하신 자리에서 무슨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까? 그 자리는 당신의 가정일 수도 있고 당신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 자리를 제대로 지킬 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더 좋다고 생각되는 자리로 옮겨가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자리를 고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정해주시는 자리보다는 자신의 뜻과 판단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리잡기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이집트에서 돌아온 롯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 소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은 한 곳에 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물도 풀도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가축을 맡은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야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친척간의 다툼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롯과 떨어져 살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얼마든지 어른 된 권위를 가지고 자의적인 결정을 강요할 수도 있었겠지만, 도리어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이었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롯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그는 동쪽으로 비옥한 야르덴 골짜기를 내려다보면서 그곳서 누릴 수 있는

보다 풍요로운 삶을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양보의 미덕이란 찾아볼 수도 없이 롯은 아르덴 골짜기를 선택하고, 더 이상 지체할 것도 없이 바로 동쪽을 향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르덴 골짜기의 평지 성읍들 안에서 머무르던 롯은 마침내 도시 생활에 매력을 느끼고 소돔 성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야웨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롯은 그들의 신앙과 도덕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만 경제적 여건과 문화, 예술, 오락 등과 같은 외양적인 조건들만 보고 소돔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 봅니다만 그 정확한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재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재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재물이 늘어날 때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이웃과의 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규에서 이웃과의 평화로운 공존과 그를 통한 자유로운 하나님 예배를 원하였고, 롯은 경제적 실리(實利)를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마음에 보답하셨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케나안 땅의 산지에 남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그 곳으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네 후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겠다. 만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길이와 너비로 다녀보아라. 네게 그것을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케나안 땅과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 일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마태복음 5:5)을 확인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에 말려든 아브라함 <창세기 14:1-16>

종교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드립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담은 기도도 있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히 살기를 원하는 동기에서 드리는 기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기도의 강도는 더 높아집니다. 아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라면 이 세상에는 전쟁도 질병도 고통도 굶주림도 슬픔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들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민족과 나라들 사이에서 마치 살얼음 위를 걷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져 케나안 땅의 산지에 정착하여 평화롭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풍요와 환락의 도시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포로가 되어 멀리 북쪽으로 끌려갔다는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롯이 잡혀가게 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당시 인류는 사랑과 정의의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하여 몇몇 부족들이 모여 나라들을 이루고, 그 나라들은 또 다시 힘을 중심으로 서로 동맹 내지는 복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장평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케나안 땅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비교적 힘의 우위에 있었습니다. 북쪽의 여러 왕들 중 엘람 왕 케돌라오멜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롯이 사는 도시인 소돔의 왕과 고모라의 왕 등은 12년 동안 케돌라오멜에게 복속하다가 13년 되는 해에 마침내 그 멍에를 깨뜨려 버리고자 반란을 꾀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케돌라오멜은 북쪽의 몇몇 동맹한 왕들을 이끌고 대대적인 남방 토벌전을 전개하였습니다. 남방의 여러 마을들이 초토화되었고, 도시 사람들은 그 재산을 약탈당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포로의 대열 가운데 소돔에 살던 롯이 끼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미처 생각도 못한 왕들의 전쟁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불행의 불씨를 가져왔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비보(悲報)를 접한 아브라함은 곧바로 구출 작전에 들어갑니다. 당시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에모리 족속인 마므레, 에슈콜, 아넬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하게 소집한 군사는 318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가신(家臣)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정어린 친구들과 함께 사랑과 신의로 뭉쳐진 가신들을 거느리고 여러 날을 행군하여 기습전을 통하여 결국은 롯을 비롯한 포로들과 약탈당한 모든 재물까지 되찾아오는 데 성공합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마저 있었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전히 보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대대적인 승리를 안겨주심으로 그를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고난이나 역경이나 슬픔을 면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어떠한 환란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끊임없는 승리와 몇몇한 극복과 그에 따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어지럽고 떠들썩합니다. 이런 세상을 기쁘고 보람 있게 사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우다 <창세기 14:17-24>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쟁 중 도망하였던 소돔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말키제텍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된 말키제텍은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말투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천지의 주재(主宰)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축복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물품 중 좋은 것을 골라 십분의 일을 말키제텍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는 제1호 선민(選民)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 겸 제사장인 말키제텍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시편 110편; 히브리서 7장 참조).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 이상의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또 그에게 자기 모든 이득의 십분의 일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 이전의 사건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키제텍에게 드린 십일조는 율법의 요구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주인’이라고 번역된 낱말은 히브리어로 ‘코네’(קנין)인데, ‘얻다’ 또는 ‘구입하다’를 뜻하는 동사 ‘카나’에서 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명사 ‘코네’의 일반적인 뜻은 ‘사는 이’, ‘구입자’, ‘소유주’가 됩니다. 그래서 ‘천지의 코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소유하신 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소유한다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말키제텍은 이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아브라함은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소득의 십분의 일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깨달음과 깨달은 진리의 실천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물품은 네가 취하라’는 소돔왕의 제의를 깨끗이 거절합니다. 불의한 인간을 통하여 부자가 되기보다는,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천지의 코네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웨께 손을 들어, 불의한 자의 재물을 결코 취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올바른 재물관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재물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는 일을 멀리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십일조를 통하여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간접적으로나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한 자신의 최소한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만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심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십일조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대한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후손과 땅을 약속 받는 아브라함 <창세기 15:1-21>

쉴데없이 재물에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후에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보상이 매우 클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그에게 놀라운 복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속한 상황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현실을 통하여 일을 판단하는 데 익숙한 연약한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겠다는 거지요?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나를 상속할 사람은 바로 여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될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똥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는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네 배에서 나올 자가 너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과거나 현재에만 제한되지 아니하고 영원을 보시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친구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어보세요. 거기에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것 하나 당신과 관련이 없는 약속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약속들은 얼마든지 당신에게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약속들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한 번쯤 그분의 약속들에 진지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믿음이야말로 약속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실행하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만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로

떠돌고 있는 케나안 땅까지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는 아브라함도 적잖이 놀란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땅이 제 소유가 되다니, 무슨 증거라도 있습니까?” 물론 이 말은 불신에서 나왔다고 보아도 너무나 뜻밖의 약속에 대한 놀라움의 표시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가지 특별한 의식(儀式)을 행하면서 답변을 주십니다. ‘케나안 땅의 소유’에 대한 약속을 두고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시고 장차 성취하실 분으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누릴 상대역으로 서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각각 한 마리씩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은 세 마리 가축의 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것들을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습니다. 비둘기들은 쪼개지 않은 채 차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다섯 종류의 동물들은 이후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 머무는 때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제물들과 일치하는 것들입니다(레비기 1장 참조). 모세 때부터가 아니라 그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사람과 ‘제사(祭祀)’를 통하여 약속을 확증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시편 50:5 참조).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제물이 놓인 가운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술개가 제물 위로 달려들 때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뉘엿뉘엿 해가 지고 아브라함은 점점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캄캄한 어둠은 잠에 빠져 들어가는 아브라함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네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종노릇하게 될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너는 평안히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장수(長壽)를 누린 후에 묻힐 것이다. 네 후손은 4대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달갑지 않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 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에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간을 정하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분명하고, 그분의 시행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그분의 약속에 기대를 걸고 그 약속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시간을 고집하지 말고 그분의 시간표를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가장 적합한 때를 아시고, 또 반드시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일을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엄숙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가운데, 해는 저서 이미 어두운데,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제물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 불로 제물을 태우심으로써 자신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날 하나님은 이처럼 엄숙한 제사의식을 통하여 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희한한 의식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에 대한 인장(印章)으로 삼은 일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모든 제사는 사실상 훗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크리스트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그를 다시 살려내신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크리스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새로운 땅’ 곧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보증 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여, 그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증거로 세우신 예수 크리스트를 믿으십니까?

함께 약속을 받은 사라의 위기 <창세기 16:1-5>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홀로 행하기를 즐기시는 분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드려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케나안 땅에 온 것은 그의 나이 75세, 아내 사라(나중에 사라로 바뀜)의 나이 65세 때의 일이었습니다(12:4).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라는 점점 늙어 가는 자신과 남편을 보고는 직접 자식을 얻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은 이제까지 불임(不妊)인데다 이미 늙어서 아무래도 희망이 없으니, 자신이 데리고 있는 젊은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대신 자식을 낳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으로서 자식을 낳아주기에는 적절한 여자라고 간주되었겠지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제의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들 부부는 아마 이런 식으로라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15:4)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라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어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머지않아 하갈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갈은 자신의 임신을 깨닫고는 흑심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인이요 이제 남편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기만 하면 당당하게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하갈은 점점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주인 씨래에게 보내는 그녀의 눈길은 점점 거만해졌고, 말하는 것을 비롯하여 일거수 일투족이 씨래를 멸시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씨래는 자신의 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여종 하갈이 이제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첩이 된 이상,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모욕은 당신 탓이에요. 내 여종을 당신 품안에 주었더니, 그녀가 이제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나를 깔보는군요. 야웨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의 불화를 원치 않는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자식 얻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집안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내 씨래와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아내 씨래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당신 여종은 당신 손안에 있으니 마음대로 하오.” 씨래의 뜻에 의하여 정당하게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 무자(無子)한 그에게 귀한 자식까지 낳아줄 여자였지만, 아브라함은 하갈을 가리켜 ‘씨래의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그녀의 운명을 전적으로 씨래의 손에 내맡겼습니다.

이제 씨래는 남편의 허락까지 얻어냈으니, 다시 예전과 같이 여주인과 여종의 관계로 하갈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씨래는 거만해진 하갈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집주인을 남편으로 얻고 임신까지 하여 자신만만하던 하갈은 아브라함과 씨래 사이의 끈끈한 사랑과 상호신뢰를 확인하면서 여주인 씨래의 일 처리에 반항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갈은 결국 씨래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잠깐 부부에 관한 몇 마디 말을 끼어 넣고자 합니다. 설사 사족(蛇足)이 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한 마디로 ‘부부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만일 두 사람이 속한 집안의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역시 부부관계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 관계는 또 결코 자식에 기초해서도 안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부관계의 기초로 자리잡을 경우 그 부부관계는 쉽게 깨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된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 모두가 자신들의 결합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거룩한 관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혹시 한 쪽이 믿지 않는 경우라면, 믿는 쪽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더욱 힘써 사랑하는 한편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 감을 체험하는 관계를 이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불어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부부라면 두 사람 사이에 비록 가난이 끼여들고 자식이 없고 심지어는 성적인 관계가 결핍할지라도 얼마든지 평화롭고 만족스런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여, 그때는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었나요?

이슈마엘의 출생 <창세기 16:7-16>

여주인 씨래의 학대를 피하여 집을 나온 하갈은 임신한 몸을 끌고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을 만나준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당신은 혹시 ‘천사’라고 하면 막연히 흰 옷 입고 날개가 달린 아름다운 인물을 연상하고 있는지요? 성경에서 ‘천사’라고 번역되는 낱말은 단지 ‘심부름꾼’ 또는 ‘전달자(소식을 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를 ‘사자(使者)’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갈에게 나타났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광야 샘물 곁에서 하갈에게 나타나 먼저 그녀에게 묻습니다. “씨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론 하나님이 이를 모를 일이 없지요. 그녀는 여주인에게서 도망 나왔고,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갈로 하여금 그녀가 처한 진정한 상황이 어떠한지 자각할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음을 깨닫고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가리개를 몸에 걸치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과 하바에게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담과 하바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 비참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죄인 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손아래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천사와 하갈의 대화 중에서 씨래는 ‘하갈의 여주인’, 그리고 하갈은 ‘씨래의 여종’이라는 칭호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결국 쫓겨 나온 하갈에게 본래의 관계, 즉 여주인과 여종으로서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갈이 집주인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 주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주인 씨래가 배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갈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싸래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갈의 마음을 그 여주인에게로 돌리신 하나님은 그녀와 그녀가 낳을 아들을 축복하시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이슈마엘이라고 하라.” ‘이슈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과 하소연을 들었다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하여 하갈에게 계속하여 하신 말씀은 좀 이상한 내용입니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그는 모든 형제의 맞은 편에 살 것이다.” 성경에는 사람이 출생하기도 전에 또는 출생 직후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의 운명까지 예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언급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직계 조상, 곧 그 부친이나 조부에 의하여 언급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두어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레벡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노아라 하면서 말하기를 “야웨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와 고통 중에 일하는 우리를 이 아이가 위로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5:28-29). 그 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으로서, 그와 그의 가족은 대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준비한 방주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이브와 리브카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인 야아콥과 에서는 출생 전에 이미 그들의 후손의 운명이 예고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리브카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자, 리브카가 말하였다. ‘일이 이렇다면, 도대체 나는 어찌란 말인가?’ 리브카는 가서 야웨께 여쭙보았다. 야웨께서 리브카에게 말씀하셨다. ‘두 나라가 네 뱃속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몸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겠고,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25:22-23). 각기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이들 쌍둥이 형제의 운명은 지난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예고된 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종 출신의 첩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슈마엘의 운명 역시 출생 전부터 예고되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이 예언의 말씀은 세 가지 내용, 곧 이슈마엘의 자유분방한 생활 양식, 호전적 성격, 거주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슈마엘의 자유분방한 생활 양식은 들나귀에 비유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들나귀’는 비유적으로 ‘제멋대로 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16:12; 호세아 8:9; 욥기 11:12). 욥기 39:5-8에 기록된 들나귀에 대한 묘사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의 지꺼리는 것을 엽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는다.”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에 걸맞게 ‘이슈마엘이 장성하여 파란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21:20-21).

둘째로 이 예언은 이슈마엘의 호전적인 성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내용 중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구절은 어느 정도 이 예언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아울러 지난 여러 세기 동안 이슈마엘의 후손이 주축을 이루는 아랍의 이슬람과 서방의 기독교 세력이 충돌하였던 일과, 또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 민족의 대결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켜준 예라고 하겠습니까.

셋째로 이슈마엘의 거주지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모든 형제의 맞은 편에 거하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25:18(“그의 자손들은 하빌라에서부터 술까지 이르는 지역에 거주하였다. 술은 앗시리아로 가는 길쪽으로 이집트 가까이에 있다.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끼리 나란히 거주하였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이슈마엘 자손의 거주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라는 이 문구는 이슈마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민족들 ‘결에’ (또는 ‘가까이’) 거주할 것이라고 지리적 위치를 묘사하는 동시에, 아울러 그들이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 특별히 이브와 에서의 후예들과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살게 될 것이라는 관계적 위치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슈마엘 자손은 지구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민족이 아니요, 오래도록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과 더불어 대립 관계 속에서 살 것이라는 예언인 셈입니다.

이집트 여인 하갈은 광야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자기 주인이 섬기는 야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불쌍한 자기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가리켜 그녀는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난 그 샘을 가리켜서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 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혹시 곤경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지금 ‘당신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살아 계신 하나님은 언제 어느때든지 당신의 외침을 듣고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하갈은 여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들은 천사의 지시대로 이슈마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슈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으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의 확인과 할례 <창세기 17:1-27>

이슈마엘의 출생과 더불어 세월은 흘러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이 13년의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 또 다시 지치고 지쳐서 결국 이슈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승전하고 돌아 온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보상이 매우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행하신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에게 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브람으로 불려 온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브람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이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그들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족속들의 아버지(조상)’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에 의하여 직접적인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많은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아브라함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세우십니다. 여기서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어에서 문자적으로 ‘씨앗’이라는 뜻으로 단수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활약한 파블로(바울)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갈라디아서 3:16).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생명으로 이끄심으로써 ‘많은 무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문구입니다(17:7-8). 이 문구는 이후에도 모세의 글을 통하여 곧잘 등장합니다(출애굽기 6:7; 29:45-46; 레비기 22:33; 26:12; 신명기 14:2; 29:13). 우리는 이 문구를 가지고 ‘하늘 나라(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천국’ 하면 막연히 ‘오직 모든 좋은 일만 있는 완전한 내세’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쫓겨 박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천국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문구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근동 지역에서는 나라마다 수호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수호신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아브라함 자손의 주종 관계 확립’을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심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역시 이 개념을 중요시하여,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 가운데도 이 문구가 거듭거듭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예레미야 7:23; 11:4; 24:7; 30:22; 에스겔 11:20; 14:11; 36:28; 37:27). 친구여,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당신의 수호신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대에게는 영원한 천국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래의 이름을 사랴로 바꾸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사랴’는 일반적으로 ‘왕비(王妃)’라는 뜻으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짝을 이룰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많은 무리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은 이 대목에 이르러 속으로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이는 거의 100세, 아내 사라는 90세가 다 된 할머니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느냐는 생각이 그의 머리 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을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맙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현실 상황을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인지라, 이번에도 역시 “이슈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 본래의 온유한 태도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말로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즈חק이라고 불러라. 내가 그와 더불어 나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즈חק’은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웃었던 아브라함이 머지않아 늙은 아내 사랴를 통하여 아들을 얻은 후 기쁨과 감사와 경탄의 웃음을 웃게 될 날이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슈마엘에 대한 말씀도 빼놓지 않으십니다. “이슈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그로 하여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가 열 두 명의 족장을 낳아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도 약속에 대한 일 만큼은 하나님과 이즈하 사이의 일이라고 분명히 뜻을 박아 두십니다. “하지만 나의 약속은 새해 이 기한에 싸라가 네게 낳아줄 이즈하와 더불어 세울 것이다.”

장차 싸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도 들은 관국이니,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사실상 이성(理性)이나 논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엄청난 간격을 연결해주는 인간 편에서의 유일한 끈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파블로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로마서 4:19-22).

약속은 적어도 두 편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위하여 때때로 모종의 표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말해온 약속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상대역으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편에서 지켜야 할 약속의 표시를 제시하십니다. ‘할례(割禮)’라고 불리는 이 표시는 오늘날 의학적 용어인 ‘포경(包莖)수술’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할례란 음경(陰莖)을 덮고 있는 살가죽의 끝 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한 남자는 누구든지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만일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 날 자신을 비롯하여 온 집안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99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슈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세 천사의 방문과 싸라의 득남 예고 <창세기 18:1-15>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꼭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꿈 가운데,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또 때로는 말씀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인간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모든 존재는 ‘천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천사의 출현은 곧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결국은 같은 것으로 기록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린 사람이었는데, 그 또한 서로 다른 몇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진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일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출현하였으며, 희한한 일은 그들 중 하나가 ‘야웨’로 불렸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야웨’로 불린 천사와 아브라함 사이의 길다란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나무 근처에 천막을 치고 거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뜨거운 한낮에 아브라함이 천막 입구 그늘에 앉아 있는데, 문득 낮은 사람 세 명이 자기 맞은 편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는 일에는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히브리서 13:1-2 참조). 그는 얼른 뛰쳐나가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이 나그네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날이 아직 더우니 길가면서 지치고 더러워진 발도 씻고 요기도 한 후에 나무 그늘 아래서 좀 쉬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케나안 땅의 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그 남동쪽으로는 인적이 드문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열하는 태양이 그 빛살로 사람의 땀을 짜내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과 같은 목을 축여주는 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절하게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하여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상으로 아낌없이 제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의 나그네는 아브라함의 초청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서둘러 손님대접을 준비합니다. 급히 천막에 들어가 싸라에게 최고급 밀가루를 반죽하여 빵을 굽게 하고,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인에게 내주어 속히 요리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나그네들 앞에 차려진 상은 가히 진수성찬이라고 일컬을만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마치 하인이라도 되는 양 그들 옆에 서서 식사시중까지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세 사람의 나그네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네 아내 싸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은 싸라가 ‘천막 안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제부터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이를 복수가 아닌 3인칭 단수, 곧 야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순간부터 그들 세 명의 나그네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야웨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새해에 내가 분명히 네게로 돌아 올 터인데, 네 아내 싸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마침 아브라함의 뒤쪽 천막 입구에 있다가 이 말을 들은 싸라는 속으로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나 남편이나 모두 나이 많은 늙은이로서 성적인 희락도 시든지 오래요, 게다가 자신은

이미 월경이 끝나고 폐경기에 들어 와 있는 무능한 여자인데 어찌 자식을 낳겠느냐는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때 야웨의 단호한 말씀이 다시 아브라함의 컷전을 때립니다. “싸라가 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고 하면서 웃느냐? 야웨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새해에 내가 네게로 돌아올 터인데 싸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겁에 질린 싸라는 웃지 않았다고 하면서 부인해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녀가 웃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굳이 싸라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그녀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늙고 월경도 끝난 싸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지만 결코 믿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싸라도 웃을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일도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많은 일들을 즐겨 행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구별성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겠지요.

소돔.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간구 <창세기 18:16-33>

드디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나그네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또 다른 목적지는 소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고자 얼마간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야웨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로 하여금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터이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중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아모스 3:7 참조). 하나님의 뜻 또는 비밀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요, 이런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류의 초창기 선교사로서 먼저 자식과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친구여! 당신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각하고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 부르심은 우선 당신의 가족, 곧 당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집안 친척, 더 나아가서는 후손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부르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자신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 말씀이 지켜지고 행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춰낸 비밀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하여 그 진상을 조사하러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소돔으로 향하고 그중 한 사람만 아브라함 앞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18:22에 대하여 사본학적인 접근으로 좀 상세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직역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으나 아브라함은 야웨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가 됩니다. 구약 성경을 전수한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고대 유대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주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온 이후에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합법적 해설자인 동시에 수호자의 구실을 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율법의 글자 하나 하나를 센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구약 성경을 전수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의 전통을 이어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호하고자 수고한 유대인 학자들을 가리켜 맛소라 학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낱말 ‘맛소라’는 ‘전통’을 의미합니다. 맛소라는 성경 본문의 정확한 전수를 위하여 성경 본문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주를 달거나 특별한 부호를 명기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맛소라 성경’이라고 함은 이들 유대인 맛소라 학자들에 의하여 전수된 자음 성경 본문 내지는 그들에 의하여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게 여러 가지 보조 수단(=맛소라)들을 통하여 단장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맛소라 성경은 대략 주후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걸쳐 히브리어 표준 성경 전수에 종사한 유대인 맛소라 학자들에 의하여 완성되었습니다.

맛소라 성경에는 특별히 ‘서기관들의 수정(修訂)’이라고 불리는 일군(一群)의 수정문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의 한 가지 예로서, 여기 18:22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야웨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본래 원본이 아니라 실제 원본인 ‘야웨께서는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를 서기관들이 이처럼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경우에 맛소라 학자들이 제공해주는 정보가 옳다고 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로 두 낱말(‘야웨’와 ‘아브라함’)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이 구절을 고치기 이전의 본문을 가지고 읽을 경우, 세 사람 중에 둘은 소돔으로 향하고 그들 중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남은 한 사람이 바로 ‘야웨’로 불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을 경우 ‘야웨’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히 앞으로 약속된 메시아와 관련되어 쓰인 예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2~3세기 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헬라어(그리스어)로

번역된 칠십인역에서는 ‘야웨’를 ‘주(主)’를 뜻하는 ‘퀴리오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즐겨 ‘주’(=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야웨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을 호칭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는 외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9). 이 말씀은 시편 118:26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거기에는 “야웨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토는 ‘주’, 곧 ‘야웨’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시는’(요한복음 8:58)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요한복음 8:56). 아브라함의 일생 중 어느 때 무슨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창세기 18장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서도 ‘야웨’의 이름으로 불리는 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고 추측해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결론은 내릴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두 명의 천사(19:1에 ‘천사’로 기록됨)는 소돔으로 떠나고, 이제 야웨만이 아브라함과 마주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입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혹시 그 성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더라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들 50명의 의인을 봐서라도 용서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안됩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평성을 잃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렵짐작으로 그곳에 50명 정도의 의인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매우 흥분된 어조로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안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그 전 지역을 용서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에 아브라함은 처음 생각했던 숫자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궁여지책으로 숫자를 내려가면서 하나님과의 흥정에 들어갑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는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그가 속한 가정, 직장, 마을, 사회, 국가의 방패요 수호자가 됩니다. 친구여! 당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 때에 당신은 가정, 직장, 마을, 국가를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소돔의 죄악 <창세기 19:1-11>

아브라함을 떠난 두 천사는 날이 저물 무렵에서야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은 지나가는 두 나그네를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자기의 집 안으로 들어와 쉬어 가라고 초청합니다. 나그네 영접하는 일에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조카 롯이나 모두가 열심이었습니다(히브리서 13:2). 두 천사는 거리에서 경야(經夜)하겠다면서 사양해 보았지만, 롯의 간청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롯의 집에서 저녁을 대접받고 자리에 누울 무렵에, 소돔성 남자들이 무론노소하고 몰려들어와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그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롯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들은 동성연애와 혼음(混淫), 그리고 온갖 성추행의 죄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롯은 죄악이 많은 소돔성에 살면서 그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벧후 2:7-8). 죄악 세상에 사는 의인의 삶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고난을 면제받은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롯보다 훨씬 후대에 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를 들어보기로 할까요.

예레미야는 우상숭배를 비롯하여 각종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그에 따른 심판 계획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예후다 나라 백성들은 한 마디로 “열방의 길을 배우고 이방의 헛된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예레미야 10:2-3). 이 일은 ‘참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야웨 하나님’을 격분케 만들었습니다(예레미야 10:10).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도시의 집들이 무너지고, 장막이 훼파되며, 자녀들을 잃고 양떼는 흩어지며, 침략자들이 예후다 온 땅을 휩쓸고 다닐 것입니다(예레미야 10:19-22). 머지않아 다가올 이런 일들을 미리 보게 된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더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重傷)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예레미야 10:19).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이 죄악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잘 대변해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죄악 세상에서 사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시편 기자는 “메섹에 유하며 케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시편 120:5-6)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익히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으로 돌아갈까요. 자기에게 들어온 손님들을 성추행하고자 밖으로 내놓으라고 소리지르는 소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자, 롯은 집문 밖으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는 그들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시오. 내게 처녀 딸 둘이 있는데 차라리 그 아이들을 내어줄 테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이니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이 절박한 상황에 롯은 두 천사를 위하여 아버지로서의 의무까지 포기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딸이야 이미 소돔 청년들과 약혼을 해두었으니 해코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여기 롯처럼 때때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롯의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때때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귀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마태복음 10:37)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 중에서 제일 우선 순위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눈이 먼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의를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롯에게 “이 한 놈이 와서 나그네 살이 하는 주제에 다스리려고 구는군!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좀 혼내주어야겠다.” 하면서, 롯을 밀쳐내고 문을 박차고 집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마침내 롯을 찾아온 천사들이 나섭니다. 두 천사는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문밖에 있는 모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이 열리긴 하였지만 갑자기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롯의 집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모와 겉치장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 외과 의사가 돈을 벌 수 있고, 화장품과 패션 사업 등이 꽤 좋은 돈벌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해주는 것은 그의 외모나 겉차림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모습은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예레미야 17:9).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시고, 그 결과 사람들은 온갖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로마서 1:28-32). 이것이 바로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돔·고모라의 멸망 <창세기 19:12-29>

히브리어 어휘 가운데 ‘마흐페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파괴’ 또는 ‘전복(顛覆), 뒤집어엎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모두 6회 나오는데, 항상 소돔·고모라의 멸망과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신명기 29:23; 이사야 13:19; 예레미야 49:18; 50:40; 아모스 4:11). 지금으로부터 대략 4000년 전 하나님은 소돔·고모라와 그 일대를 심판의 불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으로서 고대 세계 많은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의인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그에게로 보내졌고, 롯은 나그네로 찾아온 이들을 성심성의껏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해 보였습니다.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밖에 있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 두 천사는 이제 롯에게 성안에 또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지 묻습니다. 소돔의 멸망이 임박하였기에 하나라도 더 구원할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롯은 딸들과 약혼한 소돔의 두 청년에게 찾아가서 임박한 심판을 알리면서 함께 피할 것을 간곡히 권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두 청년은 장인 될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피하라는 좋은 소식을 실없는 소리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바야흐로 동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면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소돔성을 떠나라고 명하였습니다. 재산이 불어나면서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데 불편을 느끼자 결국 삼촌을 떠나 비옥하고 따뜻한 야르덴 골짜기로 내려와 살다가 마침내 환락과 풍요의 도시 소돔에 와서 정착한 롯, 그는 이제까지 축적한 부(富)와 안녕(安寧)을 한 순간에 버리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롯이 머뭇거리자 천사들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성밖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 가족에게 단단히 이릅니다. “네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라. 네 뒤를 돌아보거나 들뜬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롯은 산까지 도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도중에 재앙을 만날까 두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을 가리키면서 그 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조알’이라고 불리는 그 작은 성을 멸하지 않기로 약속하시고는, 얼른 그곳으로 도망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롯의 일가가 그곳에 도착하기까지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롯이 쪼알성에 들어갈 때에 붉은 해는 동쪽의 산 위로 돋았고, 하늘에서는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 소돔과 고모라 일대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성들과 성안의 건물들, 그리고 사람에서 풀에 이르기까지 땅위의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 일대 온 땅이 유황과 소금으로 뒤덮이게 되고, 또 불에 타서 심지어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신명기 29:23 참조).

한편 롯의 아내는 도망 중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비참하게도 그만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소돔성에 두고 온 모든 재물과 소유가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 세상에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눈이 멀고 얽매어서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죽을 때 가져가는 것 하나도 없건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날 소돔·고모라와 그 일대의 멸망은 멀리 동쪽의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도 목격되었습니다. 마치 아궁이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소돔·고모라 일대에서 굉장한 연기가 치솟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의인 열 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 소돔·고모라임을 아는 그인지라, 아브라함은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의 조카 롯을 살려준 일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소돔·고모라의 죄악에 결코 뒤지지 않는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소돔·고모라의 운명을 맞이하지 않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인들의 공로도 빼놓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언젠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무서운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다”(누가복음 17:28-29)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이에 여념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땅위에서 먼저 의인들을 취해 가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불로 멸하실 것입니다. 친구여, 그 날을 준비합시다.

롯의 비극 <창세기 19:30-38>

나는 어려서 창세기 19:30-38을 읽었을 때에, 어떻게 이 책이 ‘성경’ 곧 ‘거룩한 책’이 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롯이 자기의 두 딸과 차례대로 동침한 사건이 비교적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린 나로서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책’이기 보다는 ‘지저분한 책’이라는 느낌마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니, 이처럼 입에 담기 어려운 ‘부끄럽고 더러운’ 사실까지 숨기지 않고 기록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성경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인간을 과장 설명하여 영웅으로 만드는 일도 없고, 불필요하게 미화시키거나 단점을 가리는 일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거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자신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까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수모를 겪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이요 해방자인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신임을 가장 크게 받았던 다비드도 자신들의 한 때 잘못이 성경 안에 적나라하게 기록되는 현실 앞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소돔의 멸망을 간신히 피하여 쪼알성에 도착한 롯은 아내 잃은 슬픔도 억눌린 채,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두 딸을 데리고 쪼알성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동굴을 하나 찾아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가까스로 피한 자신들을 환영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을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두 딸은 함께 짜고 세상에 아버지의 씨를 전할 양으로, 아버지를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 후 하룻밤씩 차례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이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모압과 벤아미입니다. 큰딸이 낳은 모압은 후에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벤아미는 후에 아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훗날 모압 족속이나 아몬 족속의 운명은 이미 그들의 조상인 롯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케난안 땅으로 이주해올 때, 함께 따라 나왔기 때문에(11:31; 12:5),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소돔과 고모라가 서 있는 야르덴 골짜기를 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13:5-13). 마침내 소돔·고모라가 망하고 결국은 딸들과 불륜의 관계를 통하여 자식을 얻게 된 롯, 그의 후손은 부끄럽게도 성경 역사상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신명기 23:3; 이사야 15:1-16:14 참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자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저주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그러하신 것처럼 당신의 약속을 받는 인간이 그 약속에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을 통하여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 편에서의 믿음과 성실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바꾸고자 잠깐 하나님과의 약속에 성실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옮겨가고자 합니다.

롯의 큰딸이 롯에게 낳은 모압의 후손 중 롯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롯은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 과부가 되었으나,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와 재혼하여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롯에 대하여는, 구약 성경 중 그녀에 대한 기록이 한 권의 독립된 책으로 할애될 정도로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저주받은 족속이요, 또 개인적으로도 외국인(이스라엘 사람) 남편을 잃고 자식도 얻지 못한 채 청상과부로 남는 기구한 운명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약속의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을 끝까지 지켰기에 결국은 큰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모압 여인 롯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롯기 1:16)라는 굳센 다짐과 고백으로 야웨의 총회에 대한 그녀의 집념을 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잃고 시동생도 없던 롯이 야웨의 총회에 들어가기를 바란 것은 결코 남자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보아스는 롯의 이러한 집념을 간파하고 “야웨께서 네 행한 일을 보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롯기 2:12)라는 말로 그녀를 축복할 뿐 아니라, 후에 친히 그녀를 아내로 취하여 자신의 축복을 현실화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창세기 20:1-18>

소돔·고모라의 멸망 후 아브라함은 케나안 땅의 남단에 위치한 네겟 지방으로 이주하여 그랄이라고 불리는 곳에 살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같은 베두인(유목민)은 수시로 물과 풀을 따라 이동하여야 했습니다. 그랄은 후에 플리슈툼에 속한 지역으로서, 아브라함 당시 아비멜렉이라고 불리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또 다시 그랄 땅에서도 자기 아내 썬래를 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이집트에서 아내의 일로 곤경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으로 위기를 모면했던 그가 왜 아직도 여전히 아내를, 그것도 이제는 거의 아흔 살에 달하는 늙은 여자를 누이라고 소개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무렵 아브라함은 이미 큰 무리의 종들과 가축 떼를 이끄는 부유한 족장이었습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은 그런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던지, 비록 나이는 여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누이로 소개된 썬래와 혼인을 추진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유대를 강화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썬래가 그랄왕의 궁전으로 데려가질 때,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였을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또 다시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썬래의 일로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신 것입니다. 몹시 놀란 아비멜렉은 아직 썬래와 동침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썬래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소개받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녀를 취해 들인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도덕성을 인정하시고 그를 막아 범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면서, 썬래를 돌려보내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선지자이니 그가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아비멜렉은 서둘러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먼저 꿈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의 신하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썬래와의 관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일을 항의하였고, 아브라함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나그네로 살면서 아내 까닭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누이라고 말하였고, 또 실제로 썬래가 자기에게 배다른 누이라는 변명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썬래를 돌려주는 동시에, 가축과 남녀 중 중에서 일부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내어줍니다. 그것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일종의 속죄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또한 넓은 아량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시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마침내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온 집안에 다시 출산의 능력을 부여해주셨습니다. 이때에도 만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낮은 상대를 만날 때에 우선 두려움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때로 두려움은 편협한 오해와 적대감으로 빠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친구여, 당신이 만일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두려워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넘치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창세기 21:1-13>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시간까지도 정하여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7:15-21; 18:10-14). 이때 하나님은 출생의 시기를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17:21; 18:10,14), 그 아들의 이름까지 미리 이즈학으로 정해주셨고(17:19), 그 아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울 일도 말씀하셨습니다(17:19,21). 이제 약속하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정말로 사라를 기억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녀에게 행하셨습니다. 90세의 사라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즈학이라 부르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90세 다 된 할머니가 아홉 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지내다가, 90세에 이르러 출산했으니, 사라로서는 한편 어이없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즈학이라는 이름은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즈학의 출생과 관련하여 그 약속의 단계에서부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즈학의 출생에 대하여 약속을 받을 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이는 거의 100세, 아내 사라는 90세가 다 된 할머니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느냐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17:16-17). 사라 역시 이 약속을 듣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나 남편이나 모두 나이 많은 늙은이로서 성적인 희락도 시든지 오래요, 게다가 자신은 이미 월경이 끝나고 폐경기에 들어 와 있는 무능한 여자인데 어찌 자식을 낳겠느냐는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18:12-15). 사라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들이 모두 웃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친구여,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이라면 당신의 삶에 있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어이없고도 감사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은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마침내 이즈학이 젖을 떼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 날은 늙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매우 의미 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날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거의 스무 살을 바라보는 이슈마엘이 잔치 날에 어린 이즈학을 희롱하는 모습이 사라의 눈에 비쳤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즈학이 출생한 이후로 이슈마엘과 그의 생모 하갈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차에, 사라는 이 일을 참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본능과 직감에 민감한 사라는 이슈마엘 때문에 장차 자기 아들 이즈학에게 상속될 유산이 줄어드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사라는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아브라함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사라의 눈에 단순한 ‘계집종의 아들’로 비친 이슈마엘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즈학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친 핏줄’이었습니다.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한 것은 언제고 이제 와서 다 큰 아들을 내쫓으라니 이 어찌 달가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혈육의 정으로 생각하던 윤리적인 입장에서 보든, 이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하갈이 임신하여 여주인인 사라를 멀리하다가 도리어 사라의 학대를 받아 결국은 스스로 도망하게 되었던 일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성(理性).윤리가 사라의 본능.직감과 충돌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이처럼 시각차이로 인한 갈등.충돌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여,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와 네 여종의 일 때문에 기분 상해하지 말라. 사라가 네게 요구한 대로 그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즈학을 통해서 네 씨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여종의 아들도 또한, 내가 그를 한 나라로 이루어 주겠다. 그도 너의 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즈학과 이슈마엘, 두 사람 모두를 위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즈학에 대한 약속은 앞서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이슈마엘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이즈학과 같은 복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아들)라는 점을 감안하여(17:18), 나름대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슈마엘의 자손이 번성하여 큰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16:10; 17:20), 이름도 출생 전에 정해주셨으며(16:11), 그의 운명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16:12). 다만 이즈학을 통하여 아브라함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일들을 당신의 권한 안에 두십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라가 이슈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요구한 것은 그리 아름다운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요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를 초래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히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라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자신의 본능적인 편애와 감정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친구여, 그대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크리스토티인이라면, 나는 그대가 때로는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일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으로 확인될 때,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 <창세기 21:14-34>

인생은 광야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보면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제아무리 애쓰며 간절히 바랄지라도 이를 수 없는 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때때로 깨끗이 단념하고 절대자의 손에 맡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보이는 아내의 요구에 첩 하갈과 그 첩이 낳아준 아들 이슈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몹시 착잡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먹을 빵과 마실 물을 넉넉히 준비하여 하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손에서 떠난 이들 모자의 운명을 절대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은 이처럼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는 훈련을 다시 한 번, 훨씬 더 혹독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과 헌신을 확인하시기도 합니다.

아들과 함께 주인집에서 쫓겨난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던 중, 빵도 물도 모두 동이 났습니다. 이제는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니다.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던 하갈은 나무 그늘 아래 이슈마엘을 두고는 자신은 그로부터 화살 날아갈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슈마엘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들 모자 특별히 이슈마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하갈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갈의 눈이 밝아지고 그녀는 샘물을 보았습니다. 이 뜨거운 광야에서 신비하게 나타난 샘물은 죽어 가는 이들 모자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후 이슈마엘은 광야에 살면서 능숙한 활 솜씨를 자랑하는 용사로 성장하였고, 이집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점점 큰 부족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슈마엘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의인에게 딸린 사람은 의인의 덕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의 덕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 태어난 이슈마엘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친구여, 당신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으로 살지 않으렵니까?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복의 근원이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슈마엘이 거친 광야에서 군세계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또 다른 형태의 광야에서 외로운 나그네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의 광야 인생이란 이방인의 땅에서 손님으로서 주인 나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그가 살고 있던 땅은 폴리슈팀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사는지라, 때로는 불이익이나 학대도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특별히 물이 충분치 못한 이 건조 지역에서 사는 아브라함에게는 샘물이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폴리슈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수고하여 판 우물을 강탈하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서 늘 그를 보호해주셨습니다. 이 일은 이방 사람들의 눈에까지 보일 정도로 분명하였습니다.

한 번은 아비멜렉이라 불리는 폴리슈팀 왕과 그의 군대 장관 피콜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끌고 있는 히브리인의 무리들은 수적으로는 열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아래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땅에 들어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기 원하였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조약이 아니라 자자손손 계속되는 항구적인 조약을 원하였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긴 억울한 일을 밝히며 아비멜렉을 책망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회에 우물의 소유권을 확실히 해 두고자, 양양 새끼 일곱 마리를 내어주며 우물 판 증거로 삼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차라리 재물을 내어주고 평화를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맹세를 하며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특별히 이 조약이 우물과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가 되었습니다. 조약이 체결된 후 아비멜렉 일행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브엘세바 지역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21:33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위성류를 심었다고 합니다. 위성류는 브엘세바처럼 강수량이 빈약하고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가축 떼에게 그늘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모래를 흠뿌리는 사막 바람으로부터 목초지나 농경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아브라함은 한 그루만 심은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식목 작업을 펼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나무는 심은 지 적어도 몇 년이 지나야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얼마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나무를 심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야웨’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잠깐일지라도, 인생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광야 길을 지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의 보호 아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친구여, 우리 인생의 초점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땅의 것들에 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대가 살고 있는

곳이 불이익과 위협과 박해가 가득 찬 곳일지라도, 그대가 의지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광야 같이 거친 인생 길을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으로서 평화롭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검증 받은 아브라함과 이즈학 <창세기 22:1-19>

전에 아내 싸라의 요구 때문에 이슈마엘을 광야로 내보내야 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훨씬 더 커다란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이즈학이 어느 정도 장성하였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즈학’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렵게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 키워놓은 자식을 바치라니,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잠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명령에 대해 상식성 여부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평이나 대꾸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곧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80km의 거리입니다. 이는 당시 사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두 종과 아들 이즈학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어라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착잡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이즈학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두신 수양을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과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아무리 시험이라고는 하나 이즈학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 때문에 과거 유대인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갖가지 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아람어 역본(‘타르굼’이라고 함) 가운데 하나인 예루살렘 타르굼의 해석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람어 성경 ‘타르굼’은 통일적인 하나의 성경 역본이 아닙니다. 그 시대도 다르거니와 역자 또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종류의 ‘타르굼’ (타르굼의 복수형)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일명 ‘가짜 요나탄 타르굼’이라고도 불리는 ‘예루살렘 타르굼’은 온갖 주석적 요소로 가득 차 있어서 성경 주석가들의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1에 대하여 예루살렘 타르굼은 상당히 흥미 있는 주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본문을 우리말로 옮겨 봅니다.

이 일들 후에 이즈학과 이슈마엘이 다투었다. 이슈마엘이 말하였다: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 이즈학이 말하였다: “내가 아버지 부인 싸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너는 내 모친의 여종인 하갈의 자식일 뿐이다.” 이슈마엘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열 세 살에 할례를 받았으니 너보다 더 의롭다. 만일 내게 거절할 뜻이 있었더라면 나는 얼마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었을 것이다.” 이즈학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나이 지금 서른 일곱이 아니냐. 만일 거룩하시고 찬양 받으실 분이 나의 모든 지체를 요구하신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겠다.” 그 즉시로 이 말들이 우주의 주께 들려졌고, 또한 그 즉시로 주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데로 예루살렘 타르굼은 아브라함이 이즈학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슈마엘이 이즈학의 비위를 건드리는 말로 그에게 도전해오자 이즈학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적 태도를 주저함 없이 발설합니다. 자신의 모든 지체라도 주저하지 않고 바치겠다는 이즈학의 선언이 결국 이러한 시험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 이 타르굼의 설명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시험받을 때 이즈학의 나이는 37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타르굼은 아브라함이 이즈학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일을 싸라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싸라는 127세에 죽었으므로(창세기 23:1), 이때 이즈학의 나이가 37세가 되는 점에 착안하여 예루살렘 타르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즈학의 나이를 37세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타르굼의 창세기 22:1 본문은 상당히 흥미 있는 해석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설명일까 하는 데에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는 고대 유대인 라비들의 지나친 추측에서 나온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는 달리 주후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설명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심을 시험해 보고자 이즈학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이때 이즈학의 나이를 25세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즈학의 나이에 대하여 예루살렘 타르굼이나 요세푸스의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이즈학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고 산을 오르게 했다는 점으로(창세기 22:6) 미루어 이즈학이 결코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즈학을 막 치려하는 순간에 이즈학의 반응이 어떠하였을까요? 고대 유대인들은 이에 대하여도 관심이 컸습니다. 창세기 22:10에 대한 예루살렘 타르굼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집어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 이즈학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영혼이 고통 중에 분투하지 않도록 저를 꼭 붙잡아 매세요. 그래야만 아버지의 제물에 흠이 없겠고 저도 멸망의 구덩이로 던져지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이즈학의 눈을 쳐다보았으나, 이즈학의 눈은 저 높이 천사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즈학은 그들을 볼 수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였다. 높은 곳에서 천사들이 화답하였다: “우리 가서 땅 위의 저 두 별난 사람을 보자. 하나는 잡는 자요, 다른 하나는 잡히는구나. 잡는 자는 주저함이 없고, 잡히는 자는 그 목을 길게 내미는구나.”

예루살렘 타르쿰은 이즈학의 순종과 신앙심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또한 이에 뒤질세라 이때의 상황을 아브라함과 이즈학 부자(父子) 사이의 눈물겨운 대화 내용을 통하여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경우에도 이즈학의 믿음과 순종이 돋보입니다.

비록 이런 기록들이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때 이즈학의 순종과 믿음에 대하여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 40이 되지 않은 젊은 나이의 이즈학은 원하기만 하였다면 100세가 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즈학 역시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이없는 순종에 그대로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 이 부자는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고, 인간의 생사를 가름하는 조물주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조물주 앞에서 잠잠히 목을 내놓고 자신의 모든 운명을 그의 손에 내맡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내어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일 때 그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조물주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서 자신의 독자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멍청한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장 충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브카의 예비와 싸라의 죽음 <창세기 22:20-23:20>

이즈학을 제물로 바칠 뻔했던 일은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시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일이나,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으면 이즈학은 자식도 낳아보지 못하고 죽을 뻔하였습니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자신들 앞에서 죽는 것을 보는 일이란 몹시 슬픈 일입니다. 고대 유대인 라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돌아온 후에 이즈학을 아넬이나 에슈쿨이나 마프레의 딸들 중 하나에게 장가보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에모리 족속 세 형제는 아브라함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로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에도 가담한 적이 있으니(창세기 14:13,24 참조), 아브라함으로서도 당연한 생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케나안 땅 본토 사람들과 통혼하는 일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장차 이즈학의 아내 될 사람은 지리적으로는 먼 곳이지만 혈통으로는 가까운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브카로서,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케나안 땅으로 이주해오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에 남아 살았습니다(창세기 24:10 참조). 자, 그러면 나홀 집안의 족보를 간단하게 소개해보기로 할까요(창세기 22:20-24).

나홀의 아내는 밀카입니다. 그녀는 나홀에게 여덟 명의 아들을 낳아줍니다. 나홀에게는 르우마라고 불리는 첩도 있었는데, 그녀는 네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나홀의 아들은 모두 열둘이 됩니다. 이 숫자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즈학의 아들인 야아콥이 낳은 아들들의 숫자와도 일치합니다. 그뿐 아니라 야아콥 역시 두 아내를 통해서 여덟 아들을, 그리고 두 사람의 첩을 통하여 네 아들을 얻습니다. 한편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중 브투엘에게 리브카라 불리는 딸이 태어나는데, 이 리브카가 바로 하나님이 이즈학을 위하여 아내로 예비해두신 처녀입니다.

친구여, 나는 이 대목에서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땅위의 자녀들을 위하여 중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나아가는 길이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리브카에 대한 이 기록을 읽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앞서서 함부로 설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유대인 라비들이 설명한 바, 이즈학의 혼인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즈학을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지극히 인도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결정보다 나의 지식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즈학의 아내 될 사람이 예고되면서, 이즈학의 어머니 싸라의 역할은 막을 거두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생면부지의 머나먼 외국 땅으로 와서 살면서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여 마음 졸이던 싸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즈학을 얻어 잘 키웠으나, 약속하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자칫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을 뻔했었던 그녀는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자기 할 일을 다 할 때 그의 인생이 끝나는 법입니다. 굳이 발버둥치며 땅위에 사는 기간을 늘리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싸라는 127세의 나이에, 험난했으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했던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즈학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3년 후에 결혼하였습니다.

싸라는 그녀가 62년 동안이나 나그네로 살았던(창세기 12:4과 23:1 참조) 케나안 땅의 헤브론에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헤브론은 ‘키랏 아르바’라고도 불립니다. ‘키랏 아르바’란 ‘넷의 마을’을 뜻합니다. 유대인 라비들은 이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네 거인이 살았기 때문에’ 또는 ‘거기 네 부부가 묻혔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네 거인이란 아히만과 세샤이와 탈마이와 그들의 아버지 아낙이요(민수기 13:22 참조), 네 부부란 아담, 하바, 아브라함, 싸라, 이즈학, 리브카, 야아콥, 레아 부부를 가리킵니다. 그 이름의 유래가 무엇이든 간에, 아브라함 가족에게는 헤브론뿐 아니라 케나안 땅 전체가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그네요 거류민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사람을 묻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헤트 족속 사람들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우리의 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시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기 묘지에 당신의 죽은 자 묻는 것을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이는 비록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지라도, 사람들로부터 결코 무시 받지 않는 고귀한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친구여, 당신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의 왕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왕자 또는 공주가 된 확실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처럼 인정을 받았으니, 묘지 거래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기를 원한 토지의 소유주는 자기 땅을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내어줄 마음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 주인은 고대 동방 사람의 예절과 체면을 갖춰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의 값을 제대로 치르고 사고자 고집했습니다. 그는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기 신분의 권위를 이용하여 함부로 거래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공정 상거래 정신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도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토지 주인은 그 묘지의 값을 말하였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흥정 없이 순순히 그 부른 값을 받아들여 은 400 세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케나안 땅 헤브론의 헤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땅에 싸라를 매장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묘지는 막펠라 동굴이라고 불리는데, 이후로 아브라함 가문의 중요한 묘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이나 특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각종 종교의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런 이름을 위하고 또 그 자신의 좋은 이름을 유지하고자, 무슨 일든 모든 사람들과 공정한 거래를 하였습니다. 행여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여 남다른 혜택을 제공하며 거래를 하고자하더라도 가급적 신분에 따른 특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같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식구가 베풀어주는 것이라면 사랑의 빛으로 기꺼이 받아들여도, 당신의 명예에 손상이 갈 수도 있는 거래라면 그것이 아무리 내게 유익하다 하더라도 거절할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즈학의 아내 얻기 <창세기 24:1-67>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경우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녀의 평생 반려자를 결정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미 풍습이 변하여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자신이 직접 배우자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즈학이 아내를 얻게 된 사연은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어이없는 일이고, 예전 근동 사람들이 보더라도 좀 특이한 경우로 비쳤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즈학이 아내 리브카를 얻게 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사자인 이즈학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 주요 등장 인물들이란 이즈학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리브카와 그의 오빠 라반을 가리킵니다. 이즈학은 이들 주변 사람들의 입에만 오르내리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리브카를 아내로 취하는 장면이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즈학이 리브카를 아내로 얻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는 이들 주변 인물들도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이즈학의 결혼이라는 인생 대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그에 따른 행동, 주인의 지시를 받아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는 늙은 종, 그리고 장차 이즈학의 아내가 될 리브카와 그의 집안 사람들, 이 모든 요소를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에서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한 가지 원칙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현재 살고 있는 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취하지 않고, 멀리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 집안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며느리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2-4절). 이 원칙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을 가지고 그는 신임하는 늙은 종을 친척들이 사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일을 그 종에게만 전적으로 맡겼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이 일을 맡겼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종의 길을 행통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5-9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신임하는 이에게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그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종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즈학의 결혼에 관하여 맹세까지 하며 전권을 위임받은 이 늙은 종은 길떠날 차비를 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겨 왔는데, 이번 일이 아마도 마지막으로 주인을 섬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익히 보아왔던지라, 그는 직접 하나님을 부르며 은혜를 구했습니다(10-12절).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종의 기도는 하나님께 마치 각본을 써서 지시를 내리듯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 중 하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 달라’고 할 때, 그녀가 이 종뿐 아니라 낙타 때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면 바로 그녀가 하나님이 이즈학을 위하여 정해주신 신부인 것으로 알겠다는 것이 그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13-14절). 창조주시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귀한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스스로를 어느 정도 구속시킬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란 절대자 하나님을 움직이는 손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형제 집안의 딸 리브카가 우물에 나타나고 그 종이 구한 바가 모두 현실화되었습니다(15-27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우연히 맞아떨어진 일이요, 약간 종교적인 사람의 눈에는 이 종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비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각본에 짤 듯한’ 과정 가운데서 모든 일을 직접 도맡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늙은 종도 이처럼 모든 필요한 요소를 적재 적소에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안심할 수 있었고, 일을 맡은 늙은 종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땅 위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응답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할 사람은 리브카의 부모 형제와 리브카 본인입니다. 리브카를 통하여 되어진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또 그 늙은 종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라반과 브투엘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임을 시인하는 동시에, 이 종의 제의를 거절할 방도가 없었습니다(28-51절). 사실 사람들은 본인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이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 이 종은 하루라도 빨리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비록 친척과의 혼인이긴 하지만 먼 곳으로 리브카를 시집보내어야 하는 집안 사람들은 다만 며칠이라도 더 그녀를 머물게 하고 싶어하였습니다. 이제 리브카는 이 서로 다른 두 입장 가운데 서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했습니다. 이때 리브카는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바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매정해서가 아니라, 급히 일을 추진하시는 하나님에게 밀려서 그리 결심한 것입니다. 이에 그녀의 가족도 순응하여 그녀를 축복하고 조용히 떠나 보냈습니다(52-60절).

아브라함의 종이 케나안 땅의 남쪽에 위치한 네겟 땅을 떠나서 멀리 하란 땅까지 갔다가 다시 케나안 땅 네겟으로 돌아오려면 몇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나 이즈학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즈학이 ‘저녁 무렵에 들판에서 좀 거닐려고 나갔다’라는 짧은 구절이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리브카가 이즈학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도 바로 이즈학이 들에서 거닐며 묵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리브카는 당시 유목민 여자로서의 예의를 갖추어 이즈학을 만났고, 이즈학은 믿음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여, 리브카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61-67절).

이로써 사람들을 동원하여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시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를 따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혼 중매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소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을 위하여 복과 선을 도모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의 손에 나의 운명을 완전히 내맡기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의 후손 <창세기 25:1-26>

식물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씨를 통하여 자신과 닮은꼴들을 다수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그 수명이 다하여 죽어 썩지만, 출산을 통하여 지상에 태어나는 닮은꼴들이 그 생명을 계속 보존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이동하여 케나안 지역에 들어온 이후, 아브라함은 늘 불안정한 나그네 삶을 살아야 했고, 전쟁도 겪었고, 큰 도시가 불로 망하는

것도 보았으며,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으며, 현지 주민들과의 긴장 관계나 마찰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사 다난했던 그의 나날의 수는 모두 175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흙으로 보내고 3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싸라와 하갈, 그리고 크투라가 낳아준 자손들을 통하여 그는 이 땅에 생명의 종적을 깊이깊이 박아 놓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뿌린 씨앗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뒤늦게 얻은 아내 크투라가 낳은 여섯 아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1-4절). 아브라함이 언제 크투라를 아내로 얻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 미루어 볼 때, 싸라가 죽은 이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크투라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조금씩 떼어 주고 동방으로 이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산은 이즈학에게 물려주었습니다(5-6절). 아브라함은 이즈학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굳이 이즈학과 다른 아들들을 분리시킨 것 같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 길을 마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의 나이 175살이었습니다. 그를 묻는 일은 싸라가 낳은 이즈학과 하갈이 낳은 이슈마엘의 몫이었습니다. 무덤은 이미 아브라함이 싸라를 위하여 준비한 막벨라 동굴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 땅 위에서의 여정을 마쳤지만,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은 땅 위에 남아 있는 아브라함의 씨앗 곧 이즈학을 잘 보호해주시고 복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어기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7-11절).

창세기 25장에서 다음으로 소개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갈이 낳은 이슈마엘 집안입니다(12-18절). 이슈마엘은 12 아들을 낳은 것으로 소개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유추해 볼 때, 이슈마엘 집안은 아마도 일찍부터 행정 조직을 잘 정비하여 탄탄한 사회조직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젊은 날에 이미 척박한 광야로 내몰리어 거칠고 험난한 환경 가운데서 외롭지만 강인하게 살아야 했던 그인지라, 나름대로 낙오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봅니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그는 모든 형제의 맞은 편에 살 것이다”(창세기 16:12)라는 천사의 예언에 걸맞게 이슈마엘 후손은 광야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즈학 집안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즈학은 아브라함의 본부인인 싸라가 늦은 나이에 이르러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에 리브카를 아내로 맞고, 20년 동안이나 자식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즈학을 통하여 손자를 얻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한 번 얼마나 조급하였을까요. 마침내 리브카가 임신하여 출산한 것은 이즈학의 나이 60세, 곧 아브라함이 160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것도 이즈학이 아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19-22절).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브카는 임신했을 때 배가 유달리 무겁고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뱃속의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쌍둥이였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리브카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리브카는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대답을 듣습니다: “두 나라가 네 뱃속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몸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겠고,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리브카의 뱃속에 있던 쌍둥이 두 아이의 운명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결정에 반기를 들기보다는 차라리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드디어 리브카의 출산 기한이 다 왔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불그스레 한데다가 온 몸이 털옷과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뒤따라 나온 아이의 손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야아콥으로 불렀습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은 160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들 이즈학을 통하여 한꺼번에 두 손자를 얻었습니다(23-26절).

이제까지 설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와 닮은꼴들인 자손들을 통하여 생명, 보다 정확히 말하여, 유전자를 유지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서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즈학의 하나님, 야아콥의 하나님’이라고 즐겨 부르십니다. 사실 이제까지의 설명과는 달리 성경은 아브라함이 단지 후손을 통하여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마태복음 22:31-32).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기 거부하십니다. 그는 오직 산 자의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체로서의 아브라함을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영원한 것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태의 생명을 소유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 받는 생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미움과 저주 가운데 영원히 두려워 떠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친구여,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영원히 행복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자권에 집착하는 야아콥 <창세기 25:27-34>

성경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삶과 관계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즈함과 리브카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의 이름은 야아콥과 에서입니다. 최초로 지음 받은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동시에 보통의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인데, 이는 본래 ‘붉다’라는 뜻에서 온 낱말입니다. ‘흙, 땅, 토지’를 뜻하는 ‘아다마’ 역시 ‘붉다’를 뜻하는 어근에서 파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빚으실 때 아마도 불그스레한 흙을 사용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에서의 다른 이름은 에돔인데, 이 역시 ‘붉다’라는 낱말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한편 쌍둥이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안간힘을 써 보았지만, 결국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던 쌍둥이 아우의 이름은 야아콥입니다. 이 이름 뜻은 ‘발꿈치를 잡다’인데, 야아콥은 이름대로 평생 하나님과 사람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붙잡히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이들 쌍둥이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 들판을 누비며 다녔고, 야아콥은 차분한 성격의 사람으로서 주로 천막에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 유능한 사냥꾼이라면 제국주의의 창설자라고 할 수 있는 니르롯처럼 얼마든지 정치적 지도자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쌍둥이 아버지 이즈함은 사냥에 능한 큰아들의 사냥감 요리를 즐겼고, 그를 믿음직하게 생각했습니다. 장차 자기를 이어서 가문의 이름을 세워줄 아들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집에 머물며 집안 일을 도울 줄 아는 야아콥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카는 “두 나라가 네 뱃속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몸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겠고,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작은 아들 야아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은 야아콥이 죽을 쑤고 있었는데, 마침 에서가 들판에서부터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허기에 지친 에서의 눈에는 야아콥이 끓이고 있던 죽이 산해진미보다 더 맛있게 보였습니다. 이 불그스레한 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서 흔히 먹는 렌즈콩(lentil, 扁豆)으로 끓인 죽이었습니다. 에서는 야아콥에게 간청했습니다: “그 붉은 것을 내게 주어 조금이라도 먹게 하라. 내가 피곤하다.” 이 일로 인하여 에서의 별명은 ‘붉다’는 뜻에서 파생한 에돔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아콥의 대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는 마치 미리 짜 놓은 각본에 따라 말하는 것 같이 죽 한 그릇을 요구하는 쌍둥이 형 에서한테 죽을 주는 조건으로 자기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몹시 배가 고팠던 에서는 앞뒤 생각할 겨를 없이 “내가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며, 야아콥의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의 발목을 잡는 집념을 가진 야아콥답게 이번에도 거래를 확실하게 하고자,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일에 대하여 맹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주도면밀한 아우 야아콥 앞에서 사냥꾼 에서, 곧 에돔은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여 빵과 죽을 얻어먹고자,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고 아우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장자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야아콥이 이처럼 이것에 집착하였을까요? 유대인 라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장자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장자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가 되고,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로 말미암아 축복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지정한 것은, 그가 그 자식과 후손에게 명하여 야웨의 길을 지켜 의와 공평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창세기 18:18-19)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즈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집안에서 맏아들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도맡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도 했지만, 잘만 수행하면 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야아콥은 운명하기 직전에 훗날 아들들이 당할 일을 일일이 말하였는데, 그들 중 레비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습니다(창세기 49:5-7). 하지만 그의 후손인 레비 지파는 모세와 아론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하였으며,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 장자권에 해당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의 법도를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다. 주의 법도를 야아콥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릴 것이다”(신명기 33:9-10).

이처럼 가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분향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가르치는 것이 장자권 소유자의 직무라면, 야아콥 곧 이스라엘 민족은 지상의 모든 민족 중 하나님의 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출애굽기 4:22)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유대인의 역사적 운명은 그들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 중의 장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장자권을 완벽하게 수행하심으로써 훗날 그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함 받은’(페트로전서 2:9; 계시록 1:6; 5:10) 그리스도인 역시 장자권의 소유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잘 가르칠 때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다니엘 12:3 참조). 친구여,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장자권을 받아서 그 장자권을 잘 수행하여 빛나는 삶을 살지 않으렵니까.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창세기 26:1-33>

구약 성경 중에 전도서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나서는 맨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이 책은 얼른 보면 허무주의를 표방하는 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생에 진정한 의미와 보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살펴본 이후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전도서 1:9). 실제 인생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전에 아버지가 한 일을 본 적도 없는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즈학도 여러 모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닮은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었는데, 아들 이즈학의 때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런 반응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즈학을 막아서 이집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케난 땅에 머물러 살면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즈학은 폴리슈팀 사람들의 땅인 그랄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랄 땅에서도 폴리슈팀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싸라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폴리슈팀 사람들의 왕을 가리키는 하나의 호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즈학도 그랄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에 자기의 아리따운 아내 리브카에 대하여 묻는 그곳 사람들에게 그녀를 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행여나 그곳 사람들이 아름다운 리브카를 빼앗고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별 일 없이 지내던 중 한 번은 이즈학이 리브카를 애무하는 광경을 아비멜렉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즈학을 불러 그가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을 추궁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의 도덕성을 중시했던 아비멜렉은 이즈학을 힐난하는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 이즈학과 그의 아내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 이즈학 역시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즈학 부자가 이방 땅에 살면서 겪은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인 번영에 따른 현지 사람들의 시기와 방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은 이즈학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부자(父子)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들을 크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즈학은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수확하였습니다. 목축에도 성공하여 가축은 커다란 떼를 이루었고, 남녀 종의 수도 무척 많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거부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일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이 땅에서 모두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요, 반대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것은 믿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중 어떤 이들은 부유하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가난하게 만드시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토티인이라면 부귀를 추구하거나 거부할 필요도 없거니와, 가난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폴리슈팀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된 이즈학을 시기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적이 있었던 그들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의 종들이 뚫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백성의 풍기 문제는 철저히 단속하였던 아비멜렉마저도 경제적인 이권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이즈학과 그의 무리를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즈학에게 떠날 것을 명했습니다. 이즈학은 무리를 이끌고 그랄 땅을 떠나 와디 그랄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와디란 비가 내리지 않는 여름철에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내리는 겨울철에 잠깐만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와디 지역은 다른 곳보다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그곳에 천막을 쳤던 것입니다.

이즈학은 종들을 시켜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뚫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물을 다시 파서 샘물을 얻을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며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주장하곤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남부 네겟과 같이 건조한 지역에서 우물을 파 샘 근원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즈학은 어렵게 판 우물을 두 번씩이나 폴리슈팀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다시 우물을 파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툼이나 편법을 통하여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차라리 손해보며 사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의 지경을 얼마든지 넓혀주실 수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그랄로 갔다가 그곳을 나와 와디 그랄에 살았던 이즈학은 마침내 브엘세바로 이주하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여러 해 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즈학을 번제로 드리고자 말없이 그를 끌고 출발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이 잇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즈학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겠다.” 이즈학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웨께 예배하였습니다. 그 이후 브엘세바는 일정 기간 동안 이즈학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천막도 치고 우물도 팠습니다.

예전에 폴리슈팀 왕이 군대장관을 데리고 브엘세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와 더불어 평화조약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시 같은 일이 이즈학의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폴리슈팀 왕은 하나님이 이즈학과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과는 싸울 것이 아니라, 평화조약을 맺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친구와 군대장관을 데리고 이즈학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이즈학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즈학은 폴리슈팀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은 서로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즈학이 종들로부터 새로 판 우물에 대하여 보고 받은 날도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사건은 또 다시 그곳의 지명인 브엘세바 곧 ‘맹세의 우물’과 연관되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즈학 부자는 여러 면에서 닮은꼴임을 보여줍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살면서 당하는 일까지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함 없이 이들 부자(父子)를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문이야말로 가장 복된 가정이라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자 때문에 <창세기 26:34-27:17>

성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남자 어른을 대상으로 쓰여 있습니다. 등장 인물 가운데 절대 다수도 남자 어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및 근동 사회가 남자 어른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드보라와 에스텔과 같이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한 용감한 여성에 대한 기록도 있는가 하면, 롯이나 한나 등과 같이 조용하게 집안을 일으켜 간접적으로 나라에 공헌한 여자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비록 이처럼 두드러진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으나, 성경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남자가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서도 여성이 뒤에서 남자를 조종함으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났던 솔로몬은 여자들 때문에 한때 타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군(賢君) 다비드는 현숙한 모압 여자 롯이 아니었다면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창기 라합은 두 정탐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에 승리를 안겨주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힘없는 여인 한나의 눈물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슈무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이즈학과 리브카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아콥은 둘 다 여자 때문에 운명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에서는 마흔 살의 나이에 케나안 땅의 여자 둘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때 이즈학의 나이는 이미 100살에 이르렀습니다. 이 케나안 며느리들은 이즈학과 리브카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들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봅니다. 이즈학은 본래 사냥꾼인 에서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두 아내는 이즈학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 우상숭배자가 들어오게 되면 집안 사람중 일부가 우상숭배에 노출되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이후 선지자들의 입에 저주와 멸망의 대명사로 오르내릴 정도로 불행한 길을 걷게 됩니다. 에서의 잘못된 결혼이 그 자신과 그의 후손을 망친 것입니다.

시간은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흐릅니다. 어느덧 이즈학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는 잘 아는 사람조차 분간 못할 정도로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겠다 싶었던 이즈학은 만아들 에서를 불러 축복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에서를 만아들로 인정하는 이즈학의 마음은 처음부터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에서가 ‘붉은 죽’을 받는 대신 자신의 장자권을 야아콥에게 팔았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적인 거래가 이즈학에게 통할 리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이즈학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즈학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집안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만아들인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일종의 유언에 해당하는 축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늙고 눈도 어두워져 몸도 마음도 피곤했던 이즈학은 에서를 불러 분부하기를, “이제 나는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도 알지 못하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들판으로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감을 잡아오너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즈학을 황당하게 하고 에서를 분노케 할 일이 이 ‘맛있는 음식’ 한 상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배후에는 역시 여자가 있습니다.

이즈학이 에서에게 분부를 내릴 때에 리브카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에서는 사냥하러 들판으로 나갔고, 작은 아들 야아콥을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카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두 아들의 운명을 바꿔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 고유의 직감과 민첩함으로 그녀는 일을 서둘렀습니다.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도면밀하게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리브카는 작은 아들 야아콥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내 아들이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염소떼 있는 데로 가서, 새끼 염소 두 마리를 좋은 놈으로 골라서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주겠다.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에게 가져다드리면 그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줄 것이다.” 리브카는 작은 아들 야아콥을 위하여 시력이 떨어진 남편 이즈락을 속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장자권에 관심이 많았던 야아콥이긴 하지만, 어머니의 이런 지시에는 겁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아콥은 어머니 리브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면, 나는 아버지 보시기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은 고사하고, 나 자신에게 저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제안은 지나치게 위험한 일로 들렸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저주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소극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리브카는 집요하게 자기의 계획을 작은 아들 야아콥에게 강요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오직 너는 내 말만 듣고 가서 내게로 가져오너라”는 늙은 어머니 리브카의 말에, 중년이 다 된 야아콥은 결국 어머니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리브카는 재빠르게 남편 이즈락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카는 큰 아들 에서의 옷들 가운데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아콥에게 입혔습니다. 또 리브카는 새끼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야아콥의 손과 그의 목 매끈매끈한 곳 위에 입혀주었습니다. 리브카는 자기가 만든 별미와 빵을 작은 아들 야아콥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야아콥이 눈 먼 아버지 이즈락 앞에서 연극을 시작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든 수단이나 방법이 목적이거나 결과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브카가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작은 아들 야아콥으로 하여금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20년 동안이나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마침내 임신한 리브카는 임신 기간 중 하나님으로부터 “두 나라가 네 뱃속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몸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겠고,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라는 뜻밖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이후로 평생 동안 두 아들에 대한 리브카의 생각과 결정을 지배하였습니다. 리브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작은 아들 야아콥이 아버지 이즈락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일에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리브카의 문제성 있는 행동을 통하여 일부 성취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여자를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소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축복의 내용 <창세기 27:18-40>

쌍둥이 형제 야아콥과 에서의 다툼은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될 정도로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출생에서 뒤진 야아콥은 속임수를 써서 결국 장자권과 아버지의 예언적인 축복을 에서로부터 모두 빼앗았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이즈락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야아콥과 리브카의 속임수를 능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원했던 에서 대신 야아콥을 축복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 리브카의 제의를 받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던 야아콥은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능청스럽게 연기를 해내었습니다. 이즈락은 리브카에게 속기보다는 야아콥에게 속은 것입니다. 야아콥에게 속아서 그를 에서로 알고, 이즈락이 야아콥을 축복한 말은 27-29절에 적혀 있습니다: “보라, 내 아들의 향내는 아웨께서 복 주신 들판의 향내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네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가운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네게 엎드릴 것이다. 너는 네 형제들의 주인이 되어라.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엎드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즈락은 야아콥을 축복하면서, 경제적인 풍요와 영적인 지배권을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축복의 말에 의하면 에서와 그의 후손은 어쩔 수 없이 야아콥과 그의 후손을 섬기게 될 운명입니다. 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복과 화는 야아콥에 대한 태도로 결정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아콥 역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복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야아콥과 그의 후손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슈마엘이 아닌 이즈락에게로 전해졌었는데, 이제 그 동일한 언약이 에서가 아닌 야아콥에게 전해졌습니다. 야아콥은 이제 언약의 책임자로서 이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성실한 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아콥을 변화시키면서까지 이 축복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야아콥이 이즈락을 속여 축복을 받고 그 앞에서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즈락과 에서 부자에게 치가 떨어지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서 이 아들이 사냥한 것을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저를 축복해주세요.” 이즈락이 에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즈학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해주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아버지 이즈학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참지를 못하고 큰 소리로 쓰라리게 통곡하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나를 축복해주세요. 나한테도 해주세요.” 야아콥이 아버지 이즈학을 속여 형의 축복을 탈취한 일은 온유한 이즈학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고, 들판을 누비는 용감한 사나이 에서를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즈학으로서는 이번이 처음 야아콥에게 속은 것이었지만, 에서로서는 벌써 두 번째 속은 것이었습니다. 전에 자신의 장자권을 소홀히 했던 에서는 뒤늦게 크게 후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야아콥을 원망해보았자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 아버지 이즈학에게 매달려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가 이즈학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분노와 허탈에 빠진 이즈학이 대답하기를, “보아라, 내가 그를 너의 주인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또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할당해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이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모리아 산 위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묶인 희생 제물이 되어 이해 못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칼을 묵묵히 기다린 적도 있었던 이즈학은, 이제 힘없고 눈 먼 노년기에 이르러 아들에게 속아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일이 뒤틀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간섭을 느꼈을 법합니다.

더욱 처절해진 에서는 이즈학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복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나를 축복해주세요. 나한테도 해주세요.” 그리고 에서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큰아들의 처절한 슬픔과 통곡 앞에서 인간의 무지와 무력함을 통렬하게 느낀 이즈학은 마침내 입을 열어 에서에 대한 예언을 늘어놓았습니다: “보아라, 너의 거주지는 땅의 기름짐과, 위로는 하늘의 이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는 네 칼을 의지하여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난폭해질 때에는 그의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39-40절).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번역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대의 많은 역본들은 위의 39절에서 에서가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구절을 위에 적은 것처럼 긍정적인 내용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반대되는 견해 차이는 히브리어 전치사인 ‘뎀’(נ)이라는 한 글자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야아콥에 대한 축복(28절)과 문제의 39절은 두 구절 모두 순서만 다를 뿐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28절과 39절에 나오는 이 동일한 전치사를 서로 다른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7장의 전반적인 문맥과 이후 에서의 자손(에돔 족속)이 실제로 살았던 척박한 자연 환경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서가 방성대곡하면서 자기도 축복하여 달라고 졸라댔 때, 아버지 이즈학은 “또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할당해주었다. 그러니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37절)고 부정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서는 비옥한 자연환경을 뜻하는 ‘땅의 기름짐’이나 ‘하늘의 이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며, 또 역사상 실제로도 그런 혜택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해석에 쉽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즈학이 야아콥을 위하여 빌 때에, 이런 경제적인 복의 근원을 야웨 하나님께 두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웨께서 복 주신’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이슬과...’라는 구절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해줍니다. 그러나 에서의 경우, 동일하게 비옥한 자연환경을 들어 축복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6:6-8에 의하면, 에서 역시 야아콥과 마찬가지로 소유가 풍부하여 결국 야아콥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세일산으로 가서 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경제적인 풍요를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재물이 그 소유주에게 진정한 행복이나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에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약속 받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에서에게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의 예언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너는 네 칼을 의지하여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난폭해질 때에는 그의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40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친구여, 그대는 어느 길을 택하십니까?

순종의 길과 자신의 길 <창세기 27:41-28:9>

이즈학이 야아콥을 축복해준 사건은 야아콥과 에서 쌍둥이 형제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야아콥에 대한 에서의 증오심은 날마다 더해만 갔습니다. 에서는 속으로 다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 이르기만 하면 내가 내 아우 야아콥을 죽이고 말겠다”고 했습니다. 쌍둥이 형제 사이가 원수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이 집안의 문제는 ‘장자권’과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간발의 차로 먼저 태어나서 이미 자격을 갖춘 에서는 이

일을 하찮게 여겼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았고, 뒤늦게 태어나 자격이 없었던 야아콥은 본인의 의욕과 어머니 리브카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크리스트를 믿어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자격을 획득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복음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크리스트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편에서 있는 것입니다.

눈치 빠른 리브카가 큰 아들 에서의 의중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들 야아콥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 자, 내 아들이야, 내 말을 듣거라. 너는 당장 하란에 있는 네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하거라. 네 형의 노여움이 풀리기까지 당분간 외삼촌과 함께 살아라. 너에 대한 네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그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데려오겠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을 수 있겠느냐?” 리브카는 야아콥이 ‘당분간’만 도망가 있으면 그를 데려오겠노라고 약속하였으나, 그 ‘당분간’이 20년이나 되어 버렸습니다(창세기 31:41). 더군다나 야아콥이 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리브카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리브카가 살아 생전에 사랑하는 아들 야아콥을 다시 볼 수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리브카가 언제 어떤 상황으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에는 그녀가 막벨라 동굴에 묻혔다는 기록만 전합니다(창세기 49:31).

리브카는 어머니로서 끝까지 작은 아들 야아콥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리브카는 주변 돌아가는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비상한 능력이 있고, 모든 일을 직접 주관하고자 하는 성향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굳은 의지는 마침내 작은 아들 야아콥을 설득하고 남편 이즈락을 속이면서까지, 아니 심지어는 자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까지 감수하면서 야아콥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야아콥에 대한 그녀의 편애와 보호가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계를 느낀 나머지, 야아콥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고자 했으며, 그 이후로 영원히 야아콥은 어머니 리브카의 영향권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세상일을 내 손아귀 안에 다 넣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모든 일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긴 채 그분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바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자신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리브카의 분주한 움직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온유한 성향의 남편 이즈락을 설득할 목적으로 그에게 “내가 헤트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 맛이 없는데, 만일 야아콥마저 이 땅의 딸들, 곧 이들과 같은 헤트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온다면 내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에서가 아내로 취한 케나안 여자들 때문에 골머리 앓던 이즈락인지라, 리브카의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즈락은 야아콥을 불러 그를 축복해주고, 또 그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너는 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아라. 너는 당장 파단아람에 있는 너의 외할아버지 브투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도록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네가 여러 족속의 무리를 이루기를 바란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주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즈락은 전에 비록 아내와 아들에게 속아 야아콥을 축복해주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야아콥은 여전히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당당하게 아버지 이즈락의 축복을 확인하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어머니 리브카의 용의주도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야아콥은 자기를 둘러싸고 일어난 형 에서의 그릇된 선택과 집요하게 일을 꾸민 어머니에 힘입어 고향을 떠나지만, 그는 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야아콥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어찌 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서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태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제물보다는 순종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한편 아버지 이즈락이 야아콥을 축복해주고 또 그를 파단아람으로 떠나보내면서 거기서 아내를 얻도록 하였다는 것을 듣게 된 에서는 자기 부모님이 케나안 며느리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 이즈락의 배다른 형인 이슈마엘에게 가서 이미 얻은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슈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 이즈락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이즈락이 기뻐하였지는 모르겠으나, 에서는 아내의 수만 늘렸을 뿐, 이미 얻은 케나안 여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에서는 이처럼 자기의 욕망과 판단과 지혜대로 움직였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람의 길은 사람 스스로 어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복된 길은 자신의 힘을 믿고 스스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힘있고 보람

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어 사는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무슨 상황이든지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아콥 <창세기 28:10-22>

야아콥은 드디어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연대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성경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때 야아콥의 나이가 77세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에 나는 이 지면을 통하여 ‘창조년’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창조되던 해를 원년(0년)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연대를 가리켜 라틴어로 ‘아노 문디’(Anno Mundi: 약자로 AM이라고 표기)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세상의 해(연도)’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따라, 이즈학의 출생부터 요셉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연대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50 AM (1951 BC): 이즈학 출생 (창21:5).

2090 AM (1911 BC): 이즈학 리브가와 결혼하다 (창25:20).

2110 AM (1891 BC): 야아콥과 에서 출생 (창25:26).

2150 AM (1851 BC): 에서가 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다 (창26:34).

2186 AM (1815 BC): 야아콥(77세)이 에서를 속인 후 도망하다 (창27:1-45).

2193 AM (1808 BC): 야아콥(83세)이 레아와 라헬을 취하다 (창29:20-30).

2193-2200 AM (1808-1801 BC): 야아콥의 11남 1녀 출생 (창29:31-30:24).

2200 AM (1801 BC): 요셉 출생 (창30:24).

2206 AM (1795 BC): 야아콥의 케나안 귀환 (창31:20,41).

2211 AM (1790 BC / 추정에 의함): 벤야민 출생, 라헬 죽다 (창35:18-19).

2217 AM (1784 BC): 요셉 이집트로 팔려가다 (창37:2).

2228 AM (1773 BC): 파라오 신하들의 꿈을 해몽 (창41:1).

2230 AM (1770 BC): 요셉이 총리에 오르다 (창41:46).

2238 AM (1763 BC): 흉년 제1년 시작 (창41:53-54).

2239 AM (1762 BC): 야아콥의 아들들 곡물 사러 1, 2차 여행 (창42:1-45:28).

2240 AM (1761 BC): 흉년 제3년 시작, 야아콥 가족 이집트로 내려오다 (창45:6, 11).

2240 AM (1761 BC): 야아콥의 파라오 알현 (창47:9).

2257 AM (1744 BC): 야아콥 죽다 (창47:28).

2310 AM (1691 BC): 요셉 죽다 (창50:22, 26).

야아콥은 147세의 나이에 죽었으니, 77세는 그의 중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야아콥은 이 중년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자기 집안도 세우지 못하고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보지도 못한 객지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여야 하는 야아콥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어느 정도 상상이 됩니다. 장자권과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에 대한 그의 집착도 이제 와서는 허무한 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야아콥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야아콥의 경우 하나님은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한글 개역판 성경의 번역과는 달리, 유대인들이 전하는 맛소라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야아콥이 하란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해가 질 무렵 이른 곳은 ‘한 곳’이 아니라, ‘그 곳’이었습니다(11절). 그는 그곳 들판에서 돌을 베개삼아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또 야웨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도 보였는데, 그분이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야웨, 곧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즈학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것이요, 지상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야아콥이 염려하던 야아콥 자신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 대한 일까지 설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야아콥을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보호하심과 영원한 복까지 약속하신 일은 인간 야아콥으로서는 이해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사람과 경쟁하며 사람과 싸워왔던 야아콥으로서는 신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록 꿈을 통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방문과 약속은 야아콥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아콥이 한편으로는 감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 떨면서 말하였습니다: “정말로 야웨께서 이 곳에 계신데,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구나. 정말 두렵구나. 이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향하는 문이구나.” 야아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머리 아래에 받쳐두었던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곳의 이름을 베트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새로운 이름은 그 자리에서 야아콥이 서원한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내게 주시며, 나로 하여금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웨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십분의 일을 떼어 반드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야아콥이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후 ‘베트엘’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이곳이 창세기 12:8 에 나오는 같은 이름의 ‘베트엘’ 그곳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인지를 알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 라비들은 11절에서 정관사가 붙어서 ‘그 곳’이라고 읽혀지는 점에 착안하여 이곳을 이미 알려진 곳, 곧 모리아 산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즈락을 번제로 바치고자 그를 데리고 브엘세바를 떠나 모리아 산으로 향한 일과 이 일을 연관시킨 것입니다(창세기 22장 참조). 만일 그들의 해석이 맞는 것이라면, 이곳은 훗날 솔로모의 성전이 들어서는 모리아, 곧 예루살렘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친구여, 그대는 인생의 거친 들에서 당신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나는 모든 길목 길목에서 그 자리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감사하는 자리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옛적에 꿈에서 야아콥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지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서 당신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경쟁과 싸움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사랑의 하나님께로 향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늘로부터 드리워놓고 당신에게로 다가올 사다다리를 기대해 보십시오.

야아콥의 아내 얻기 <창세기 29:1-30>

우리는 앞서서(창세기 24장) 이즈락이 어떻게 아내 리브카를 얻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즈락은 본인의 노력보다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결정과 주선에 의하여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아콥의 경우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 가서 그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부모의 지시말고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여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즈락의 혼인을 위하여 누가 보더라도 탐낼 만큼 값지고 많은 분량의 예물을 가지고 갔지만, 야아콥은 한편으로는 도망하는 처지인지라 빈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카를 처음으로 만난 곳이 우물가였듯이, 야아콥 역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우물가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유목민 사회에서 우물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쉬운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우물과 관련하여 또는 우물가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물 때문에 분쟁도 생길 수 있었지만, 반대로 남녀간의 애정이나 혼사도 우물가에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야아콥이 라반의 동네 가까운 곳 우물가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는 양떼들과 목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야아콥이 그 사람들에게 라반에 대하여 묻고 있을 때, 마침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몰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의 목축 사회에서 여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물에 먼저 도착한 야아콥은 자신보다 늦게 도착한 라헬을 맞아, 비록 처음으로 보는 얼굴이긴 하지만, 그녀를 위하여 우물 입구에서 돌을 옮겨놓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아콥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물론 야아콥은 라헬에게 자기가 리브카의 아들로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조카가 됨을 알려주었습니다. 야아콥의 울음은 살기(殺氣) 가득 찬 형 에서의 손아귀로부터 도망 나와 먼길을 여행한 후 마침내 기댈 수 있는 친척을 찾았다는 기쁨과 77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정도 꾸리지 못한 서러움 등이 범벅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리브카의 아들 야아콥이 하란 땅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라헬을 통하여 바로 라반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우물가에서 만났던 리브카가 부모 집으로 달려가서 집안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려준 것처럼, 라헬 역시 집으로 달려가서 야아콥이 왔다는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한편 라반은 예전에 누이 리브카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맞이한 것처럼, 이번에도 딸 라헬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나와서 야아콥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대략 100년의 간격을 두고 비슷한 일이 라반에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라반은 리브카의 몸매 새롭게 부착된 값진 장신구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끌고 온 많은 결혼 지참금 때문에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라반은 무언가 큰 것을 야아콥에게서 기대했을 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망스럽게도 혈혈단신 빈 몸으로 온 조카 야아콥을 만나야 했습니다. 어쨌든 라반은 야아콥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번 경우 라반은 다만 야아콥이 혈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야아콥에게 “정말로 너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야아콥으로서는 결혼 얘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라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친척 관계라고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돈과 재물은 사람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처음 만날 때의 감격도 사라진 채 그럭저럭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야아콥은 라반을 도와 이 일 저 일을 했습니다. 야아콥이 라반과 함께 거한지 한 달이 되던 때에, 라반이 야아콥에게 제안하여 내놓은 말은 혼삿말이 아니라,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의 조카라고 해서, 네가 어찌 공짜로만 내 일을 하겠느냐? 내게 말하라. 무엇으로 네 삯을 주어야 하겠느냐?”

야아콥이 외삼촌 집에 온 목적은 형 에서로부터의 도망도 도망이지만, 무엇보다 부모님의 지시를 따라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라, 그동안 숙내를 비치지 못하였었는데, 마침내 외삼촌의 질문은 그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회를 포착하여 이용하는데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던 야아콥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칠 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눈이 좋지 않았으나, 라헬은 생김새도 예쁘고 보기에도 아리따웠습니다. 야아콥은 처음 우물에서 만났던 라헬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재물에 관심이 많았던 라반은 야아콥의 대답에 만족하였습니다. “라헬을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살자꾸나”라는 라반의 약속의 말에, 야아콥은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야아콥은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칠 년도 불과 몇 날처럼 보였습니다. 실로 야아콥의 인내심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어 야아콥은 라반에게 약속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뽀싸, 라반은 야아콥을 속이고 혼인식 날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비통한 사실을 알게 된 야아콥의 거친 항의에 라반은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보내는 일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또 다른 칠 년의 노동을 조건으로 이레 후에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아콥은 할 수 없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레 후에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또 다시 칠 년의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이리하여 집을 떠난 지 칠 년 만에 야아콥은 바라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라헬과 레아 두 자매를 아내로 얻었으며,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이들 두 자매의 아들 낳기 경쟁 때문에 그들에게 종으로 딸려 온 실과와 빌하라는 여인들까지 품안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아콥의 나이는 이미 당시 수명으로 보아 장년이라고 할 수 있는 80대 중반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야아콥이 그랬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자 여러 해를 수고하면서도 그 기간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권과 그에 따른 집안의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분투하였던 야아콥은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고자, 냉정하고 심지어는 교활하기까지 한 외삼촌 라반을 14년이나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고는 보상을 받았습니니다.

야아콥이 아내를 얻는 이야기는 여느 사람들의 이야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와 흡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가정을 이루고 꾸려나가고자 열심히 일을 하여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 돌보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동안에는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감내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고 자녀들에 대하여 실망할 때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또는 때로는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수고한 후에, 다 지나고 나면 지나간 날들이 ‘힘한 나그네 세월’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수고하는 인생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보지 않으렵니까.

두 자매의 아들 낳기 경쟁 <창세기 29:31-30:24>

성경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생각 중 하나는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비슷한 면이 많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둘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므로 성경 중에서 ‘인간적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억지로 ‘비인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야아콥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야아콥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야아콥의 일을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에 대한 야아콥의 편애를 간파하시고, 남편으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목축 사회에서 자식,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은 큰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아로서는 아들을 낳아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녀가 처음 야아콥에게 낳게 된 아들을 그녀는 ‘르우벤’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아라. 아들이다’라는 뜻의 이 이름은 일부다처제의 목축 사회에서 아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첫 아들을 얻은 레아는 이 일을 기회로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야웨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레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고, “야웨께서는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이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레아의 관심은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시므온이란 ‘들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라헬에 대한

야아콥의 편에는 여전했던가 봅니다.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말하기를, “내가 내 남편에게 세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는 내게 달라붙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레비라고 불렸습니다. 레비라는 이름은 ‘달라붙다,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아콥이 라반의 집에 들어 온 이후로 레아와 라헬 두 자매는 본의 아니게 경쟁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혼인 전 야아콥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면서,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에 등을 밀려서 동생을 대신하여 신방에 들어갔던 레아는 쉽게 야아콥의 노여움을 풀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는데, 야아콥이 그녀를 사랑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레아는 줄기차게 남편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레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레아가 네 번째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는 “이번에는 내가 야웨를 찬송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예후다라고 불렸습니다. 예후다란 ‘찬송받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때 레아는 잠시 남편 사랑 추구하는 일을 단념하고,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아의 감사와 찬양과 더불어 그녀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해산의 수고가 잠시 멈춘 것입니다.

이처럼 레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간섭도 알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만 추구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동안에, 라헬 역시 하나님의 간섭을 알지 못하고 자기 언니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녀의 질투의 화살은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도 아이들을 낳게 해주소.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죽어버리겠어요.” 라헬의 억지에 야아콥은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나더러 하나님을 대신하란 말이요? 당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이는 하나님이지요.” 이때 라헬에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 그녀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 자신의 이름 아래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와의 경쟁을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라헬의 몸종인 빌하는 야아콥의 아내가 되어 야아콥에게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빌하가 첫 아들을 낳자,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또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렸습니다. ‘단’이란 ‘판단’ 또는 ‘심판’을 뜻합니다. 라헬은 아기 낳는 일을 순전히 언니와의 경쟁으로만 간주했던 것입니다.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아콥에게 낳자, 라헬은 “내가 나의 언니와 운명적인 경쟁을 벌여 이겼다”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나프탈리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씨름, 몸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 레아라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자기의 여종 실파를 야아콥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두 자매의 아들 낳기 경쟁에 그녀들의 두 여종까지 끼여 들게 된 것입니다. 레아의 여종 실파도 야아콥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실파가 첫 아들을 낳자, 레아는 “내게 행운이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불렸습니다. ‘갓’이란 낱말은 ‘행운’ 또는 ‘군대’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를 뜻하는 듯 합니다. 실파가 둘째 아들을 낳자, 레아는 “나는 행복해라. 여자들이 나를 가리켜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셀’이란 이름은 ‘행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자매의 아기 낳기 경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한 아들까지도 이 경쟁에 관여했습니다. 르우벤은 레아가 낳은 큰아들일 뿐만 아니라, 야아콥의 모든 아들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입니다. 한 번은 밀을 거두는 철에 르우벤이 들판에 나가서 합환채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란 지역에서 ‘밀을 거두는 철’은 보통 우리의 5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합환채’로 번역된 히브리어 낱말 ‘두다임’은 그 어근이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식물이 여자의 출산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르우벤은 합환채를 채취하여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 어머니와 작은 어머니 라헬 사이의 아기 낳기 경쟁에 일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합환채 소식을 접한 라헬은 레아에게 ‘언니 아들의 합환채 중에서 자기에게 조금만 달라’고 강요했습니다. 경쟁에 몰두한 그녀는 여전히 억지부리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레아의 대답이 고분고분할 리 없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마저도 차지하고자 하느냐?” 레아가 거절하자 라헬은 협상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이 협상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품목’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야아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니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밤 남편이 언니와 함께 자도록 해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야아콥이 저녁에 들판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게로 들어오시오.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를 주고 당신을 샀습니다.” 아무리 일부다처주의가 유행하던 시대요 그런 사회라고 하지만, 한 남자가 여자를 넷씩이나 거느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아내의 거래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야아콥은 그 밤에 레아와 동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남편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레아의 사정을 들어주셨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아콥에게 낳았습니다. 레아는 “내가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칼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사칼’이란 ‘품삷을 주다, 대가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아콥에게 낳았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내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그가 내게 잘해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스불론’은 ‘존중받다, 대우받다’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레아는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딸은 훗날 야아콥 집안의 큰 우환거리를 불러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하나님은 라헬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사정을 들어주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거두셨다”라고 하면서, 그녀가 처음으로 낳은 이 소중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이란 ‘그가 더하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 뜻대로 라헬은 “야웨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는 소원을 말합니다. 이상 야아콥의 열 한 아들은 모두 하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막내인 벤야민만 뒤늦게 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열 둘’에 합류합니다.

이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쟁 사회에서 하루 하루를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인간의 이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의 간섭은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인생의 경쟁에서 잠시 눈을 돌려 인간 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관계를 펼쳐보기를 권합니다. 그리하면 당신의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답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인생 관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누구보다도 당신의 가장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야아콥의 재산 불리기 <창세기 30:25-43>

라헬을 얻기 위하여 일곱 해씩이나 종노릇했으나 대신 레아를 얻었던 야아콥은 자기가 원했던 라헬을 위하여 또 다시 일곱 해를 수고하여야 했습니다. 첫 일곱 해는 혼자의 몸으로, 두 번째 일곱 해는 두 아내를 거느린 가장으로서 보냈습니다. 이 두 번째 일곱 해 동안 열 한 명의 아들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두 아내로 인해 두 명의 첩까지 얻었습니다. 가족의 수로 보자면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현실 속에서 분투하며 고생할 때는 잊고 있다가 좀 여유가 생기면 무언가 그리움이 떠오르는 것 아닌가 합니다. 야아콥은 자기가 태어나 자랐으며 또 부모가 계신 고향 땅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오랫동안 불임을 면치 못하다가 마침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러한 야아콥의 그리움은 그 정도가 더욱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이처럼 말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 지방 내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내가 외삼촌을 섬기고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가게 해주세요. 내가 외삼촌을 섬기면서 한 일은 외삼촌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야아콥은 합법적으로 얻은 아내들과 자식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재산까지 얻어갈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색한 성격의 라반이 야아콥에게 쉽게 재산을 내어줄 리도 없었고, 그렇다고 훌륭한 인력인 그를 떠나보내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라반의 다음과 같은 대답은 이 사실을 잘 확인해 줍니다. “네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더 머물러 있어라. 내가 점을 쳐보니, 야웨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더구나.” 라반이 얼마나 성실한 마음으로 야웨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에게는 여전히 ‘점치는’ 일과 같은 이교도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라반은, 야아콥을 조금이라도 더 잡아놓고 싶은 마음에서,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내게 네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인색한 외삼촌에게서 선물조의 재산은커녕 그 무엇도 얻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간파한 야아콥은 그와 협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아콥이 라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았는지 외삼촌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적었는데, 이제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로 행하든 야웨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안을 위하여 재산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말에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네게 줄까?”

이때, 야아콥은 미리 준비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아주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외삼촌은 아무 것도 내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주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고 지켜주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모든 양떼 가운데 다니면서, 거기 양들 중에서는 점이 있거나 얼룩진 양 전부와 갈색 어린양 전부, 그리고 염소들 중에서는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놈들을 전부 가리어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품삯이 될 것입니다. 훗날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정직함이 외삼촌 앞에서 나를 증명해줄 것입니다. 염소들 중에서 점이 없거나 얼룩지지 아니한 모든 놈과 양들 중에서 갈색이 아닌 놈이 내게 있으면 다 훔친 것으로 인정해도 됩니다.”

근동 지방의 양은 보편적으로 단순히 흰털을 가진 것이 많고, 염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갈색(또는, 검은 색)의 털을 가진 것이 많다고 합니다. 점이 있거나 얼룩지거나 또는 갈색 털을 가진 양은 많지 않고, 또 흰색 바탕에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염소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로 보건대, 야아콥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야아콥인지라, 지난 14년의 목양 경험을 통하여 그는 나름대로의 지식을 축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야아콥의 심중을 읽을 수 없었던 라반은, 아마도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즉시로 “보아라, 네 말대로 하려무나”라고 대답함으로써 야아콥의 협상에 응했습니다.

라반은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날 라반은 수 염소들 중에서 줄무늬가 있고 얼룩진 놈들과 암 염소들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진 모든 놈들, 다시 말해서 하얀 색깔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모든 염소들, 그리고 양들 중에서 갈색인 모든 놈들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라반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자기와 야아콥의 사이를 사할 길이나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제 야아콥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전히 갈색인 염소떼와 흰색인 양떼만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과 같은 색깔의 양이나 염소만 태어난다면 야아콥은 재산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아콥에게는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때죽나무와 아몬드나무와 밤나무의 축축한 새 가지들을 꺾어다가, 그 하얀 줄무늬 껍질을 벗겨내고 그 나뭇가지들의 하얀 부분을 드러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껍질 벗긴 나뭇가지들을 양떼가 와서 물을 마시는 물그릇으로 쓰이는 구유들 안에 두어서 양떼들과 마주하게 하였습니다. 보통 양떼들은 물을 마시러 올 때에 짹짹기를 하였는데, 양떼들이 그 나뭇가지들 있는 데서 짹짹기를 하므로, 양떼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얼룩진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나의 알파한 생물학적 지식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잘 설명할 수는 없으나, 야아콥은 나름대로 그간 축적한 경험에 의지하여 자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듯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 야아콥은 자기 삶에 해당하는 그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런 양떼들로 하여금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온통 갈색인 놈들하고 마주 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를 위한 양떼를 따로 만들어갔으며, 그것들이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조심하였습니다. 더욱이 토실토실한 양들이 짹짹기를 할 때면 언제든지 야아콥은 그 양들이 볼 수 있도록 구유에다가 껍질 벗긴 나뭇가지들을 두어, 양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 곁에서 짹짹기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실비실한 양인 경우에는 그 나뭇가지를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해서 비실비실한 놈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토실토실한 놈들은 야아콥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야아콥은 대단히 번창하여, 양떼와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순전히 야아콥의 노력과 지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후에 야아콥 본인이 고백하는 것처럼(창세기 31:8-13),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고, 어떤 이들은 본인의 노력과 지식과 지혜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자신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까지 포함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부자를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야아콥의 재산 불리기’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에 대하여는 라반 뿐만 아니라 야아콥 역시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재물 때문에 갈등이 있고, 노동의 대가를 놓고 협상을 합니다. 모두가 돈이 필요하고 돈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세상에 사는 동안, 헛되게 ‘점치며’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남들을 이용하거나 남들에게 인색하게 굴기보다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재물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며,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인 인간 세상 <창세기 31:1-16>

야아콥의 가족이 건강한 놈으로만 눈에 띄게 점점 늘어나면서, 사할 길이나 떨어져서 자기 아버지 양떼를 돌보던 라반의 아들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은 꼭 한민족의 정서만을 반영하는 말은 아닌 듯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기뻐하지만, 남, 그것도 경쟁자로 간주되는 이가 잘 되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기란 그리 쉬운 일도 자연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야아콥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것으로 이 모든 재산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들의 말이 야아콥에게도 들렸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아콥이 재산을 불린 것을 정당한 노력과 지혜의 대가로 생각하기보다는 부당한 도적질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 자신이 야아콥이 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족을 늘렸다면, 그들은 이를 정당한 방법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야아콥이 직면했던 어려움은 처남이면서 사촌인 이들의 비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의 태도 역시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라반의 태도가 야아콥에게 대하여 예전과 같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일찍이 라반은 자기 재산이 불어난 일에 대하여 야아콥의 공로를 인정하여, “네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더 머물러 있어라. 내가 점을 쳐보니, 야웨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더구나”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남 때문에 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좋지만, 자기 것을 통하여 남의 재산까지 텅달아 불어나는 것은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세상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료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절벽에 부딪친 야아콥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웨 하나님께서 야아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의 땅, 곧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밝은 빛처럼 우리의 인생을 밝혀줍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싸움터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들어올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는 사람은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방향 설정을 하게 된 야아콥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러내었습니다. 아내들은 어쨌든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녀들의 의중을 알아보고 또 필요하면 그녀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아콥이 그녀들에게 이처럼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태도를 보니 내게 대하여 예전과 같지 않소. 하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나는 내 힘을 다하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소.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었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내게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소.” 아내들 앞에서 자기의 장인, 곧 그녀들의 친정 아버지를 비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는 그동안 마음에 묻어 두었던 말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말문을 연 야아콥은 계속하여 자신의 가족이 불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점 있는 놈들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점 있는 놈들을 낳고, 또 ‘줄무늬 있는 놈들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줄무늬 있는 놈들을 낳았소.”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임을 야아콥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야아콥은 계속하여 이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들 아버지의 가족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한 번은 양떼가 짹짹기를 할 때에 내가 꿈속에서 눈을 들어 보니, 양떼 위에 올라탄 숫염소들은 다 줄무늬 있는 놈, 점 있는 놈, 얼룩덜룩한 놈이었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아콥아!’ 하고 내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소. 천사가 이처럼 말했소.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 위에 올라탄 숫염소들은 다 줄무늬 있는 놈, 점 있는 놈, 얼룩덜룩한 놈이다. 라반이 네게 해온 모든 일을 내가 보았다.’”

야아콥은 이처럼 꿈속에서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재산 증식이 결코 인간의 이기적인 동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탈취나 약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인색한 라반과 그 밑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야아콥 사이의 불공평한 관계를 보시고, 야아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야아콥은 하나님의 확실한 지원과 비호 아래, 자신의 지혜와 근면 성실함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려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으로서 야아콥은 아내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파단아람을 떠나 자기의 고향 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그 천사를 통하여 “나는 베트엘의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을 한 적이 있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성실성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자신이 내뱉은 말에 성실한 사람, 이기심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남들을 상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야아콥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보면 ‘편애’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야아콥에게 주문하시는 바는 한 마디로 ‘그 자신의 말에 성실하여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토티안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성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웃에게 잔잔히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아콥의 설명은 라반의 딸이자 그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아니 그녀들이 오히려 야아콥보다 훨씬 더 분개하며 친정 아버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녀들은 야아콥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무슨 몫이나 유산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마저 다 먹어치웠으니, 우리는 그에게 낯선 사람이 된 꼴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여자들의 말은 또 다시 인간의 이기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피차간의 사랑과 이해와 존중으로 맺어져야 할 부녀 관계가 돈에 좌우되는 상업관계로 변한 것은 단순히 라반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사 라반이 그렇다할지라도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인생의 경쟁자요 더 나아가서는 파렴치한 약탈자로 내모는 것은 그녀들 자신의 이기심의 발로라고 하겠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아콥의 편에 서서 ‘우리 것’을 주장하고, 또 야아콥이 일러준 말대로 고향과 아버지를 떠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아콥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물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행하세요”라는 그녀들의 말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본래 라반의 딸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야아콥의 아내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 관계는 돈에 따른 줄서기 및 편짜기로 얽히고 설켜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가장 비이기적(非利己的)이고 가장 이타적(利他的)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기심이 몸에 밴 사람들은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그분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주(主)와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 행복의 최고봉입니다. 친구여, 그대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두가 죄인인 인간 세상 <창세기 31:17-55>

아내들의 지원에 힘입은 야아콥은 마침내 2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외삼촌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리브카는 야아콥을 떠나보내며, ‘당분간만 도망가 있으면 그를 데려오겠노라’고 약속하였으나, 그 ‘당분간’이 20년이나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불려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아콥이 케난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즈학에게로 향하였다’는 기록을 통하여 볼 때(18절), 그의 어머니 리브카는 이미 고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야아콥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야아콥이 라반의 ‘마음을 훔친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한편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 있는 틈을 타서, 자기 아버지 소유의 집안우상을 훔쳐냈습니다. 이 일은 성숙하지 못한 야아콥 부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야아콥에게는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고, 라헬은 우상숭배의 습관을 완전히 떨구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야아콥의 대부대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 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셋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야아콥이 도망한 일을 알게 된 라반은 집안의 장정들을 데리고 이레 길이나 야아콥의 뒤를 쫓아가, 길르앗 산지에서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야아콥은 몇몇하지 못하게 ‘라반의 마음을 훔쳐’ 도망한 일로 인하여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해주시킵니다. 이 위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밤에 꿈속에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함부로 야아콥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위협적인 지시에 라반은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이나 애초의 분노에 비하면 상당히 너그럽게 야아콥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몰래 내 딸들을 마치 칼로 포로를 잡아가듯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는 나 몰래 도망하였으며, 나를 속이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기쁘게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보내지 않았겠느냐? 너는 심지어 나로 하여금 내 손자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춰 작별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내가 이처럼 행한 것은 실로 어리석은 것이었다. 내게 너희를 해칠만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함부로 야아콥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여 떠나는 것은 좋은데, 무엇 때문에 내 수호신들을 훔쳤느냐?”

야아콥은 이처럼 도망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한편 라반의 수호신에 대하여는, 라헬이 그것을 훔친 줄을 전혀 모르고 있던 야아콥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외삼촌의 수호신들은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나한테 있는 것이 보이면 가져가십시오.” 마침내 라반의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야아콥의 천막을 뒤지고, 그 다음에는 레아의 천막과 두 여종의 천막을 차례대로 뒤졌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수호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반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다운 라헬의 임기응변적 속임수는 결코 자랑스러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훔친 그 집안 우상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속에 넣고는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천막 전체를 살살이 뒤지고 아무런 성과 없이 나오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제가 마침 월경중이라서 아버지 앞에서 일어날수 없으니, 어르신은 노여워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자, 이제야 야아콥이 오히려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내게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이 내 뒤를 불같이 급히 쫓아오신 겁니까? 외삼촌이 내 모든 물건을 살살이 뒤져보았는데, 외삼촌 집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았습니까? 여기 나의 형제들과 외삼촌의 형제들 앞에 이 일을 내놓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둘 사이에 잘잘못을 가리게 합시다. 내가 지난 스무 해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외삼촌의 양떼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고, 또 외삼촌의 양떼 중 수양들을 가지고 내가 잔치한 일도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물려 찢긴 놈이 있을 때에는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또는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은 내게 그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종종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것이 스무 해나 되는데,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열 네 해,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여섯 해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내 품값을 열 번이나 바꿔쳤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즈학이 경외하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고생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신 겁니다.”

한 풀 꺾인 라반은 야아콥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오늘 이들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르겠느냐? 자, 이제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를 삼자.” 이에 야아콥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옆에는 돌들을 가져다가 한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돌무더기 곁에서 함께 화해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 돌무더기는 ‘증거의 무더기’라고도 불리고, 또 ‘지켜보다’라는 뜻의 ‘미쯔파’라고도 불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할 때에 야웨께서 나와 너 사이에

지켜보시기를! 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 말고 다른 아내들을 두면, 어느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지만, 보아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아라. 또 이 기둥을 보아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악한 목적으로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지 않을 것이요, 너 역시 악한 목적으로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훔의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들이 우리 사이에 판결하시기를!”이라는 라반의 말은 그 이름의 유래를 잘 설명해줍니다.

야아콥은 그 날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아버지 이즈학이 경외하는’ 야웨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라반과의 식사도 그리고 그와의 언약도 제사 행위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을 하였습니다. 라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들과 자기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을 축복해 주고, 길을 떠나 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야아콥의 허물이 덮여지고, 라반의 분노가 수그러진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생을 지켜보십니다. 특별히 땅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죄인임을 보시고 실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라반 뿐만 아니라, 야아콥도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라반은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간으로 남아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비록 종교가 있긴 하지만, 종교든 신(神)이든 역시 그의 인생의 보조수단 내지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살아 있는 ‘100%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야아콥은 다릅니다. 그는 허물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더 큰 도움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아콥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여, 그대는 이 둘 중 어느 편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그대의 인생을 맡겨보지 않으렵니까?

온 몸으로 하나님과 겨룬 이스라엘 <창세기 32:1-32>

고향을 떠난 도망의 길 20년은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야아콥은 총 147년을 산 사람으로서, 130세 이후 죽기까지 17년은 이집트 땅에서(창세기 47:9,28),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산 것은 이미 언급한대로 20년에 이릅니다. 따라서 그의 타지 생활은 도합 37년으로서 전 생애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간 야아콥의 귀향은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각색 가축을 끌고 가야만 하는 머나먼 길의 위험은 그보다 치더라도,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형 에서의 해묵은 분노를 대면하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야아콥의 두렵고 답답했던 심정은 창세기 32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작별하고 길을 진행하는 야아콥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만나줍니다(1-2절). 야아콥은 그들을 보고는 “이는 하나님의 진(陳)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두 개의 진’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는 무수히 많은 천사의 무리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한편 야아콥은 세일 땅 에서에게 종들을 미리 보내어 그의 노여움을 풀어볼까 하였는데, 종들이 가져온 소식에 의하면,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아콥을 만나려고 오고 있었습니다(3-6절). 야아콥은 몹시 두려워 만일의 경우 피해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가솔(家率)과 모든 가축 떼를 두 무리로 나누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7-12절):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즈학의 하나님,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태어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후대(厚待)하겠다’고 하신 야웨여! 당신이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은 제게는 과분한 것입니다.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었는데, 지금은 두 진이나 되었습니다. 제발 제 형의 손에서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가 와서 어미 자식 가리지 않고, 저를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다음날 야아콥은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여 자기 앞서 보냈습니다(13-21절). 자그마치 암염소가 200마리, 숫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그에 딸린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숫나귀가 10마리나 되었습니다. 야아콥은 그것들을 한 떼씩 한 떼씩 따로따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맡기고는 떼와 떼 사이에 거리를 두어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야아콥은 이런 식으로 에서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날밤 눈을 좀 붙인 후 야아콥은 밤에 일어나, 처자들과 모든 소유를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외롭게 남아 있었습니다(21-24절).

그 날 밤 홀로 남은 야아콥을 찾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이 야아콥에게 온 목적은 분명치 않으나, 다만 야아콥은 날이 새기까지 그를 붙잡고 온 힘을 다하여 씨름하여야 했습니다. 이 둘이 왜 서로 붙들고 씨름하여야 했는지 그 이유 역시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야아콥은 축복을 요구하며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으며, 심지어는 부상을 입기까지 덤비면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야아콥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면서 야아콥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동시에 그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편 야아콥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았으나, 내 목숨이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 곳의 이름을 프니엘(‘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야아콥이 프니엘을 지나갈 때에 해가 돋았는데, 그는 부상 때문에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였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구절(28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아콥의 생애는 어머니 배속에 있을 때부터 늙기까지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아콥은 어머니 배속에 있을 때 자기의 쌍둥이 형제와 싸우곤 하였습니다(창세기 25:22). 출생 때에도 야아콥은 쌍둥이 형제인 에서보다 뒤늦게 나올까봐 안간힘을 썼습니다(창세기 25:26). 하지만 그는 결국 약간 늦게 나왔기 때문에 장자의 지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야아콥의 장자권 탈취 작전은 그의 평생을 통하여 계속하여 전개되었습니다. 야아콥은 결국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창세기 25:31-34; 27:1-36). 장자권과 그에 따른 축복을 야아콥에게 빼앗긴 에서가 야아콥을 죽이려고 계획하자, 야아콥은 할 수 없이 외삼촌이 사는 파단아람을 향하여 머나먼 도망 길을 떠났습니다. 파단아람에서의 20년 세월도 야아콥과 그의 외삼촌 라반 사이의 투쟁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야아콥은 항상 승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사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야아콥에게 남은 또 하나의 싸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에서의 증오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육체적인 힘 겨루기로 묘사된 이 싸움에 대하여 훗날 호세아 선지자는 “야아콥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는데,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호세아 12:3-4). 다시 말해서 야아콥은 이 싸움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건을 보기로 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仁愛)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호세아 12:6). 아마도 호세아는 야복강 나루에서의 야아콥의 특이한 경험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간구와 소망으로 이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란 이름은 명칭 그대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에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은 야아콥입니다. 야아콥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곧 오늘의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조상 야아콥, 곧 이스라엘은 여러 모로 유대 민족의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주후 70년 이후 서서히 고향을 떠나 먼 유랑의 길을 떠난 유대인, 20년이 아닌 2000년의 객지 생활, 객지의 주인 민족들로부터 학대와 박해를 받아 결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피하는 유대인, 다시 돌아와 1948년 조상들이 살던 땅에 나라를 세우고 평화롭게 살아보고자 하였으나 그 출발부터 온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끌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전쟁을 걸어온 주변의 아랍 국가들. 이 모든 역사적 상황은 그들의 조상인 야아콥의 삶에 이미 축소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이다”라고(출애굽기 4:22)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러한 역사적 운명은 그들이 본래 장자가 아닌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장자의 지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생긴 역사적 필연일까요? 하지만 야아콥의 생애는 야아콥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죽음과 파멸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과 겨룸으로써 야아콥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생각과는 달리 야아콥, 아니 이스라엘을 형제의 도로써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것입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어느 모로 보나 유대 민족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임금도 없고 장관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柱像)도 없고 예뻐도 없고 수호신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야웨와 그 왕 다비드를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야웨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호세아 3:4-5). 이 구절을 20세기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제사와 예뻐는 야웨 하나님 숭배를 대변함), 우상 숭배도(주상과 수호신은 우상 숭배를 대변함) 하지 않다가, 그 후에 유대인들이 옛 땅으로 돌아와 비로소 하나님과 그의 왕 메시아 예수를 찾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은총을 입을 것이다”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적성 아랍 국가들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평화와 안전을 바라고 옛 땅으로 돌아왔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과 각종 테러의 공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객지)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은 지구 어느 구석에 살든지 ‘반 유대 감정’이라는 골치 거리를 직면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볼 때가 아닐까요? 그의 왕 메시아 예수를 찾을 때가 아닐까요? 야아콥이라는 낡은 옷을 버리고 참 이스라엘로 변화 받을 때가 아닐까요?

야아콥과 에서의 감격적인 상봉 <창세기 33:1-20>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의 관계는 사랑과 보호와 힘과 기쁨과 보람도 주지만, 동시에 미움과 해방과 두려움과 슬픔과 실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야아콥과 에서 두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쌍둥이 형제로서 어느 누구보다 더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두 사람은 불행하기도 처음부터 원수 관계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들 관계는 오랫동안 거짓과 속임수가 따르는 경쟁과 빼에 사무친 원한과 두려움 등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악연을 끊고 두 사람을 화목케 하신 분이 바로 야아콥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른 동료 인간과 관계를 맺기 전에 당신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동료 인간과 맺게 되는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에서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 이루지 못했을 그 밤에, 야아콥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밤새 진행된 간절한 싸움을 통하여 야아콥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야아콥 본인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 상황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이 되어 야아콥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친히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야아콥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형 에서에게 다가가기까지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야아콥은 이제 직접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에서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그인지라, 어느 인간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감격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야아콥을 맞는 에서의 태도는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야아콥을 맞으러 달려와서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야아콥의 목을 감싸안고 그와 입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이 때야말로 이들 쌍둥이 형제의 관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에서의 전적인 변화에 대하여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야아콥을 맞이했습니다. 이제까지 야아콥이 알고 있던 에서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에서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라곤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야아콥과 하나님의 힘 겨루기뿐입니다. 야아콥의 간절한 애원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극적인 해후의 예를 나눈 에서는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네게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이 헤어지던 20년 전의 야아콥은 홀몸이었습니다. 에서는 야아콥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처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야아콥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는 쌍둥이형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야아콥의 소개로 그의 처자들이 차례로 에서 앞에 나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여종들이 자기들의 자식들과 함께 다가와 절하였습니다. 레아도 그녀의 자식들과 함께 다가와 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다가와 절하였습니다.

이제 에서에게 궁금한 것은 이들 앞서 지나간 가족 떼들이었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난 가족 떼들은 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야아콥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 은혜를 입으려는 것입니다.” 야아콥의 언어는 여전히 공손하고 그의 태도는 저자세였습니다. 이미 야아콥을 받아들인 에서로서는 야아콥의 예물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에서가 말하였습니다. “내 동생아, 내게는 충분히 있다. 네게 딸린 것은 그대로 네게 두어라.” 하지만 야아콥은 간청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부디 내 선물을 내 손으로부터 받아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형님도 나를 기꺼이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부디 형님께 가져온 나의 예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는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야아콥이 그에게 간청하자 에서는 이 예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아콥을 받아들인 후, 야아콥의 장래 삶의 터전에 대하여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이제 길을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나란히 가 주겠다”라는 에서의 말을 통해 볼 때, 아마도 에서는 자연스럽게 야아콥을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인도해 갈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아콥은 자신이 살 곳이 다른 곳이 아닌 케나안 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야아콥이 에서에게 “어르신도 알다시피, 자식들은 연약하고 새끼가 딸린 양떼와 소떼가 내게 있으므로, 하루만이라도 그것들을 무리해서 몰고 가면 양떼가 다 죽을 것입니다. 어르신은 부디 이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나는 내 앞에 있는 가족 떼와 또 자식들의 걸음걸이대로 천천히 진행하여, 어르신이 계신 세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에서를 따라갈 의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호의를 베풀 양으로 야아콥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딸린 사람들 중에서 몇을 네 편에 맡겨주겠다.” 하지만 야아콥은 여전히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르신이 나를 좋게 보아주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날에 에서는 제 길, 곧 쉼일로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야아콥이 에서를 찾아 쉼일 땅에 갔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들 쌍둥이 형제의 후손들의 운명이 서로 대조적임을 몇몇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야아콥은 에서를 쉼일 땅으로 떠나보낸 후, 수컷으로 진행하여 거기서 집안 사람들을 위하여 집도 짓고 가축 떼를 위하여 우리도 지었습니다. ‘수컷’이란 보통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축사(畜舍)’ 내지는 ‘우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사람에게 그들을 제공해주는 임시 ‘초막’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곳의 이름이 ‘수컷’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야아콥 집안이 이곳에 집과 초막을 짓고 잠시 머문 일에서 비롯됩니다. 수컷은 요단강 동편에서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야복 시냇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한 해 남짓 수컷에 머물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아콥은 형 에서를 따라 가는 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파단아람을 떠난 야아콥은 수컷에 얼마 동안 머물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평안히 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도착한 성읍은 케나안 땅의 중앙 산지에 위치한 슈켄 성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20여년 전 케나안 땅을 떠나면서,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내게 주시며, 나로 하여금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웨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십분의 일을 떼어 반드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한 일을 지켜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야아콥은 슈켄 성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막 친 들판의 한 구획을 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야아콥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아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요, 사람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친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아콥 집안의 불행 <창세기 34:1-31>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불행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아콥의 집안에도 커다란 불행이 닥쳤습니다. 먼저 그 불행한 일을 얘기해봅시다. 야아콥의 두 아내가 여종들까지 남편에게 첩으로 바쳐가며 아들 낳기 경쟁을 한 것은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들도 여럿 태어났을 법한데, 이상한 것은 레아가 낳은 딸 디나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디나는 오늘 얘기할 불행의 중심부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케나안 땅에 돌아온 야아콥은 슈켄 성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막 친 들판의 한 구획을 돈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이 무렵 디나는 그 땅 여자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 그녀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슈켄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성안에서 그녀를 보고 한 눈에 반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비 사람 하몰의 아들이요 그 땅의 통치자인 슈켄 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순식간의 충동을 못 이겨 평상시에는 하지 못할 일을 저지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몰의 아들 슈켄이 바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슈켄이 디나를 데리고 가서 강간하여 그녀를 욕보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슈켄의 마음이 야아콥의 딸 디나에게 폭 빠져서, 그는 그 소녀를 몹시 원하게 되었습니다. 슈켄은 디나의 마음을 얻고자 온갖 설득의 말을 해보았습니다. 슈켄은 또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아가씨를 내 아내로 얻어 주십시오.”라고 간청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을 두고 한 남자의 순수한 짝사랑이라고 두둔하는 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 사회의 통념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평안을 파괴하는 변태적인 사랑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동물과의 성관계, 동성간의 성관계, 가까운 친족과의 성관계, 이미 타인에게 결혼한 사람과의 성관계, 혼전 성관계 등은 모두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사탄은 그동안 영화, 연극, 잡지, 소설 등을 통하여 부단히 사람들에게 비뚤어진 사랑을 미화시키고 권장하여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사탄의 전략은 대단한 효과를 거두어 이미 많은 현대인들은 아무런 부끄럼 없이 그런 죄악을 저지르곤 합니다. 타락 이후로 인간은 죄악을 쉽게 용납하고 좋아하고 심지어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몹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야아콥은 슈켄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판에서 그의 가축 떼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미 노인이 된 자신 혼자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야아콥을 찾아온 사람은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 디나를 며느리로 삼게 해 달라고 부탁하러 온 하몰이었습니다. 하몰은 당사자인 자기 아들 슈켄을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디나는 성안 그들의 집에 억류된 상태였습니다. 곧 이어 야아콥의 아들들도 소식을 듣고 양 치던 들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언짢기도 하고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슈켄이 야아콥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행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몰은 아주 정중한 태도로 야아콥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내 아들 슈켄이 마음속 깊이 맥의

따님을 연모합니다. 부디 그녀를 슈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당신들은 우리와 통혼합니다.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당신들이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삽시다. 이 땅을 당신들 앞에 개방할 테니,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장사도 하고 이 땅을 소유하시기도 바랍니다.” 하물에 이어 슈켄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당신들이 내게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지참금을 아무리 많이 요구하더라도, 당신들이 내게 말하는 그대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소녀만큼은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나온다면 비록 껄뻘한 마음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야아콥의 아들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힌 슈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야아콥의 아들들은 슈켄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임수로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내어주는, 그 같은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런 조건이면 당신들과 협정하겠습니다. 만일 당신들 중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주며,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가 데려오겠습니다. 또 당신들과 함께 살면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할례(割禮)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과 세우신 약속의 표시입니다. ‘할례’는 오늘날 의학적 용어인 ‘포경(包莖)수술’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음경(陰莖)을 덮고 있는 살가죽의 끝 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야아콥의 아들들이 슈켄과 하물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은 그들을 약속의 민족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였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던 하물과 슈켄이 보기에 이 제안은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아콥의 딸 디나에게 폭 빠져있던 슈켄은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 하물도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는데, 슈켄은 그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물 부자는 슈켄 성문에 와서는,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장사도 하게 합시다. 보십시오. 이 땅은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 아내로 삼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줍시다. 다만 한 가지 조건에서만 이 사람들이 우리와 협정하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즉,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과 협정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어서 그 마을의 성문으로 나가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셋째 날 그들이 할례로 인한 통증으로 고생할 때에, 야아콥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비가 각기 칼을 들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 마을로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물과 그의 아들 슈켄도 칼로 쳐서 죽이고, 디나를 슈켄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아콥의 다른 아들들도 합류하여 그 마을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 사람들의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마을 안에 있는 것이든 들판에 있는 것이든 할 것 없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자녀와 아내들마저 사로잡아 왔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약탈하였습니다.

이 일은 그들의 아버지 야아콥의 재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자, 야아콥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주동한 시므온과 레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 땅 주민들인 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이 나를 추하게 볼 것이다. 나는 수가 적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대로 연합하여 나를 공격할 경우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아들들의 대답은 간단하였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다루게 내버려둡니까?” 훗날 디나가 아버지 야아콥과 형제들을 따라 이집트로 내려간 일로 보아,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한편 시므온과 레비는 이 때의 일로 인하여 아버지 야아콥의 임종시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이상은 인간 야아콥이 당한 불행 이야기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이 당하신 불행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불행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그를 지으신 조물주를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최대의 불행을 인간을 위한 최고의 행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과 그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창세기 35:1-29>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불행한 사건이나 위기는 때때로 인생의转机(轉機)를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불행한 일을 만나면 평소보다 더욱 깊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무언가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야아콥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일 때문에 야아콥의 아들들이 슈켄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한 일은 야아콥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때 그는 예전에 지팡이 하나를 들고 케나안 땅을 떠나 파단아람으로

도망하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원한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내게 주시며, 나로 하여금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웨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십분의 일을 떼어 반드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야아콥의 이 서원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야아콥의 차례입니다. 한편 야아콥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 서원한 곳을 베트엘,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에 먼저 야아콥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일어나 베트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네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은 결국 서원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며 속고 속이는 거친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 하기가 쉽습니다. 이때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아콥에게 하나의 경종(警鐘)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아콥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아콥은 자기 집안의 모든 이들에게 이처럼 말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트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야아콥이 요구한 것은 집안의 혁신적인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스스로 크리스토폴로 인임을 자처하면서도 미신적인 사고 방식이나 비성경적인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을 본다든지, 이사나 다른 일을 위하여 길일(吉日)을 말한다든지, 태어난 해의 띠에 따른 ‘오늘의 운세’ 따위에 빠진다든지 하는 일은 모두가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심지어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며 복 비는 것을 한국적 문화로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유교적 관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이런 조상 숭배 문화의 폐단이 중국인 사회에는 전반적으로 뿌리깊게 침투해 있습니다.

야아콥의 지시를 따라, 그의 집안 사람들은 자기들 손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 걸치던 귀고리들을 야아콥에게 내주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그들이 입던 복장과, 또 몸이나 옷에 부착하던 장신구까지도 우상 숭배나 또는 이교도적(異敎徒的) 문화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런 우상들이나 장신구들은 모두가 돈이 되는 물건들이었지만, 야아콥은 그것들을 아낌없이 슈켄 근처에 있는 테레빈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야아콥 일행은 드디어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베트엘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 작은 집단을 보호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사방에 있는 마을들 위에 두려움이 있게 하였기 때문에 야아콥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야아콥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은 케난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트엘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트엘’(베트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형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디에 가든지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의 삶은 더욱 성결해지고 활력이 불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의 불행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불행도 견딜 수 있는 새 힘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야아콥이 베트엘에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한 후, 그에게 발생한 몇 가지 불행한 일들을 담담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브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트엘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은 ‘알론바롯’(=통곡의 상수리나무)이라고 불렀습니다. 리브카의 유모가 야아콥의 일행 중에 끼여 있다는 사실은, 리브카가 뒤늦게나마 약속을 지키고자 아들 야아콥에게 그녀를 보내어 돌아오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어머니와 깊이 관련된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야아콥에게 몹시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희망찬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야아콥이 파단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야아콥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네 이름은 야아콥이다. 하지만 네 이름이 더 이상 야아콥이라고 불리지 않겠고, 다만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며 번성하라. 나라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즈학에게 준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는 전에 말씀하셨던 약속의 확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아콥을 떠나 올라가신 후, 야아콥은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아콥은 하나님이 자기와 더불어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트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야아콥의 불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아콥 일행이 베트엘에서 길을 떠나, 에프랏에 이르기까지 아직 거리가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그녀의 산고(産苦)가 몹시 심하였습니다. 그녀가 해산의 고통으로 고생할 즈음에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지금 당신에게 태어나는 아이도 또 아들입니다.” 하지만 라헬은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하나 더 낳지만 결국은 그 출산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벤오니(‘내

슬픔의 아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인 야아콥은 그 아이를 벤야민(‘오른 손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이 죽고 그녀는 에프랏 곧 베트레헴 길에 장사되었습니다. 야아콥이 그녀의 무덤 옆에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까지 ‘라헬의 묘비’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라헬이 벤야민을 낳음으로, 야아콥 곧 이스라엘의 아들은 모두 열 둘이 되었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은 여섯(르우벤, 시므온, 레비, 예후다, 이싸칼, 스불론), 라헬이 낳은 아들은 둘(요셉, 벤야민),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아들은 둘(단, 나프탈리), 레아의 여종 실파가 낳은 아들은 둘(갓, 아셀)이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대로, 이 집안의 문제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케나안 땅에 거할 때에 그의 맏아들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간하였습니다. 이 불상사를 두고, 유대인 라비들은, 야아콥이 편애하던 라헬을 잃은 후, 레아에게 관심을 쏟지 않고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자,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빌하와 간통했다는 해석을 시도합니다.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르우벤은 훗날 아버지 이스라엘의 임종시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하여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간단한 문장으로 마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한 야아콥 곧 이스라엘은 마침내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 이즈락을 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난 이즈락은 머지 않아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죽는데, 이 때 그의 나이는 180살이었고, 야아콥은 120살이었습니다. 그의 장례는 에서와 야아콥 두 아들이 함께 치렀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무수한 문제와 불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험한 인생의 짐을 혼자서 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갈 것인지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무엇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대한 부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에서의 후예 <창세기 36:1-43>

인간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이후, 남녀의 결합에 의한 출산 과정을 통하여 번식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녀의 만남은 비단 두 사람의 행복뿐만 아니라, 인종의 보존과 증식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남녀의 결합이 인구증가로 이어지고, 인구증가는 다시 혈통이나 이해 관계에 따른 집단화로, 집단은 다시 인간 사회의 조직화로 이어집니다. 이 조직화된 인간 사회는 힘의 결집점을 만들어내게 되어 결국은 집단이 자발적으로 그 힘의 꼭대기에 앉을 이를 찾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스스로 그 자리를 원하게 됩니다. 땅위의 나라들, 특별히 왕을 조직체의 정점으로 삼는 왕국은 이런 식으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제국주의의 시작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한 개인에서 시작하여 민족이 형성되고, 이어 그 민족이 왕국으로 조직화되는 과정을 몇 개의 명단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이 과정의 맨 첫 자리에 에서라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에돔이라고도 불리는 그는 야아콥 곧 이스라엘의 쌍둥이 형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은 중요합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엉망이 됩니다. 에서는 나이 40에 두 아내를 얻었는데, 둘 다 에서의 부모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케나안 여자들이었습니다(창세기 26:34-35; 27:46). 또 앞서 언급한대로, 에서는 자기 부모님이 케나안 며느리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 이즈락의 배다른 형인 이슈마엘에게 가서 이미 얻은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슈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았지만(창세기 28:6-9), 그는 아내의 수만 늘렸을 뿐, 이미 얻은 케나안 여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집안의 전통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판단과 지혜대로 움직였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성경에 표기된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은 약간의 혼동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둘은 케나안 땅 족속 출신이요, 다른 하나는 이슈마엘의 딸이라는 점입니다. 이들 중 적어도 두 케나안 여자는 우상 숭배의 습관에 젖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 세 여자는 에서에게 각기 하나, 하나, 셋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엘리파스, 르우엘, 예우쉬, 알람, 코라로 불리는 이들 다섯 명의 아들들은 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에서에게 아내들이 생기고 자식들이 대를 이어 태어나고 또 종들을 얻게 되자 집안 인구가 늘어나는 한편, 가축 때와 재산도 늘어나는 바람에, 에서는 자기가 이끄는 이 집단의 장래 거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 야아콥이 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이즈락이 자기를 쌍둥이 형제에게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였는지 익히 알고 있던 터이라, 케나안 땅에 계속 머무는 것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야아콥이 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로 그들 두 사람의 가축과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거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케나안 땅을 떠나 새로운 땅을 향하여 떠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야아콥이 돌아오기도 전에 일찌감치 앞으로 야아콥의 땅이 될 케나안 땅을 떠나 동남쪽의 세일 산지로 가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에서의 손자들 대에 이르러 더욱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은 장차 에돔 족속 여러 종족들의 조상이 되어, 그들 각각의 이름이 각 부족의 이름으로 통용되었습니다. 이들 여러 손자들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사람은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의 첩인 팀나가 엘리파스에게 낳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다른 본부인 자식들과 더불어 나란히 에돔 족속 안에서 한 종족의 머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자기 집안을 이끌고 케나안 땅의 남쪽으로 이동하여 그 일대에서 별도로 유목민 부족을 이루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야아콥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시나이 반도 광야를 지날 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은 거의 틀림없이 그의 후예들이었습니다(출애굽기 17:8-16). 이때부터 아말렉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과 야웨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고용했던 이방 선지자 빌암은 아말렉을 두고,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적이 있습니다(민수기 24:20).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훗날 슈무엘과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멸하라는 지시를 내리심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슈무엘상 15:1-33).

한편 쉼일 땅으로 이주해 온 에돔 족속은 전부터 그 땅에 살았던 호리 족속 쉼일의 자손들과 혼성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쉼일의 아들들 중에 로탄이 있는데, 그의 누이로 소개된 팀나는 아마도 엘리파스의 첩이요 아말렉의 어머니인 팀나와 동일 인물인 듯 합니다. 에돔의 후손과 쉼일의 후손은 혼인을 통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민족으로 어우러졌을 것입니다. 쉼일의 또 다른 아들인 찌브온에게는 아나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찌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에돔의 후손들은 쉼일 땅으로 건너가서 그곳 호리 족속 쉼일의 후손들과 어우러져 급격한 인구 팽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 집안이 퍼져서 각기 종족 집단을 이루게 되고 이들 종족 집단의 연합체는 이미 나라의 규모로 발전하여 이 커다란 집단을 통치할 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훨씬 전에 이미 에돔 땅에서는 에돔 족속을 다스렸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은 집단의 힘을 몰아서 자신의 통치 중심지인 도성도 만들고, 때로는 군대를 조직하여 전쟁도 일으키는 등, 그야말로 인간 나라를 점점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남을 다스리는 이 힘의 맛을 알게 되어, 한 왕이 죽으면 거의 공백 기간이 없이 바로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인간 왕국에 대한 소개는 창세기 36장말고 역대상 1:43-54에도 간단하게 등장합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36장에서 사람의 모임으로부터, 사람의 뜻에 의하여 생겨난 ‘에돔 왕국’을 소개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는 땅위의 한 왕국을 뒤이어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주축을 이루는 에돔 왕국은 이후 선지자들의 입에 곧잘 저주와 멸망의 대명사로 오르내릴 정도로 불행한 길을 걷게 됩니다. 에돔 왕국의 첫 조상인 에서의 잘못된 출발이 그 자신과 그의 후손을 망친 것입니다.

사람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창조주인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 위에 서서 다스리는 체제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회에 예전부터 약속하신 ‘왕’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나라를 조직하고 다스리는 방법은 이 땅 위의 모든 군주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분은 먼저 자신의 고난과 희생을 바탕으로 그 나라의 기초를 세우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시어 하늘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시므로 모든 이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으며, 믿는 이들에게 변화와 위로와 힘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친구여, 나는 이런 왕을 당신에게 소개하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지상 민족들은 왕국 형태를 버리고,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이름으로 통치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가장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 변화는 인간이 인간 위에서 통치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리실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집트로 끌려가는 요셉 <창세기 37:1-36>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에서를 머리로 하는 왕국은 창세기 36장에 아주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야아콥 곧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이룩되는 나라에 관하여는 성경이 아주 길고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아콥의 후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통하여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서서히 한 나라로서의 형태를 다듬어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야아콥의 열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의 고난과 영광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과 영광을 통하여 야아콥의 후손을 이집트 땅으로 끌어들이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내신 후, 다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시어 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밟으며 당신이 바라시는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건국 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요셉의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아콥이 파단아람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이즈하크의 고향인 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때 요셉의 나이가 열 일곱 살이었으니, 야아콥이 가족을 이끌고 케나안 땅에 돌아온 지 11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소년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파의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나쁜 점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습니다. 아마도 소년 요셉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착실한 아이로서, 다른 형제들의 불순종이나 나쁜 짓을 눈감아 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처럼 ‘고발자’의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야아콥의 편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은 그가 늙어서 낳은 데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채색 옷 한 벌을 지어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특정 자식에 대한 부모의 편애는 형제들 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여러 형제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말조차 곱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믿는 가정들 중에서도, 목사의 가정이나 소위 ‘평신도’라고 말하는 이들의 가정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슬픔과 기쁨도 있으며,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으며, 또한 질병과 죽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용돌이를 어느 정도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은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아콥의 집안 구성원 가운데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 그들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 이용하시고 그들의 삶에 깊이 간섭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요셉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요셉은 기이한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도무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얘기해준 바에 따르면, 그들이 다같이 밭 가운데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 단이 일어나 우뚝 섰고, 형제들의 곡식 단들은 빙 둘러서서 그의 곡식 단을 향하여 절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듣더라도, 요셉이 형제들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꿈이라고 해몽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 장래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 얘기를 들은 그의 형제들이 잠잠할 리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정말로 우리들 위에 왕 노릇 한다는 것이냐?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요셉을 미워했던 그들은 그의 꿈과 그의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 또한 누구나 쉽게 해몽할 수 있었는데, 그 해몽에 따르면 이번에는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까지 요셉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에서 본 것은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그를 향하여 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그 꿈을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까지도 화를 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아콥이 그를 꾸짖으면서 이처럼 말하였습니다. “네가 곧 이 꿈이 대체 무엇이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와서 정말로 땅에 엎드려 너를 향하여 절한다는 것이냐?” 그러나 이런 꿈들 때문에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요셉이 꾸 두 꿈은 모두 마지막 결과만 말할 뿐 그 과정은 전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꿈쟁이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남쪽의 헤브론 골짜기를 떠나 북쪽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슈켄까지 가 있었습니다. 아마 비가 내리지 않는 여름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궁금했던 야아콥은 집에 남아 있던 요셉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요셉은 헤브론 골짜기를 떠나 슈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이미 그곳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요셉이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마침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의 형제들이 도탄으로 옮겨갔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뒤 따라 가서, 마침내 도탄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평소 요셉에 대하여 불만이 컸던 그들은 멀리서부터 그를 보고는,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저 꿈쟁이가 오고 있다.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흉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들의 모의는 사람의 미움과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아들인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고자 하면서 또한 전체 여론을 고려하여, “그의 목숨을 빼앗지는 말자.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되,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요셉이 걸치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로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속에 물도 없었습니다.

구덩이에 갇힌 요셉의 부르짖음에도 아랑곳없이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을 때, 마침 이슈마엘 사람들 대상(隊商)이 길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낙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길르앗에서 나와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후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는 대신 이슈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이 제의에 공감하여,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린 후, 그를 은 스무 개에

이슈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 일은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슈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무역하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긴 것 같습니다. 이슈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창세기 16:15),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싸라가 죽은 후 크투라를 통하여 얻은 아들입니다(창세기 25:2). 이들의 후손들은 생활 양식이 비슷하였는데, 주로 대상(隊商) 무역에 종사하였습니다.

한편 르우벤이 그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그 구덩이 속에 요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절규하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솟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그 피에 요셉의 채색 옷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활하게도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로 보내어 말하기를, “이것을 우리가 주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적중하였습니다. 야아콥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야아콥은 요셉의 운명에 대하여 자기 아들들에게 약 22년이나 속아 살았습니다. 이때 처절한 슬픔에 빠진 야아콥을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포티팔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슈마엘 사람들이 낙타에 싣고 가던 향품과 유향과 몰약,’ ‘솟염소의 피,’ ‘그 피에 적신 요셉의 채색 옷,’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은 20에 팔린 요셉 본인’ 등은 우리에게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시밭길을 걷는 예후다 <창세기 38:1-30>

내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실제 일어난 일을 가감 없이 기록하였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려서 처음으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동침하여 후손을 얻는 것, 야아콥의 아들 예후다가 며느리와 동침하여 쌍둥이 아들을 얻는 것과 같은 기사가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책’에 이처럼 경건치 못한 내용이 여과 없이 기록되었을까 하고 의아해 하다가, 결국은 나름대로 ‘성경은 진실한 책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야아콥의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후, 그들도 사람인 이상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 중에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한 예후다에 관하여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예후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름이 히라라고 하는 어떤 아둘람 사람 근처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예후다는 거기서 그 이름이 슈아라고 하는 한 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와 결혼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가 예후다에게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나이 순서대로 엘, 오난, 셀라였습니다.

예후다의 아들들이 장성하고, 예후다는 만아들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맞았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다의 집안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후다의 만아들 엘이 야웨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야웨께서 그를 죽이셨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한 집안의 만아들이 장가들었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남자 형제가 죽은 형을 대신하여 형수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아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후다는 당시의 관습대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그녀에게 시동생으로서 해야 할 본분을 행하여, 네 형에게 대를 이어 주어라.” 하지만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는, 언제든지 그의 형수에게 들어갈 때에는 자기 형에게 대를 이어 주지 아니하려고 미리 땅바닥에다 사정하곤 하였습니다. 영어에 ‘자위 행위’를 뜻하는 ‘onanism’이라는 낱말은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난의 이런 행동을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난에게도 죽음으로써 그 벌을 내리셨습니다.

일이 이쯤 이르자, 가장 근심에 빠진 사람은 젊은 시절에 자식도 두지 못하고 급사한 이들 두 형제의 아버지 예후다였습니다. 이제 형을 위하여 자식을 남겨줄 의무는 막내 셀라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이때 예후다가 며느리 타말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들 셀라가 크기까지 네 친정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어라.” 그가 이처럼 말한 것은 셀라도 역시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타말은 가서, 자기 친정 아버지 집에서 지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예후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상을 다 치른 후에, 예후다는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털을 깎는 일꾼들이 있는 팀나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후다의 며느리 타말에게 그녀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팀나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식도 못 낳고, 남편 죽이는 재수 없는 여자’로 소문이 났을 법한 타말은 막내 시동생 셀라가 장성하였는데도 자기에게 주지 않는 시아버지에게 원망을 품고 있던 차에, 자식을 얻어 여자로서의 수치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에서 이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타말은 평소애 걸치고 다니던 과부 복장을 벗어 던지고, 창녀들이 하는 것처럼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둘러싸고는, 팀나로 가는 길 곁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습니다. 이는 셀라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길을 지나던 예후다는 그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예후다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가 창녀인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내를 잃고 허전하던 차에 예후다는 길 곁의 그녀에게로 몸을 돌려 말하였습니다. “자, 내가 네게로 들어가고자 한다.” 이 말은 그녀를 창녀로 알고 그 몸을 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예후다는 그녀가 자기의 며느리인 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창녀로 위장한 타말이 흥정하였습니다. “당신은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시겠습니까?” 당시 유목 사회에서 예후다가 줄 수 있는 것은 가축 때 중에서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후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타말은 이 약속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기까지 담보물을 요구했는데, 그녀가 요구한 담보물은 예후다가 가지고 다니던 인장과 그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합의가 성사되어 예후다는 타말에게 담보물들을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말은 자기 시아버지 예후다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후다는 자기의 며느리하고 동침 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자기의 친구 아들람 사람 편에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 일이 있던 직후에 타말은 창녀의 너울을 벗어 던지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그곳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후다의 친구는 그 곳 사람들에게 그 창녀의 행방을 물었으나, 그들의 대답인즉, 거기는 창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할 수 없이 예후다에게로 돌아와 말하였습니다. “그녀를 찾지 못했네. 또 그 곳 사람도 말하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군.” 이에 모든 것을 포기한 예후다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것들을 갖게 그냥 두게나. 잘못하다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르지.”

이 일이 있던 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예후다에게 일러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창녀노릇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그 윤락 행위로 말미암아 임신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과부가 그 시동생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남자와 간통한다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분노한 예후다는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타말이 끌려나갈 때에 그녀는 자기 시아버지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처럼 말하였습니다.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한 것입니다. 이 인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보십시오.” 예후다가 그것들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는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다시는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구한 사연 가운데 태어난 예후다의 두 아들이 바로 쌍둥이 형제 페레즈와 세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형제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아콥의 처절한 슬픔을 지켜봤던 예후다는 자신의 참혹한 죄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형제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로 그의 삶은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대로 아내와 자식을 잃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는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형제들이 함께 모의하여 팔아버린 요셉이 고난을 거쳐 이방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올라 영화를 누리는 동안 예후다는 온갖 형극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예후다의 생애는 지난 2000년 간의 유대인 역사를 암시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왕 메시아를 저버린 유대인의 삶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결국 비극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후다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주전 6세기 말엽의 선지자 스카르야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자기 형제들(유대인)에 의하여 팔릴 것과, 또 장차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그를 위하여 심히 애통할 것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스카르야 11:12-13; 12:10-14). 이 예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뒤에 가서 언급하겠지만,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 땅에 와서 요셉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대략 일곱 해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던 해, 즉 요셉이 37세가 되던 해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20여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요셉을 대면한 셈이 됩니다. 성경은 이 20여년 동안 요셉의 형들 중 예후다에게 일어났던 일을 요셉의 기사(창세기 37-50장) 사이에 삽입하여(창세기 38장) 기록한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 양식을 구입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하자 예후다는 강경한 발언으로 아버지 야아콥을 설득하고(창세기 43:8-10),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감춘 이집트 총리 요셉 앞에서 간곡한 발언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요셉과의 극적인 해후를 이루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창세기 44:18-45:15). 오늘도 어찌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예수께서는 예후다와 같이 솔직하게 자기 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낱말로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는 유대인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요셉의 운명 <창세기 39:1-23>

때로는 한 사람의 운명이 다른 사람이나 또는 사람들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 말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확대하는 일은 도처에 여전합니다. 열일곱 살배기 청년 요셉의 운명은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져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이용하려 들었지, 그를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거나 도와주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운명이 실제로는 인간들보다 훨씬 위대하신 한 분의 손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야웨 하나님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파라오의 신하요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포티팔이 그를 그리로 끌고 내려간 이슈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샀습니다. 요셉은 환경도 언어도 낯선 한 이집트 사람의 노예가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무렵 요셉의 심정을 밝히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을 원망하는 분한 마음으로만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그는 결코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웨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으로 보아, 요셉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려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근무한 곳은 밖의 들판이나 공사장이 아니라, 자기 주인인 그 이집트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주인은 야웨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또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야웨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에 요셉은 자기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 그의 수종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한 고관대작의 눈에 들어 그를 가까이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인 포티팔은 더 나아가 요셉을 자기 집안의 관리인으로 삼고,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의 손안에 맡겼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긴 하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사람의 손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주의 주인이시오 전능하신 야웨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러한 행운이 임한 것은 요셉 자신의 인간에 대한 성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용하기도 하였겠지만, 무엇보다 그를 통한 특별한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그를 비상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서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인간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포티팔이 요셉을 자기 집 관리인으로 삼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한 이후로 야웨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야웨 하나님의 복은 그의 집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할 것 없이, 그에게 있는 모든 것에 미쳤습니다. 포티팔은 경제적으로든 집안 사람들의 건강 및 출산 면이든 또는 사회적 신분이든, 모든 면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요셉 때문이라는 것을 포티팔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요셉에 대한 신임이 매우 두터워진 포티팔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안에 맡겨두고, 자기가 먹는 먹거리말고는 아무 일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의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요셉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계속하여 일을 꾸미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좀더 고난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일을 통하여 볼 때, 크리스토포인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기대해볼직 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주인집에서 형통할 때에, 그 주인의 아내 되는 여자가 요셉의 외모에 반하였습니다. ‘정숙한 아내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그녀는 마침내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죄와 방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으로서는 이제까지 겪은 그 어떤 일보다도 더 무서운 시련이었습니다. 요셉은 완강히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주인이 집안의 어떤 일에 대하여도 내게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보다 큰이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말고는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보면 가장 많이 주어지는 기회가 죄 지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인간은 순간 순간마다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죄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판 형제들을 증오와 복수의 눈으로 쳐다보기 전에 애절하게 호소하는 눈으로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인을 비굴한 노예의 눈으로 쳐다보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고귀한 인간으로 존중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높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죄의 유혹에서 요셉을 구해줄 수 있는 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요셉의 눈이었습니다.

요셉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욱 애가 탄 그 여자는 날마다 요셉에게 간청도 하고 협박도 하였으나,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그녀와 동침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녀와 함께 있는 자리마저도 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에 대한 죄의 고삐는 늦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불일이 있어 그 집에 왔을 때, 마침 그 집안에는 집사람 중 아무도 없었고, 주인의 아내 되는 그 여자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굳게 붙잡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반드시 이 잘생긴 청년을 호텔 양으로 자기 손에서 그의 옷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 두고 도망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번 욕정을 품었던 여자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녀의 양칼진 증오는 욕정보다 훨씬 무섭게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침을 보고는, 자기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농락하게 하였다. 그 자가 내게로 와서 나를 욕보이려 하기에, 내가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그 자는 내가 소리질러 외치는 것을 듣고는 그의 옷을 내게 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쳤다.” ‘요녀(妖女)’라는 평이 어울릴 이 여자는 요셉의 옷을 자기 곁에 두고, 그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다가, 똑같은 말로 그에게 일러바쳤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가 집에 없는 사이에 요셉이 그녀를 욕보이려 했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날 노예보다는 자기 아내의 말에 더 무게를 둔 요셉의 주인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요셉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곳은 왕의 죄수들, 다시 말해서 감옥에 오기 전에 이집트 왕 밑에서 고관 노릇하던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야웨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그 감옥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곳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들이 현재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상황이 변하여 언제 다시 예전의 높은 신분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일이라, 간수장도 그들을 함부로 다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간수장의 명을 받은 요셉은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처리하여야 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맡아 한 일은 이들 왕의 죄수들을 잘 보살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믿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야웨께서는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였고, 또 야웨께서는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유독 해만 따라 다니며 해가 있는 곳으로만 방향을 트는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해바라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하나님바라기’입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이나 고난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고 살았습니다. 친구여, 이제 요셉처럼 ‘하나님바라기’로 살아 볼 마음이 없는지요.

이집트 왕 앞에 선 요셉 <창세기 40:1-41:16>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방법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은 형제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시기 위한 방법으로 역시 꿈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셉 자신의 꿈이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사람들을 동원하여 일을 꾸미십니다.

세월이 흘러 이집트 궁정 안에서는 두 사람의 궁정 관리가 그들의 군주인 이집트 왕에게 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왕의 술을 맡은 시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빵 굽는 일을 맡은 시종장이었습니다. 이들 두 신하에 대하여 분노한 파라오는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수감시켰습니다. 마침 그 감옥은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은 요셉을 그들에게 붙여주어 그들의 시종을 들게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황을 요셉을 위하여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봅시다.

그들이 수감되어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번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의 술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각 자기 꿈을 꾸고 또 그 꿈의 해석도 각각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이 근심에 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오늘은 당신들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꿈을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먼저 술 맡은 시종장의 꿈 얘기를 들으니 이와 같았습니다. “내 꿈에서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었다. 그 나무는 싹이 트자마자, 그 꽃이 피고 그 송이들에서는 포도가 익었다. 한편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있었는데,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드렸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요셉의 해석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해석이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사흘 있으면, 파라오가 당신의 고개를 들게 하여 당신이 있던 자리로 당신을 복직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전에 파라오의 술 책임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식으로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해몽과 아울러, 요셉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면서 그의 일이 잘 해결될 때에 자기를 기억하여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간청도 잊지 않았습니다.

빵 굽는 일을 맡은 시종장도 요셉이 좋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 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도 내 꿈에 보니, 하얀 바구니 세 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다. 맨 꼭대기 바구니 속에는 빵 굽는 사람이 만드는 파라오의 각종 먹거리가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의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의 해몽이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세 개는 사흘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사흘 있으면, 파라오가 당신의 목을 자르고, 당신을 나무 위에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그로부터 사흘 쯤 되던 날, 그 날은 마침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파라오는 그 술을 맡은 시종장과 빵 굽는 일을 맡은 시종장을 자기의 신하들 가운데로 들게 하였습니다. 파라오는 술 맡은 시종장을 자기의 술을 맡는 책임자로 복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술잔을 파라오의 손에 받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빵 굽는 일을 맡은 시종장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술 맡은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시간 안에 이 일을 보류하고 계실 뿐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이 일을 다시 꼬집어내시어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일을 진행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를 위한 인생의 모든 일정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부터 두 해가 지나서 이제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보니 나일 강으로부터 잘 생기고 살이 찐 일곱 마리의 암소들이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곱 마리의 암소들이 그들 뒤를 따라 나일 강으로부터 올라오는데, 모습이 흉하고 살이 없이 야윈 상태였습니다. 그 놈들은 먼저 올라온 암소들이 있는 나일 강가에 섰습니다. 그 모습이 흉하고 살이 없이 야윈 암소들이 잘 생기고 살이 찐 일곱 마리의 암소들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깨어났습니다.

파라오가 잠이 들어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일곱 개의 이삭들이 한 줄기로부터 올라오는데,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것들이었습니다. 또 보니 부실하고 동쪽 바람에 바짝 마른 일곱 개의 이삭들이 그것들 뒤를 따라 패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부실한 이삭들은 다른 토실토실하고 알찬 일곱 이삭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파라오가 깨어 보니 이 또한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파라오는 마음이 몹시 뒤숭숭하였습니다. 이에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모든 박사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파라오에게 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어 말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제 죄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파라오께서 종들에게 분노하셔서 저를 경호대장 집에 수감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빵 굽는 일을 맡은 시종장도 수감되었습니다. 저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하고 그가 각각 그 해석이 다른 자기 꿈을 꾸었습니다. 마침 거기에 경호대장의 종인 한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얘기하자, 그가 저희의 꿈을 풀어 주었습니다. 각각 그 꿈을 따라서 풀어 주었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풀어준 그대로 되어, 저는 제 자리로 복직되고 그는 매여 달렸습니다.” 이 시종장은 두 해가 지나서야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고 그의 얘기를 파라오 앞에서 꼬집어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구덩이 감옥으로부터 서둘러 끌어올렸고, 요셉은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 서른이었습니다 (창세기 41:46). 노예로서의 13년, 그중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기간은 적어도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매 마침내 그를 옥에서뿐만 아니라 노예의 신분에서도 빼어내시어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앞에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외국인 노예를 맞이한 이집트 왕은 도리어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푸는 사람이 없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은 파라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평안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요셉을 이런 자리로까지 높이 세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든 사회적 지위로든 신분 상승을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찾아 줄을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이나 원망 없이 성실하게 일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다만 그가 의지하고자 서 있던 줄은 ‘인간의 줄’이 아닌 ‘하나님 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줄 서서 도움을 기다리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창세기 41:17-57>

신분이 사람을 바꿔놓기도 하지만,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 받는 아들이었던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아우가 되어 노예로 팔리고 외국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때로는 비참한 노예로, 때로는 한 집안의 청지기로, 또 때로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히 사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서른이 되어 그는 마침내 당시의 세계적 대제국 이집트를 호령하는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요셉인지라, 땅위 제국의 왕이 두려울 리가 없었습니다. 요셉과 파라오의 만남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과 한 제국을 통치하는 수장(首長)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당연히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꿈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던 파라오는 요셉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파라오는 자기가 꿈 두 꿈을 상세하게 요셉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어느 마술사 하나 그 꿈을 푸는 이가 없다는 사실까지 말해주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리가 없던 우상 숭배자 파라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야 할 시간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꿈 얘기를 들은 요셉은 전에 감옥에서 파라오의 두 신하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꿈을 해석해주었습니다. “파라오의 꿈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일곱 마리의 좋은 암소들은 곧 일곱 해요, 일곱 개의 알찬 이삭들도 일곱 해를 가리킵니다. 그들 뒤를 따라 올라온 일곱 마리의 흉하고 야윈 암소들은 곧 일곱 해요, 일곱 개의 부실하고 동쪽 바람에 바짝 마른 일곱 개의 이삭들도 마찬가지인데, 일곱 해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곱 해가 다다를 것인데,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일곱 해 동안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 땅에 있던 그 모든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오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하여서, 이 땅에 풍년이 있었던 일도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파라오께서 같은 꿈을 거듭 두 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서둘러 행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풀어주면서 그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파라오에게 있어서 땅의 기상(氣象)과 운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그의 그릇된 신관(神觀)을 수정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입니다. 땅위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이나 역사가운데서 이례적인 일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심을 당신 자신에게로 모으고자 하실 때, 특별한 일을 벌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백성들까지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할 때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종의 중재자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하여 여전히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말은 해몽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제국을 호령하는 파라오 앞에서 서슴지 않고 건의까지 했습니다. 요셉은 학교에서 정치학이나 경제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고급 관리의 집에서 자란 아들도 아니는데, 그는 앞으로 닥칠 상황을 위하여 거침없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파라오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찾아서, 그로 하여금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파라오께서는 이 땅에 관리들을 임명하시고, 그 일곱 해의 풍년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소출 중 5분의1을 거두어둘 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리들은 앞으로 올 그 풍년 동안에 파라오의 권한으로 곡식을 거두어들여, 먹거리로 쓸 수 있도록 각 성에 갈무리해 두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해서 그 먹거리는 앞으로 있을 일곱 해 동안의 흉년을 위하여 비축 식량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러한 지혜의 근원을 파라오의 입을 통하여 말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파라오는 한편 요셉에게 이처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므로, 너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 최고의 지혜자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합니다.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어찌 그의 지혜가 모든 사람을 능가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된 파라오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이처럼 말했습니다. “너는 내 궁정을 맡을 것이다. 네 명령에 따라 나의 모든 백성이 움직일 것이다. 나는 다만 이 왕좌만으로 너보다 높을 뿐이다.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삼는다.” 이처럼 히브리인 노예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이를 얼마든지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자기 손에 끼고 있던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그것을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는 요셉에게 왕의 전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는 자기의 버금가는 전차에 요셉을 태우게 하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요셉 앞에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이처럼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파라오는 요셉의 전권을 인정하여 말하기를, “나는 파라오다. 이집트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 손이나 그 발 하나도 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쏘프나트페아라고 고쳐 부르고, 또 온 제사장 포티페라의 딸 오스나트를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는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나이 서른에 한 나라의 재상이 되고, 아내도 얻게 되며, 왕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일종의 섭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집트 땅은 일곱 해 풍년 동안에 많은 소출을 내었습니다. 요셉은 그 일곱 해의 곡식을 거두어 성읍들 안에 비축하였습니다. 요셉이 비축한 곡식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들은 결국 세는 것도 그치고 말았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곧 온 제사장 포티페라의 딸 오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큰아들의 이름을 므나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 집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이름은 에프라임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땅에서 나를 번창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하여 요셉을 위로해주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일곱 해의 풍년이 그치고, 일곱 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나라들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닥치자, 요셉은 이집트 안의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의 요셉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모든 나라에 혹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자기 손안에 넣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비슷하게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동족과 온 세상을 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의 고난에 이유가 있듯이, 예수님의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원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생명의 양식을 사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내어주십니다.

총리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창세기 42:1-38>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일지라도, 그들이 자란 후 신분이 달라지면 어쩔 수 없이 상하 관계가 재조정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는 나이와 어머니의 신분(본처 또는 첩) 외에 그들의 상하 관계를 규정해 줄만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이후로 이들의 위계질서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보기도 어려운 고귀한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통하여 그에게 이 일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요셉은 그 꿈 내용을 형제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시기심과 분노가 발동한 형제들은 이 꿈이 현실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자 그를 죽이려 했다가 노예로 파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노력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주인 마님의 사특한 유혹과 무고(誣告)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주변의 모든 방해가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역이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바꿀만한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이 지난 후, 기근은 이집트 땅 뿐만 아니라 야아콥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던 케나안 땅에도 닥쳤습니다. 그 무렵 야아콥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쳐다보기만 하느냐? 보아라, 나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들었다. 너희는 그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식량을 사 오라.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야아콥의 지시를 따라 요셉의 형제 열 사람은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야아콥은 요셉의 아우 벤야민 만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에게 사고가 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요셉은 이집트 총리로서,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식량 파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하였습니다. 오래 전 요셉이 꾸었던 꿈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길 뿐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모르는 체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대화 내용을 잠깐 들어보기로 합시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양식을 사려고 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너희는 간첩들이다. 너희는 이 나라의 적나라한 모습을 엿보려고 왔다.”

–“아닙니다, 나으리. 저희 소인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저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소인들은 결코 정탐 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적나라한 모습을 엿보러 왔다.”

–“저희 소인들은 열 두 형제입니다. 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보십시오.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실종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간첩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스스로 밝혀보아라. 파라오의 생명을 가리켜 맹세한다. 너희의 막내아우가 이리로 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간혀 있는 동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도록 하라. 이처럼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가 진실한지를 밝혀내야겠다. 파라오의 생명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간첩임에 틀림없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었습니다. 사흘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이같이 행하여 목숨을 살리도록 하라. 만약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너희 나머지는 너희 굶주리는 집안을 위해 필요한 식량을 가지고 가라. 그러나 너희 막내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래야만 너희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이쯤 이르자,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그렇다! 우리가 우리 아우에게 잘못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의 괴로운 심정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만형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을 힐난하며, “내가 너희더러 그 애에게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보아라, 그래서 그의 피 값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인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 말을 알아들은 줄 알지 못하였으나, 요셉은 그들이 뉘우쳐 말하는 것을 듣고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하여 울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진정시킨 요셉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붙잡고 그들이 보는데서 그를 묶게 하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명을 내려 형제들이 모르는 가운데 그들의 그릇을 곡물로 채우게 하고, 그들의 돈은 각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가면서 먹을 양식도 그들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와 사랑을 이처럼 은밀히 표시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의 형제들은 시므온을 이집트의 옥에 남긴 채, 식량을 나귀에 싣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여관에서 그들 중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의 자루를 풀었다가, 양식 값으로 마땅히 지불되었어야 할 돈이 자기의 행낭 안에 그대로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일을 들은 야아콥의 아들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말하면서, 얼빠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두려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케나안 땅 자기들 아버지 야아콥에게로 와서, 그간 겪은 모든 일을 그에게 보고한 후에 자기들의 자루들을 쏟고 보니, 마땅히 양식 값으로 빠져나갔어야 할 각 사람의 돈 몽치가 자루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돈 몽치를 보는 순간 그들과 아버지 야아콥은 모두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아콥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또 벤야민마저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게만 일어나는구나.”

인간은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알지 못하고 또 결과적으로 앞일을 미리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서 지나치게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중요한 입학시험이나 입사 시험을 앞두고 그것에 반드시 합격한다는 것을 미리 알기만 한다면 시험에 앞서서 불안해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불합격이라는 반쪽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불안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란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이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섭섭하게 하시는 일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는 마치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전혀 아랑곳없이 어머니 품에 편히 쉬는 갓난아이의 마음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며, 또 동료 인간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은 쉽게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일을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모든 일이 기묘하게 어우러져 선한 결과를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기적적인 일뿐 아니라, 심지어 인간의 눈에는 고난이나 불행으로 비치는 것까지도 활용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친구여, 나는 그대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믿음을 상실한 상태였고, 그들의 죄악에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던 아버지 야아콥도 불신앙의 늪을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때 만아들 르우벤이 야아콥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벤야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됩니다. 제발 그를 내 손에 맡겨 주십시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야아콥의 거절은 완강하였습니다. “벤야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나의 이 백발을 슬픔 가운데 저승으로 내려보내게 될 것이다.” 르우벤의 제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열정과 우매한 만용에서 나온, 순전히 인간적인 제안일 뿐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일 뿐, 자신의 용기나 열심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야아콥의 다른 아들에게서 진정한 믿음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과 아우 벤야민의 만남 <창세기 43:1-44:13>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진정한 영웅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느 길을 택하여야 할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야아콥의 아들들이 1차로 이집트에서 식량을 구입하여 돌아온 이후, 야아콥 집안 사람들은 또 다시 식량을 사러 이집트로 가야하는 일로 인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케나안 땅의 기근은 그치지 않고 그 땅 주민들을 더욱 더 압박해왔습니다. 야아콥 집안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을 다 먹었을 때, 야아콥이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식량을 사 오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벤야민을 팔려보내는 것만큼은 여전히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이때 문제의 돌파구를 뚫는 사람이 바로 예후다였습니다. 예후다는 분명한 어조로 아버지 야아콥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없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식량을 사오겠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아콥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야아콥이 “왜 너희에게 아우가 더 있다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어 나를 곤란하게 하였느냐?”고 하자, 아들들은,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척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고 말하기에, 우리가 그에게 사실대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가 ‘너희 아우를 데려 오라’고 말하리라고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예후다의 확신에 찬 간청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할 테니, 나한테 책임을 물으십시오.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께 평생 동안 죄를 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두 번씩이나 다녀왔을 겁니다.” 예후다는 벤야민 한 사람이 그 이집트 총리의 손에 죽느냐 아니면 아버지 집안 사람 모두가 굶어죽느냐 하는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차라리 아버지가 아끼는 아우 벤야민의 목숨을 담보로 온 가족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아버지 야아콥에게 간청했을 것입니다.

예후다의 간청에 결국 이스라엘 곧 야아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 땅의 특산품을 너희 그릇에 담아다가 그 사람한테 선물로 가지고 내려가라. 향유(香油)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를 가져가라. 돈은 너희 손에 갑절로 가져다가, 너희 행낭으로 돌아온 그 돈을 다시 너희 손으로 돌려주어라. 아마도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너희 아우도 데리고, 일어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벤야민을 보내주기를 바란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는 수밖에 없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극제가 되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예후다의 간곡하고도 확고부동한 요청에 야아콥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일의 결과를 맡기며 이집트 행을 허락했습니다.

마침내 벤야민을 포함한 이들의 일행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다시 요셉의 앞에 섰습니다. 일행 중에 벤야민이 함께 있음을 확인한 요셉은 자기 집 딸은이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라.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 온 요셉의 형제들을 혹시 지난 번 돈이 돌아온 일로 인하여 노예로 붙잡혀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집 딸은 사람에게 지난 번 일의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돈을 도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뜻밖에도 그의 대답은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보화를 너희 행낭 안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게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들에게 시므온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주어 그들의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정오에 요셉이 오기까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그들이 식사할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그들은 선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리어 그에게 절하였습니다. 요셉은 먼저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우 벤야민이 형제들 중에 있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 순간 요셉은 자기 아우에 대하여 감정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방으로 들어가서는 거기서 울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시켰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따로, 그들에게 따로, 또 그와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따로 차렸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이집트 사람에게 부정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았는데, 그 만이에서 막내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따라 앉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서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의 몫을 그들에게 건네주었는데, 벤야민의 몫은 그들 모두의 몫보다 다섯 배나 많았습니다. 그들이 요셉과 함께 마시며 취하였습니다.

요셉은 벤야민을 비롯하여 형제들을 만나 은밀히 회포를 푸는 중에도 이 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궁리하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집 말은이에게, “이 사람들의 행낭에다가 양식을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행낭 아귀에 넣어라. 그리고 내 은잔을 그의 곡물 값과 함께 막내의 행낭 아귀에 넣어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침 밝아질 무렵 형제들이 성을 나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자기 집 말은이에게 다시 지시했습니다. “일어나 이 사람들 뒤를 따라가라. 따라 미치면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선 대신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또 그것으로 늘 점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쁜 짓을 하였다.’”

그는 지시대로 그들에게 따라 미쳐서, 그들에게 시킨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었던 그들은 “어르신,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결코 그 같은 짓은 행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행낭 아귀에서 찾은 돈도 우리가 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겠습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또한 어르신께 종이 되겠습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가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너희 말대로 하도록 하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내게 종이 되고, 너희는 무죄할 것이다.” 그들은 서둘러 각각 자기 행낭을 땅에 내려놓고 각각 자기 행낭을 풀었습니다. 그가 만이서부터 시작하여 막내에서 끝내기까지 뒤졌는데, 마침 잔이 벤야민의 행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옷을 찢고, 각기 자기 나귀에 짐을 싣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쉽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에게 아직도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자기의 친아우 벤야민에 대하여도 미워하거나 소홀히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그는 벤야민이 위기에 처할 경우 과연 그들이 그를 구해줄 것인지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요셉의 형제들이 진정 회개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집트 총리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이들 야아콥의 아들들은 또 한 번의 위기 앞에서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왜 모든 일이 이처럼 꼬이기만 한다는 말인가? 하필이면 자기들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이처럼 몇 차례의 위기를 직면하면서 그들은 과거 자기들의 죄악을 회상하였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들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요셉을 설득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이 위기를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회개할 때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알리다 <창세기 44:14-45:15>

야아콥의 아들들은 막내 동생 벤야민을 빼앗길 곤경에 빠지자, 다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성경은 ‘예후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고 소개함으로써, 이제부터 있을 예후다의 중요한 역할을 암시해줍니다. 야아콥의 첫째 부인 레아의 소생으로서 ‘찬송함’이라는 뜻의 예후다는 여러모로 다른 형제들과 구별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아예 죽여 없애려고 하였으나, 정작 요셉을 죽음에서 구하여 그를 노예로 파는 일로 그치게 한 사람이 바로 예후다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형제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이후로 예후다의 삶은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대로 아내와 자식을 잃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는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형제들이 함께 모의하여 팔아버린 요셉이 고난을 거쳐 이방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올라 영화를 누리는 동안 예후다는 온갖 형극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맞본 예후다는 이제 자신을 감추는 요셉 앞에서 벤야민을 구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후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자, 요셉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요셉의 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아콥의 아들들 중에서 앞에 나서서 대답하는 이는 역시 예후다였습니다. 이들의 질의문답을 들어보면 예후다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 “너희가 행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짓이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예후다: “우리가 어르신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소연해야 우리의 정직함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허물을 들춰내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르신의 종입니다. 우리나라 이 잔이 그 수중에서 발견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그리 하는 것은 내게 가당치 않다. 잔이 그 수중에서 발견된 사람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이때 예후다는 요셉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예후다: “오, 어르신, 당신의 종이 어르신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파라오와 같으십니다. 어르신께서 종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께 아뢰기를, ‘우리에게 늙으신 아버지와 또 그 노년에 얻은 막내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어머니에게 그만 혼자 남았으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 눈으로 그를 확인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르신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죽게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막내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낫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어르신의 말씀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우리 먹을 양식을 좀 사라'고 하기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막내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내려가지만, 우리 막내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낫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내게 둘을 낳았다. 하나는 내게서 나가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정말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하고, 이제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다. 너희가 애마저도 내게서 데려가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나의 백발을 슬픔 가운데 저승으로 내려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갈 때에 아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 경우, 그의 목숨이 아버지의 목숨에 매여져 있으므로,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는 죽을 겁니다. 결국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의 백발을 괴로움 가운데 저승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당신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위하여 담보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께 평생 동안 죄를 질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부디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이 아이 대신 어르신의 종으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한데, 어떻게 내 아버지께로 올라 갈 수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께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실함이 보태지면 세상은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후다는 이 위기의 순간에 성실한 마음과 진실한 말로써 위기를 모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진심에서 우리나라오는 간곡한 호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 야아콥을 사랑하여 그에게 한 약속대로 반드시 벤야민을 구해내고자 그 대신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는 예후다의 간곡한 호소는 요셉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후다의 호소에 요셉은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어서 소리질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라." 주변의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물러나게 한 후,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던 요셉은 밖의 이집트 사람들과 심지어는 파라오의 궁전에까지 들릴 정도로 목청 높여 울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영문을 모르고 요셉이 대성통곡하던 모습을 지켜보던 형제들은 이 갑작스런 말 때문에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혀서 그에게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병어리가 된 형제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다가오라'고 하고는, 요셉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도 말고 스스로 한탄하지도 마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두 해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 다섯 해나 더 받을 갈지도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위하여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고, 또 당신들을 위하여 많은 생존자를 살려두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셨고, 또한 그가 나를 파라오의 아비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고백은 아무의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깊은 고뇌 그리고 절망을 극복한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을 생명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신은 먼저 이집트에 온 것이며, 이 목적을 위하여 형제들은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라면서 크게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도리어 위로해주었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을 전혀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집안에 대한 요셉의 배려는 계속 이어지는 그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서둘러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오. 그리고 그에게 이처럼 말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처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 정착하셔서 나와 가까이 계십시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아버지의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그리하십시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다섯 해나 더 있으니,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굶주릴까 두렵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벤야민의 눈으로 보다시피, 내 입으로 직접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의 나의 모든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알리고, 서둘러 내 아버지를 모시고 이리로 내려오시오."

요셉의 말이 이에 이르자, 그의 형제들은 여전히 놀라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기들 눈앞의 이집트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먼저 어머니가 같은 그의 아우 벤야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에 벤야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또 자기 모든 형제들과 일일이 입맞추며 안고 우니, 그제야 그의 형제들이 입을 열어 그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의 극적인 만남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과의 만남을 연상케 합니다.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은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이방인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한편 지난 2000년 동안 자기들의 왕 메시아 예수를 버렸던 유대인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분 앞에 무릎꿇고 그분의 용서와 영접을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나의 시대에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전에 예후다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유대인(이 이름은 ‘예후다’에서 기원한 것임)은 그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성실한 마음과 진실한 말로써 간곡히 호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야아콥의 가족 이집트로 오다 <창세기 45:16-46:34>

오늘날 유대인의 전신인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은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곧 야아콥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야아콥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동방의 우르라는 도시를 떠나 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야 했습니다. 그 이후 야아콥의 손자들이 태어나기까지 대략 5대에 걸쳐 아브라함의 집안은 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물론 그 기간 가운데는 야아콥이 케나안 땅을 떠나 아람 땅에서 지낸 20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주를 주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 집안의 또 다른 이주를 주도하십니다. 이 대이동의 물꼬를 터준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전에 들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본 파라오인지라, 그는 요셉의 온 가족을 이집트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내린 지시를 들어보면 그의 이러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형제들더러 그들의 짐승에 짐을 꾸리고, 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안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좋은 땅을 주겠다. 너희가 이 땅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어린것들과 너희 아내들을 위하여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져가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이집트 온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이집트 파라오의 명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일은 서둘러 이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명을 따라 형제들에게 수레를 주고, 또 길에서 먹을 양식도 주었습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각기 갈아입을 옷 한 벌씩 주었는데, 벤야민에게는 특별히 은 300개와 갈아입을 옷 다섯 벌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한 선물과 양식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자기 형제들을 떠나보내면서 “길에서 다투지 마시오.”라는 충고의 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아버지 야아콥에게 요셉이 아직 살아 있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드렸습니다. 야아콥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정신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야아콥은 아들들의 계속된 설명과 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야아콥, 곧 이스라엘이 말하였습니다.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아야겠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모든 가족과 소유를 브엘세바에 집결시켰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 아버지 이즈하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아콥아! 야아콥아!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내가 또 반드시 너를 이끌고 올라올 것이다. 요셉의 손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집트로의 이민을 인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은 야아콥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일어나 이집트로 갔습니다. 야아콥 집안은 또 그들의 가족과 케나안 땅에서 얻은 그들의 모든 재물을 가져갔습니다.

창세기 46:8-27에는 이집트로 내려간 야아콥 집안의 상세한 명단이 나옵니다. 잠시 이 명단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집트에 온 야아콥 집안이 모두 70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자세히 말하자면, 먼저 레아의 소생과 야아콥을 합한 수가 33명, 실파의 소생 16명, 라헬의 소생 14명, 빌하의 소생 7명을 합하여 모두 70명이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아콥의 가족수는 신명기 10:22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칠십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야웨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창세기 46:8-27의 기록은 몇 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야아콥의 아내들을 비롯하여 모든 며느리나 손주 며느리 등 여자들이 숫자 계산에 들어오지 못한 반면에(26절 참조), 유일하게 레아의 딸 디나와(15절) 아셀의 딸 세라(17절)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다른 말로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고 지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디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창세기 34장 참조). 둘째, 레아 소생을 계수함에 있어서 야아콥 자신을 포함시켜 그 수는 모두 ‘33명’에 이릅니다(15절). 셋째, 야아콥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할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자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연대를 계산해 볼 경우, 예후다와 그의 며느리 타말 사이에 태어난 페레즈에게 이집트로 이주할 때 즈음하여 두 아들이(12절) 이미 생겨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 무렵 벤야민에게(민수기 26:38-40; 역대상 7:6-7에 의거, ‘손자를 포함하여’) 열 명의 아들이 생겨났을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이집트로 이주한 후에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70명’은 이집트에 내려간 실제의 정확한 인원이라기 보다는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야아콥의 자손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야아콥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창세기 46:26; 출애굽기 1:5)이라는 문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이러한 히브리적 사고 방식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히브리서 7:9-10 참조: “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에 도착한 야아콥과 요셉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후다는 안내를 맡았고, 그들이 만난 곳은 앞으로 이스라엘 후손이 살게 될 고센 지방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수레를 갖추어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러 고센으로 올라와서 아버지를 뵙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는 그의 목에 기댄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네가 여태 살아 있어서 내가 네 얼굴을 보지 않았느냐.”

부자간의 감격적인 해후에 이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사람들이 내게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떼를 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인지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것을 끌고 왔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당신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양떼를 치는 이는 누구나 이집트 사람들의 혐오거리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안을 위하여 현명하게 최적의 장소를 골랐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집트 땅은 야아콥의 후손 70명이 성장하여 한 민족을 이룰 태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이주를 주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 자녀의 발걸음을 일일이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친구여, 당신이 내디딜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평화롭게 살지 않으렵니까?

이집트에서 번영하는 이스라엘 민족 <창세기 47:1-31>

온 세상이 기근에 허덕일 때, 이스라엘 집안은 풍요의 땅 이집트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제야 야아콥 집사람들은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을 차지하는 일은 요셉의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었습니다. 요셉의 지위가 총리인지라,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을 쉽게 파라오에게 소개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것을 끌고 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후에, 그는 자기 형제들 중 다섯 사람을 뽑아서 파라오 앞에 알현시켰습니다.

생업을 묻는 파라오의 질문에 이들은 “당신의 종들은 양치기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류하려고 왔습니다. 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습니다. 부디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부탁을 듣고 파라오는 흔쾌히 허락하고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네게 왔다. 이집트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이 땅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을 살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게 하라. 만일 네가 알기에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내 가축 관리책임자로 삼아라.”

요셉은 또 자기 아버지 야아콥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알현시켰습니다. 파라오가 야아콥의 나이를 묻자, 야아콥은 “내 나그네길의 햇수가 130년입니다. 내 생명의 햇수는 짧지만 험난하였습니다. 그것은 내 조상들이 그들의 나그네길 동안 보낸 생명의 햇수에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야아콥의 인생은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위하여 쌍둥이 형제와 싸웠고, 아내와 재산을 위하여 외삼촌과 대립하였으며,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과 힘을 겨뤄야만 했습니다. 야아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향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하여 소유지도 얻고, 먹을 양식도 받아 풍요롭게 사는 동안, 이집트와 케나안 땅 전역에는 기근이 무척 심하여 온 땅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돈을 지불하고 곡식을 구입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과 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둬들여, 그 돈을 파라오의 궁전으로 가져왔습니다. 백성의 돈이 몽땅 이집트 왕궁의 재산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땅과 케나안 땅에서 돈이 바닥나자, 이집트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오. 어찌 당신 앞에서 죽겠습니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너희의 가축을 가져와라. 돈이 없다면 내가 너희의 가축을 받고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해에 요셉은 그들의 모든 가축을 받고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해가 끝나고 다음 해에 그들이 그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르신께 숨길 수 없습니다. 돈은 바닥났고 가축 때는 어르신께로 되어 있으니, 어르신 앞에서 남은 것이라곤 우리의 몸뚱이와 우리의 토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당신 눈앞에서 죽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토지를 양식 대신 사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토지와 함께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겠고, 토지도 황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47:20-26절에 이러한 거래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백성으로부터 토지를 받아 파라오의 소유로 돌리는 한편 그들을 파라오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에게서 녹을 받는 제사장들만은 이 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백성에게 씨앗을 나눠주면서 앞으로 수확한 곡식의 5분의1은 파라오에게 바치고 5분의4는 그들 자신을 위한 씨앗과 양식으로 사용할 것을 국법으로 정했습니다. 이집트 백성은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르신께 은혜를 입었으니,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대대적으로 요셉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이 문단에서 한 가지 이상한 구절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21절의 “요셉이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전체 문맥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는 과연 이집트의 인구에 대한 대이주 정책을 실시하였다는 것일까요? 이집트 백성이 토지와 더불어 자기들의 몸마저 파라오에게 팔 때에 그들을 성읍들 안으로 옮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히브리어 맛소라 성경의 21절 본문은 문맥상 웬지 석연치 않은 물음들만 던지게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전수해온 사마리아 오경에는 이 구절이 “요셉이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그에게 종으로 삼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맛소라 성경의 “그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에트 하암 헤에비르 오토 레아림’과 사마리아 오경의 “그가 백성을 그에게 종으로 삼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에트 하암 헤에비드 이토 레아바딤’을 비교해보면 두 히브리어 문구가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의 ‘그에게’의 ‘그’는 파라오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됩니다. 독자는 사마리아 오경의 본문이 맛소라 본문보다는 문맥에 더 잘 어울린다는 점을 바로 감지했을 것입니다. 한편 주전 3세기 경의 헬라이어 칠십인역 역시 사마리아 오경과 같은 내용의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필자의 소견에 따르면 이 경우 아마도 맛소라 성경은 오류를 담고 있고,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에 그 원본이 보존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집트 백성이 모두 요셉의 노예 정책으로 말미암아 파라오의 노예로 전락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집안은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하여, 거기서 소유를 얻고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야아콥은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147세가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그는 요셉을 불러 “네게 청이 하나 있다.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내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선조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그들의 묘지에 나를 묻어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대로 맹세까지 하며 부탁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안심이 된 이스라엘은 침상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렸습니다.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이 서로 분리됩니다. 사람이 그리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는 당신 백성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위에서 살 때도 비록 불신자들과 섞여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결코 죄와 죽음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 때, 나누는 일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또 다시 나누는 일을 통하여 당신 백성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친구여,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야아콥의 호적에 오르는 요셉의 두 아들 <창세기 48:1-22>

인간에게는 온갖 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생에 의한 순서는 인간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순서들 중의 하나입니다. 야아콥의 아들들은 아버지 살아 생전에 나이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본 부인이나 첩이나에 따라서도 지위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 집안을 구하는 커다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집안에서 그 지위가 수직 상승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어느 정도 신분 상승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까지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함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보험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안정과 보호를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의 생명과 운명을 위하여 ‘하나님 보험’에 가입한 요셉은 당대 최강의 나라에서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통치자가 되어 자기 가족뿐 아니라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하는 커다란 공을 세웠습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어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온 세상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시는 일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야아콥의 육신의 목숨은 그 종착역에 서서히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부친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한 요셉은 혹시라도 임종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는 자기의 두 아들 므나세와 에프라임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야아콥, 곧 이스라엘은 힘을 내어 일어나 침상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요셉에게 이처럼 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축복하신 적이 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네게서 백성들의 무리가 생길 것이다. 또 이 땅을 너 다음의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제, 내가 이집트 네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네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다. 에프라임과 므나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형들 이름 대신에 그들이 자기들의 상속권에 등록될 것이다. 내가 파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남겨두고, 케나안 땅 에프랏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길에서 죽었다. 내가 그녀를 거기 에프랏 길에 묻었다.”

야아콥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즈학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도 계승되었음을 말하면서, 이 약속을 요셉에게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야아콥의 열 두 아들이 받아 누릴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야아콥은 집안을 위한 요셉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의 두 아들, 곧 자신의 손자들에게 자기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허락했습니다. 이 일은 두 손자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인 요셉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야아콥은 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무덤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들들을 데려와 아버지께 인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이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라는 이스라엘의 질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자기에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내게로 데려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요셉이 그들을 이스라엘에게로 다가가게 하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다. 그런데 보아라. 하나님이 내게 네 후손까지 보여주셨구나.”

감격한 요셉이 아들들을 그의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이끌어, 오른손으로는 작은 아들 에프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에, 왼손으로는 큰아들 므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도록 하여, 그에게로 다가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의 오른손을 뺀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은 므나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므나세가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을 어긋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즈학이 섬기던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부터 오늘날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즈학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소서.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크게 번창하게 하소서.”

고대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쪽 손을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는 언짢은 생각이 들어, 그의 아버지의 손을 잡아 그것을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서 므나세의 머리 위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이 애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였습니다. “알고 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은 나라들을 이룰 정도로 넘치게 될 것이다.” 그 날에 그가 그들을 축복하여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를 두고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에프라임 같고 므나세 같게 하실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그는 이처럼 에프라임을 므나세 앞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요셉을 위한 축복도 잊지 않았습니다. “보아라.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네게 네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준다. 그것은 내가 내 칼과 활을 가지고 에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요셉은 상속에 있어서도 형제들을 능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 둘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악한 자가 권세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역시 하나님의 깊은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야아콥의 유언 <창세기 49:1-33>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가 아들들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면서 축복하는 경우가 몇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따르면, 이즈학은 쌍둥이 아들 야아콥과 에서를 서로 다른 내용으로 축복하였습니다. 물론 이 축복이 아들 야아콥과 아내 리브카의 숙임수에 의하여 이즈학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려지긴 하였지만, 그 이후 역사를 통해 보건대 이즈학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아콥은 죽기 전에 열 두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훗날에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씩 하나씩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의 미래가 대부분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아콥의 열 두 아들의 순서는 이러합니다. 먼저 레아의 소생 여섯 명(르우벤, 시므온, 레비, 예후다, 스불론, 이싸칼)이 등장하고, 다음으로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단, 나프탈리)과

레아의 몸종 실파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갓, 아셀)이 섞이어 단, 갓, 아셀, 나프탈리 순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의 두 아들(요셉, 벤야민)이 나옵니다.

먼저 르우벤은 야아콥의 맏아들로서, 야아콥은 그를 가리켜 ‘나의 힘,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곧 야아콥은 전에 가족이 케나안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자기의 첩 빌화와 통간한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하여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간단한 문장으로 마쳤습니다 (창세기 35:22). 하지만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야아콥은 르우벤에 대하여 “위엄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다. 물같이 들끓어 너는 더 이상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네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감으로, 너는 수치를 행하였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다.”고 함으로써, 옛날의 부끄러운 일에 대하여 그 값을 치를 것을 말하였습니다.

레아의 소생으로서 시므온과 레비 형제는 그 이름이 나란히 언급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의 누이 디나가 슈켄 성 하물의 아들 슈켄에게 강간당하였을 때, 이들 두 사람을 주축으로 야아콥의 아들들은 숙임수로 슈켄 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후 그 마을로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디나를 구출하고 그 마을을 약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야아콥의 재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야아콥은 이 일을 주동한 시므온과 레비에게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 땅 주민들인 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이 나를 추하게 볼 것이다. 나는 수가 적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대로 연합하여 나를 공격할 경우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임종에 앞서 이들 두 형제에 대한 야아콥의 발언은 “그들의 칼은 잔인한 무기이다. 나 자신은 그들의 모의(謀議)에 끼지 않겠고, 내 자존심이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제 혈기대로 소의 오금을 잘랐다. 그들의 분노가 사납고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아콥 가운데 나누고,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흠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후다는 여러 면에서 출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담대하고 솔직한 기질로 하소연하여 위기를 벗어나게 한 장본인인 예후다는 아버지 야아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너 예후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칭찬할 것이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예후다는 새끼 사자이다. 내 아들아, 너는 사냥감으로부터 올라갔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자와 같다. 사자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키겠는가? 홀이 예후다에게서, 입법자(立法者)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주인이 오기까지 그러할 것이요, 그에게 백성들이 복종할 것이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그의 암나귀 새끼를 최상급 포도나무에 맨다. 그의 옷을 포도주에, 그 의복을 포도즙에 뾰다.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의 이빨은 우유보다 희다.” 위의 축복의 내용에서 보듯이 야아콥은 예후다 후손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권을 허락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왕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서 그 궁극적인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불론, 이싸칼, 단, 갓, 아셀, 나프탈리, 그리고 벤야민에 대한 예언은 아래에서 보듯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거주할 것이다. 그는 배들을 위한 항구가 되어, 그 측면이 찌든까지 이를 것이다. / 이싸칼은 뼈가 단단한 나귀이다. 그는 양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다. 그는 쉴 곳이 좋고 그 땅이 편안함을 보았다. 그는 어깨를 굽혀서 짐을 지고, 강제 노동에 끌려간 자가 되었다. / 단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 하나로서 그의 백성을 치리할 것이다. 단은 길센의 뱀, 통행로 옆의 독사가 될 것이다. 그가 말의 발뒤꿈치를 물어서 그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한다. 나는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야웨여! / 갓은 군대가 그를 기습하지만, 도리어 그들의 뒤를 기습할 것이다. / 아셀에게서 나는 먹거리는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진수(珍羞)를 낼 것이다. / 나프탈리는 놓인 암사슴이다. 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 벤야민은 물어뜯는 이리이다. 아침에도 여전히 먹고, 저녁에도 잡은 것을 나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그가 형제들로부터 당한 고난과 이집트에서 영화롭게 되어 가족을 구원한 일 등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건실한 아들, 곧 샘 곁의 건실한 아들이다. 딸들이 담 곁으로 행진한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혹독하게 공격하고, 그에게 활을 쏘아대며 괴롭혔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힘있게 버티고, 그의 팔과 손이 굳세다. 이는 야아콥의 위대한 분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거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계시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이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위로는 하늘의 복이요, 아래로는 깔린 수원(水源)의 복이며, 젖먹이는 복과 태(胎)의 복이다. 네 아버지의 복이 내 부모의 복을 능가하여, 영원한 산의 무한함에 이를 것이다. 이런 복이 요셉의 머리, 곧 그 형제들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49:24의 우리말 개역 성경(“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아콥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은 예후다 지파에게서 태어날 메시아(49:10 참조) 외에 또 다른 메시아가 요셉 지파에게서 태어날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49:24의 히브리어 본문은 결코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24절의 아랫부분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야아콥의 전능자의 손으로부터. 거기로부터 목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됩니다. 이 구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은 “나도다”라는 동사를 삽입하여 문제를 유발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49:22-26의

문맥을 통하여 볼 때, 24 하반 절부터 25 상반 절까지에는 요셉을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원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원천은 다름 아닌 야웨 하나님입니다. 24절의 ‘전능하신 이’,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와 25절의 ‘네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하신 이’는 모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야아콥은 여기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칭호로 언급함으로써 무서운 환난 중에도 요셉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더욱 두드러지게 묘사하였습니다.

이상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장래에 대한 축복의 내용과 또 그 축복이 ‘각자의 복대로’ 말해졌다는 언급(28절)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합니다. 먼 시각으로 볼 때, 나와 나의 후손의 미래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나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아콥은 자기가 죽으면 조상들이 묻힌 케나안 땅 막펠라 굴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는 숨이 끊어졌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창세기 50:1-26>

아버지 야아콥이 죽자 요셉은 이집트 내 자기의 신분을 이용하여 당대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 드렸습니다. 먼저 요셉은 당시 이집트 풍속을 따라서 자기의 수종 의사들에게 명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향료 처리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일은 흔히 미라를 만드는 작업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의사들이 향료 처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일종의 미라로 만드는 데는 4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한편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이스라엘을 위하여 곡하였습니다. 40일의 향료 처리 기간이나 70일의 곡하는 기간은 모두 당시 이집트 풍속과 일치합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궁전에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들께 청이 하나 있으니, 파라오의 귀에다가 전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나를 맹세시켜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케나안 땅 내가 판 나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를 묻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파라오는 기꺼이 이 일을 허락하였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장례 행렬이 이집트 땅을 빠져 나와 케나안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궁전 원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원로들도 올라갔습니다. 또 요셉의 온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도 올라가고, 단지 어린것들과 가축 때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호위를 목적으로 병자와 기병들도 올라갔는데, 그 진(陣)이 대규모였습니다. 장례 행렬이 요르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애도하였는데, 그것은 매우 크고 엄숙한 애도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도식을 가졌습니다. 그 땅 케나안 주민이 아닷 타작마당에서의 애도식을 보고는 “이는 이집트 사람들의 엄숙한 애도식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아벨미쯔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아콥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명한 대로 그의 시신을 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막펠라 굴에 묻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프론에게서 사서 묘지용 소유로 삼은 것으로, 마르레 맞은 편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묻은 후에, 자기 형제들과 또 그와 함께 그의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야아콥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혹시 요셉이 자기들에게 앙갚음을 하거나 앓을까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나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처럼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네 형제들이 네게 나쁜 것을 저질렀지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의 권위뿐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울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형제들이 직접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보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요셉의 입에서 그 유명한 감동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내게 나쁜 것을 도모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도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 마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것들을 돌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이후 요셉이 그의 아버지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거주하였는데, 요셉은 110년을 살면서 차남 에프라임에게서 자손 삼대를 보았습니다. 또 장남 므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집안 사람들에게 이처럼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이 땅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즈함과 야아콥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해주시길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실 테니, 너희는 이곳으로부터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마침내 요셉이 110살에 죽자, 그의 시신은 향료 처리되어 이집트에서 관에 넣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운명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운명은 그의 아버지 야아콥의 운명보다 훨씬 파란만장하였습니다. 야아콥의 운명이 스스로 택한 결과였다면, 요셉의 그것은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5:5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본래 아버지 야아콥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얼마든지 평안히 가족과 더불어 고향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 일련의 꿈과 그에 따른 형들의 시기 때문에 요셉은 기구하게도 원치 아니하였던 방랑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자유인이 아닌 노예의 신분으로서. 대략 17세 때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 이집트에 내려가서 30세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 요셉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는 모두 합하여 13년이 되는 셈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보냈던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2년은 감옥살이를 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41:1).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떴으므로, 결국 그는 17세 이후 죽기까지 자기 생애의 대부분인 93년을 객지에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메시아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외아들로서, 공생애 동안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열 두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태복음 10:5)고 명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유대인)을 사랑하셨고, 또한 자기 땅을 떠나 타지로 가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디아스포라 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본 백성인 유대인을 구하기에 앞서 이방의 빛으로서 이방인을 구하며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유대인이 예수를 배척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로마서 11:11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께서 본 백성으로부터는 버림을 당하고 도리어 이방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생애 초기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셨던 예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후 승천을 앞두고 복음이 온 천하에 퍼질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에 팔려가 종살이, 옥살이를 하였으나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집트를 비롯하여 이방도 구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부모 형제들도 구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방도 구하시고 마침내 자기 동족인 유대인도 구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9:6의 기록에 의하면 ‘야웨의 종’ 곧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가 이방의 빛이 되셔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의 구원보다 유대인의 구원이 더 힘들다고 쉽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간 예수께서 우리 이방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이방인들은 이러한 축복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이러니로 말미암아 그의 본 백성은 지난 2000년 간 그를 버리고 그 때문에 결국 메시아가 우리 차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야웨의 종’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 그 일을 어렵다 하며 불신하거나 또는 시기하여 방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결국 한때 자기를 버렸으나,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에게로 찾아올 자기 동족을 구하실 것입니다.

Published Writings of Kyungrae Kim

Apr. 1991. 「Jesus the Jew」 「유대인 예수」, Seoul (in Korean).

May 1994. 「Stud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Septuagint」
(in English & Hebrew / Hebrew Universit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pr. 1997. 「Following the Context of the Old Testament」 (New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의 맥을 따라서」 Seoul (in Korean).

Mar 1997. 「The Treasures of the Jews-Introduction to the Jewish Ancient Writings-」
「유대인의 보고(寶庫)」, Jeonju University (in Korean).

July 1997. 「The Bible Seen through Manuscripts」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Jeonju University (in Korean).

July 1999. 「The Bible As Seen through the Texts」 「사본들을 통해 보는 성경」, Jeonju University
(in Korean), 2nd Edition.

Jan. 1998. 「Comfort My People: Commentary on the Book of Isaiah」 「내 백성을 위로하라:
21세기를 위한 이사야서」, Seoul (in Korean).

May 1998. 「Jewish History of Dispersion after Christ」, 「그리스도 이후 유대인 방랑사」
Jeonju University (in Korean).

Aug. 1998. 「Difficult Texts of the Old Testament (I): From Genesis to Leviticus」, 「구약 성경 난제1」 Seoul (in Korean).

Sep. 1998. 「Maranatha Bible 1: My King My Creator」, 「나의 왕 나의 창조주: 창세기1장에서 9장까지의 맥 읽기」 Seoul (in Korean).

Mar. 2000. 「Maranatha Bible 2: Heavenly Pilgrim Walking on the Earth」, 「땅위를 떠도는 하늘 나그네: 창세기10장에서 20장까지의 맥 읽기」 Seoul (in Korean).

June 2004. 「Maranatha Bible 3: Life within God's Reach」,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창세기21장에서 35장까지의 맥 읽기」 Seoul (in Korean).

June 2004. 「Maranatha Bible 4: From Suffering to Glory」, 「고난에서 영광으로: 창세기36장에서 50장까지의 맥 읽기」 Seoul (in Korean).

Dec. 1999. 「Beit HaMiqra Hebrew-Korean Dictionary」 「성서당 히브리어-한글사전」 (공저),

Jeonju University.

Jan. 2001. 「Beit HaMiqla Interesting Hebrew」 「재미있는 성서당 히브리어」,
Jeonju University (in Korean).

Feb. 2006. 「The Three Jews」 「세 유대인」, Seoul (in Korean).

<Other Published Writings>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도서출판 대장간, 1997.

「시온을 위하여」 (함현주와 공저): 도서출판 대장간, 1999.

「**Ensimäinen Mooseksen Kirja Sana Sanalta Heprea-Suomi**」

(**Hebrew-Finnish Parallel Bible: Book of Genesis**), Kesset (Jerusalem), 1991

(co-work with M. & H. Ronning and G. Grossmann)

「**Vanhan Testamentin Tekstit ja Raamatunkäännöstyö**」

(Old Testament Texts and Bible Translation) / Finnish Booklet), Raamattu, 1988.

「**新約希臘文中文辭典**」 (**A Greek-Chinese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浸宣出版社,
1986 (번역팀의 일원으로 헬라어-독일어-중국어 대조 감수 작업에 참여함)

I recommend the following two books for Chinese Translation:

1. Apr. 1991. 「Jesus the Jew」 「유대인 예수」, Seoul (in Korean).
2. **Following the Context of the Book of Genesis**
3. Aug. 1998. 「Difficult Texts of the Old Testament (I): From Genesis to Leviticus」, 「구약 성경 난제1」 Seoul (in Korean).